

한국방정환재단 귀중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의 구축과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2010 년 5 월



사 회 발 전 연 구 소

목 차

제 1 장

조사 개요

- I. 조사목적
- II. 조사내용
- III. 조사설계
- IV.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V. 응답자 특성

제 2 장

조사 결과 요약

- I. 자신의 행복도
- II. 주관적 행복 및 안녕감

제 3 장

조사 결과 분석

I. 물질적 행복

- 1. 상대적 빈곤
- 2. 미취업 가정
- 3. 빈곤

II. 보건과 안전

- 1. 영아건강
- 2. 예방접종
- 3. 사고사

III. 교육

- 1. 학업성취
- 2. 교육참여
- 3. 학업열망

IV. 가족과 친구관계

- 1. 가족구조
- 2. 부모관계
- 3. 친구관계

V. 건강관련 행위

- 1. 건강행동
- 2. 위험행동

VI. 스트레스

- 1. 부모스트레스
- 2. 학업스트레스
- 3. 친구스트레스
- 4. 외모스트레스
- 5. 물질스트레스

VII. 주관적 행복

- 1. 건강
- 2. 학교생활
- 3. 개인행복
- 4. 스트레스

제 4 장

2009-2010 비교분석

제 5 장

통계분석표

◆ 부록 : 설문지

제 1 장

조사개요

I. 조사목적

이 연구는 한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인 초등학교 4 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 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현재 직면하고 있는 주변적 상황들과 주관적 행복 및 안녕감을 OECD 국가들과의 추세와 비교하여 향후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시사점을 발전하고 더 나아가 개선을 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이 연구는 횡단적으로 한국 어린이-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및 안녕감의 실태를 알아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질문들로 현재 그들이 직면하는 각 중 문제, 스트레스, 인간관계 등 다양한 측면을 조명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II. 조사내용

조사대상	주요 조사 내용
초등학생 (4 학년-6 학년)	1. 물질적 행복 2. 보건과 안전 3. 교육 4. 가족과 친구관계 5. 건강관련 행위 6. 주관적 행복
중.고등학생 (1 학년-3 학년)	1. 물질적 행복 2. 보건과 안전 3. 교육 4. 가족과 친구관계 5. 건강관련 행위 6. 주관적 행복

III.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 초등학교 4 학년생부터 고등학교 3 학년 생
응답대상	초등학생 1427 명 중고등학생 4010 명
조사지역	전국 5 대권역(제주도제외)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표본수	5437 명
표본추출	통계청 교육통계자료를 기초로 학생 수에 따라 교급별, 권역별, 지역규모별, 성별을 고려하여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표본 추출
조사방법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0 년 3 월 20 일 - 2010 년 4 월 10 일
조사기관	현대리서치
조사분석기관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IV.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Key-in- Programming 과정을 거쳐 자료의 전산화
- 전산화된 자료(Raw Data)는 통계패키지 STATA SE 를 활용하여 분석함

V. 응답자 특성

초등학생		사례수(명)	비율(%)
		1427	100.0
성별	남성	713	49.96
	여성	714	50.04
지역	강원권	62	4.34
	수도권	650	45.55
	영남권	426	29.85
	충청권	131	9.18
	호남권	158	11.07
지역크기	대도시	603	42.26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174	12.19
	중소도시	650	45.55
학년	4 학년	440	30.83
	5 학년	627	43.94
	6 학년	360	25.23

중.고등학생		사례수(명)	비율(%)
		4010	100
성별	남성	2047	51.05
	여성	1963	48.95
지역	강원권	130	3.24
	수도권	1753	43.72
	영남권	1037	25.86
	충청권	576	14.36
	호남권	514	12.82
지역크기	대도시	1867	46.56
	도서벽지 및 읍면지역	541	13.49
	중소도시	1602	39.95
학년	고등학생	2106	52.52
	1 학년	1001	24.96
	2 학년	615	15.34
	3 학년	490	12.22
	중학생	1904	47.48
	1 학년	720	17.96
	2 학년	649	16.18
	3 학년	535	1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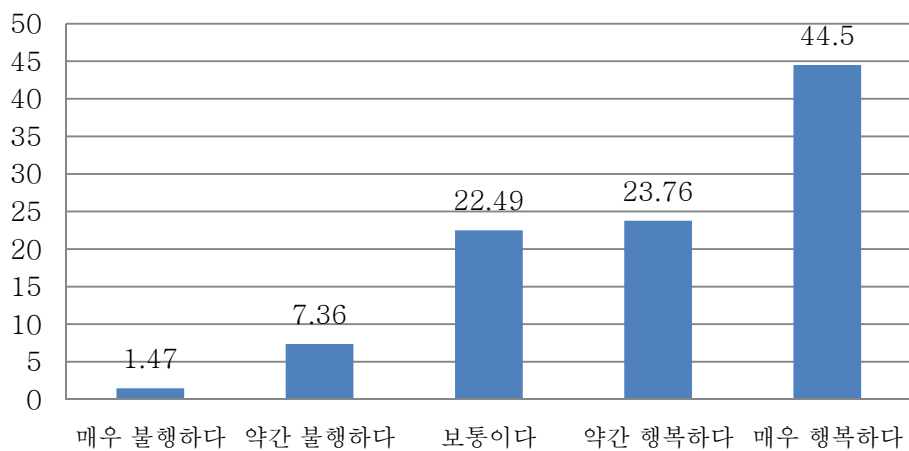
제 2 장

조사 결과 요약

I. 자신의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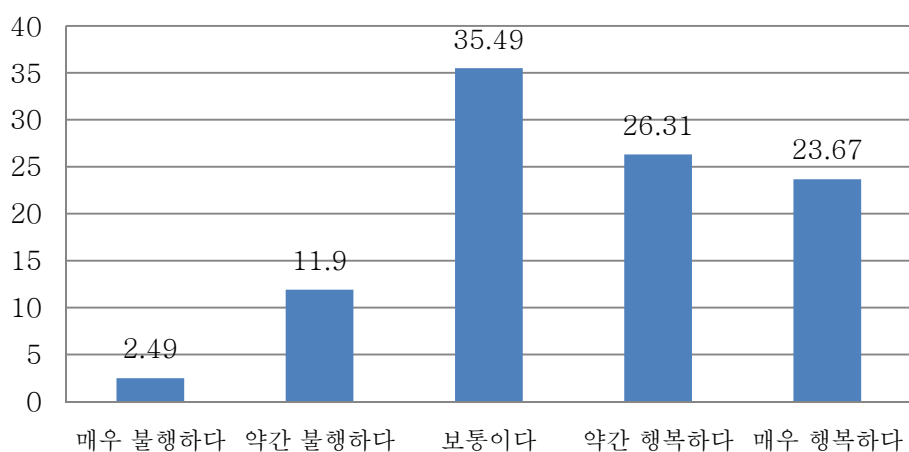
- 초등학생들의 자신의 행복도는 ‘행복하다’라는 응답률이 68.26%이며, 매우 행복하다는 44.5%, 약간 행복하다는 23.76%를 나타내었다.
- 중고등학생들의 자신의 행복도는 ‘행복하다’라는 응답률이 49.98%로 초등학생들에 비해 낮은 행복도를 기록하였다. 특히 ‘매우 행복하다’에 대한 응답률이 23.67%로 나타나 초등학생과 큰 차이를 보이도록 하는 부분이 된다.

초등학생의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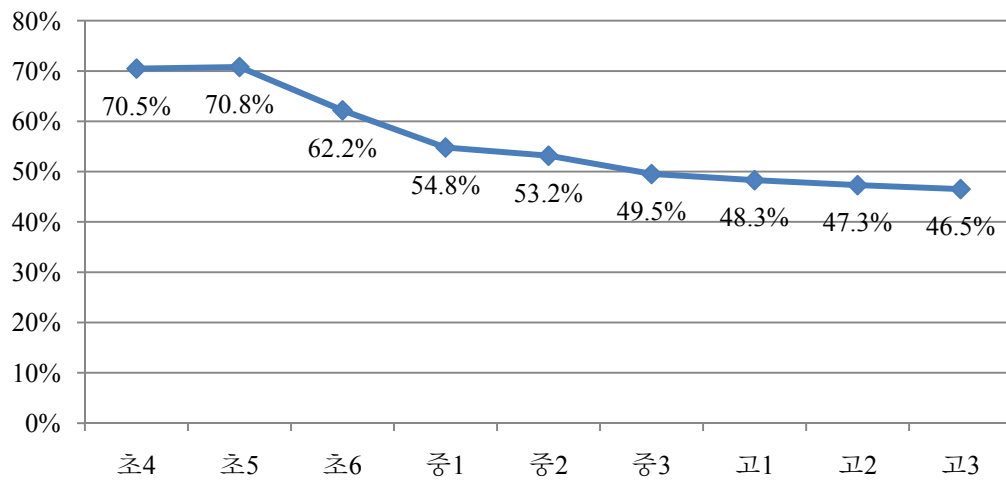
[초등학생의 행복도]

중고등학생의 행복도



[중고등학생의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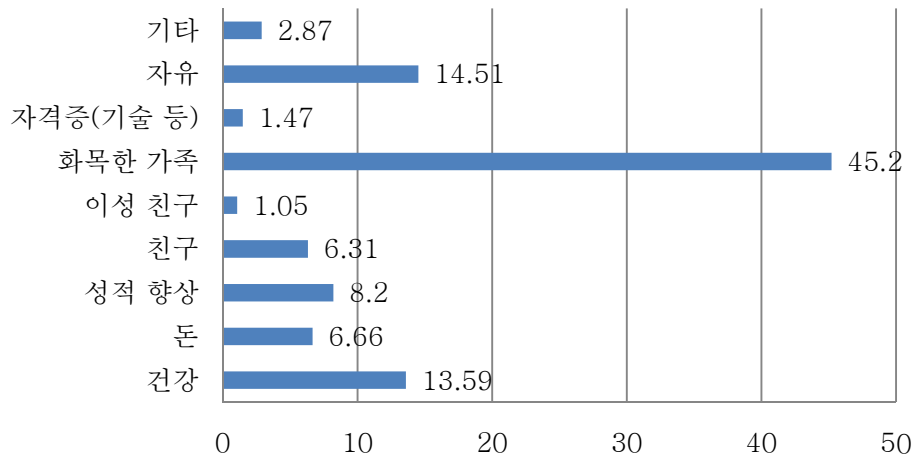
자신이 느끼는 행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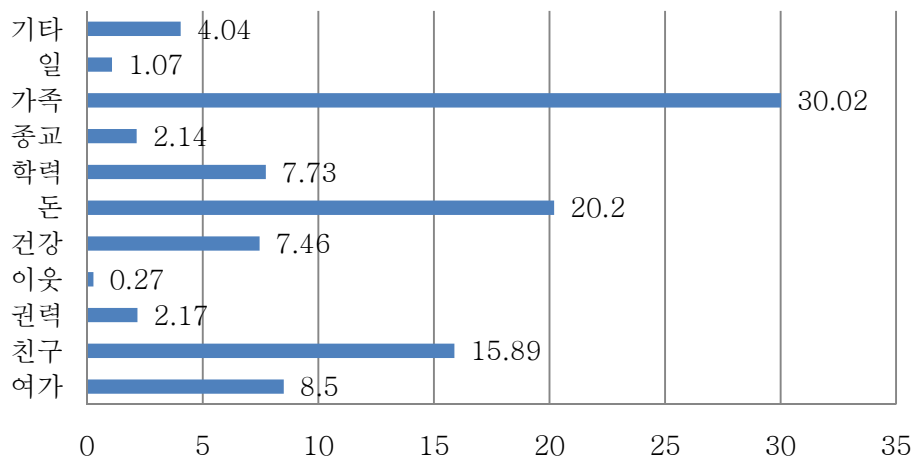
자신이 느끼는 행복도에 대한 조사에서 초등학교 4 학년에서 5 학년으로 넘어갈 때 약간 증가하고 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혹은 더 높은 단계의 학교로 진학할수록 행복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장과 4 장에서 분석을 더하겠지만 이는 학교의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숙제로 인한 스트레스 등 학업과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의 스트레스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졌다는 점과 비교할 수 있다. 다른 것이 아닌 학교로 인한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행복도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응답에서 45.2%와 30.02%가 가족이라고 응답하여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에서 가족간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내었다.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



중고등학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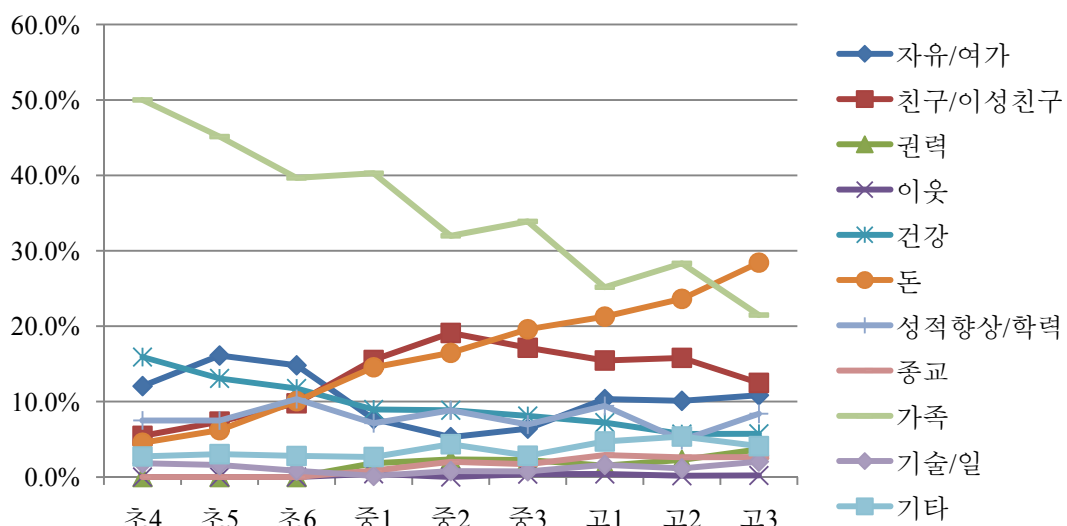


○ 초,중고생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을 학년별로 비교해 보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가족’을 포함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학년이 시작되는 시점인 중 1, 고 1 의 응답률이, 학년이 끝나는 초 6, 중 3, 고 3 에 비해 훨씬 더 높게 나타나 학년이 시작될 때 더욱 행복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이성친구’의 경우 중 1 보다는 중 2 학생들이 더 높게 응답했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 1 의 응답률은 높지만 고 2, 고 3 으로 갈수록 그 응답률은 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성적향상/학력’의 경우, ‘기술/일’ 항목과 함께 고 3 의 응답률이 고 2 의 응답률보다 높게 나온 항목으로 고 3 학생들의 행복은 진학이나 진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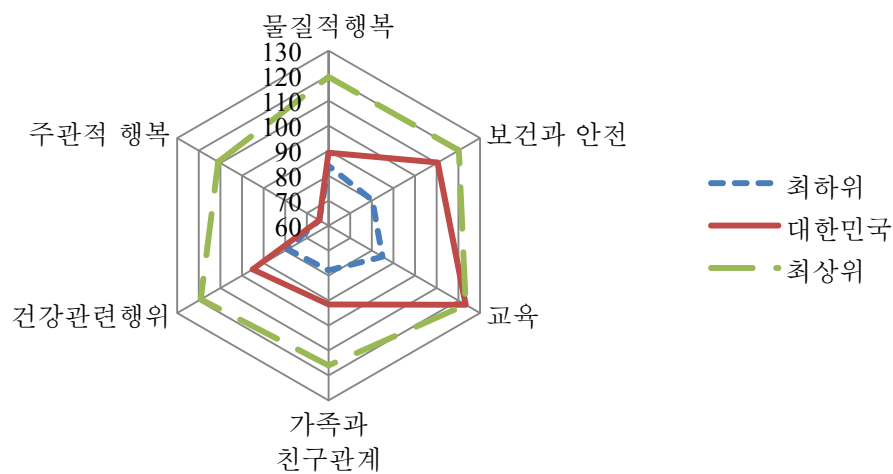


II. 주관적 행복 및 안녕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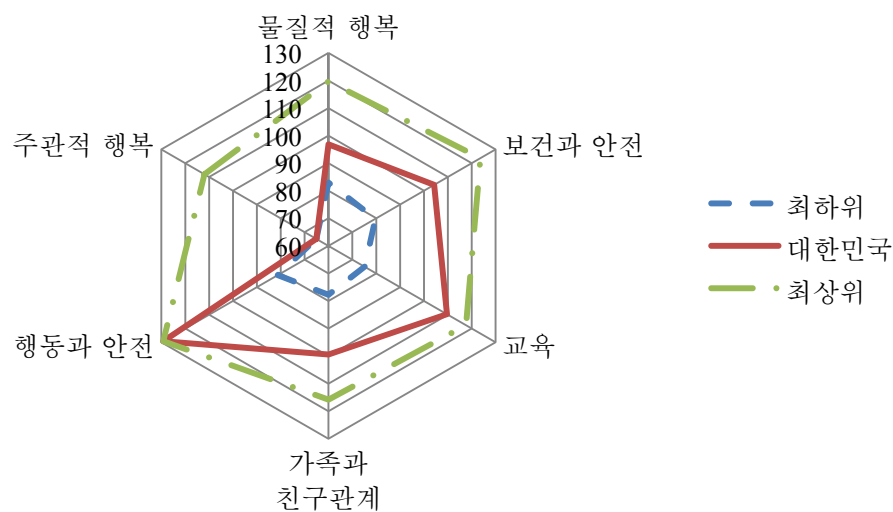
○ 본 조사 중 ‘주관적 행복’의 영역에서 한국의 어린이-청소년들은 OECD국가들 중 최하의 주관적 행복감을 나타내었다.

○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을 국제비교를 한 결과, 한국사회에서 하부구조적 조건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지만 (건강, 교육, 안전 등) 어린이-청소년이 느끼는 주관적 행복의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2009 주관적 행복



2010 주관적 행복



[2009 년 및 2010 년 행복지수 영역별 비교]

제 3 장

조사 결과 분석¹

¹ 그래프에서 수치가 '0'인 경우는 해당 수치가 조사가 되지 않은 국가임.
기술통계치에서는 '0'을 결측값으로 처리 한 후 계산한 값임.

I. 물질적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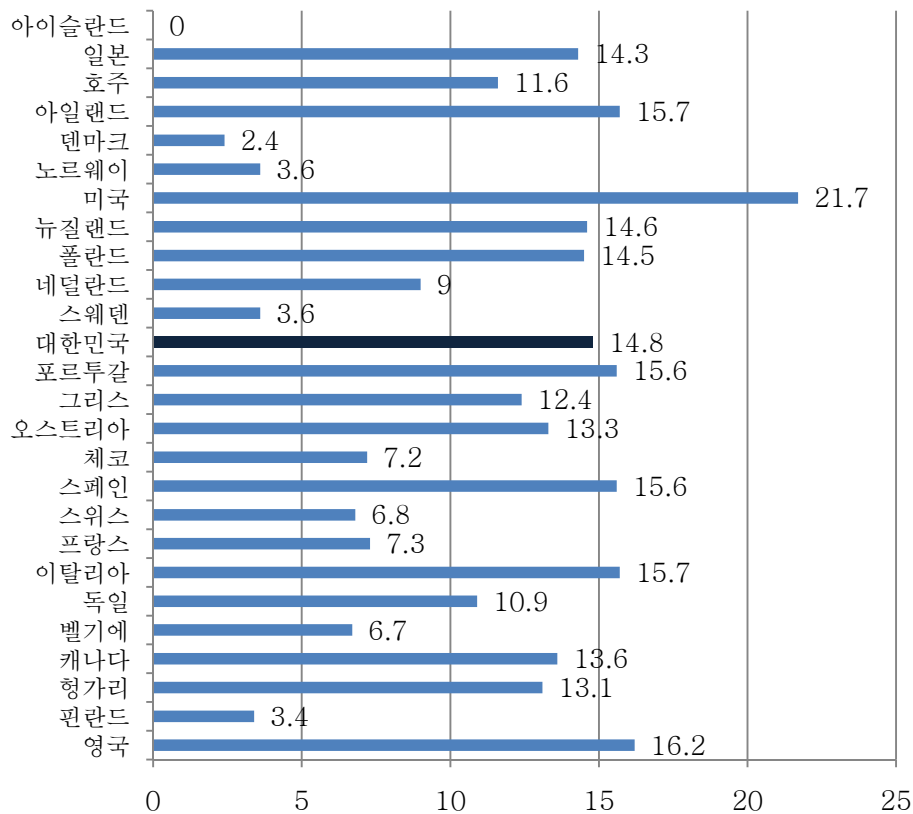
1. 상대적 빈곤

중위수입의 50% 이하
:개별국가에서 중위수입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에 속한 아동의 비율

-OECD 국가들 중, 한국 상대적 빈곤 비율이 14.8%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가 평균 11.34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국가별 상대적 빈곤] 단위 : %

중위수입



[상대적 빈곤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상대적 빈곤	11.344	5.01623	2.4	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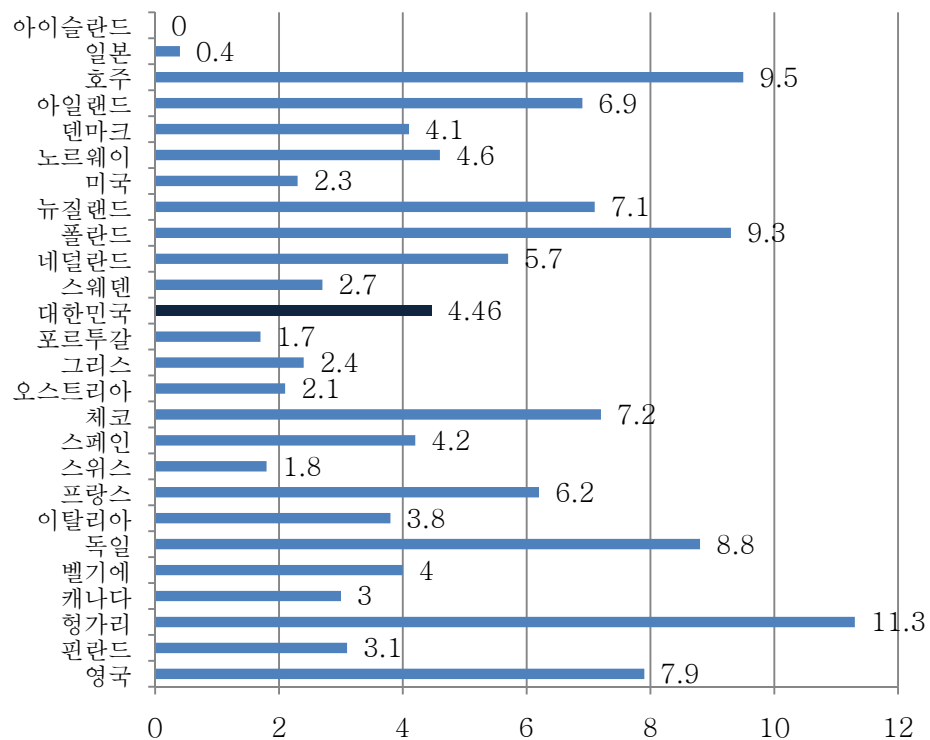
2. 미취업 가정

일자리 없는 가정의 아동
: 가정의 성인이 취업이 되어 있지 않는 아동비율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4.46%를 기록하며 전체 국가의 평균인 4.98%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미취업 가정] 단위 : %

일자리없는 가정의 아동



[미취업 가정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미취업 가정	4.9824	2.872672	0.4 11.3

3. 빈곤

교육여건

: 교육자재 (책상, 조용한 곳, 컴퓨터, 교육소프트웨어, 인터넷, 계산기, 사전, 학교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책)가 있는가? (6 개 이하 소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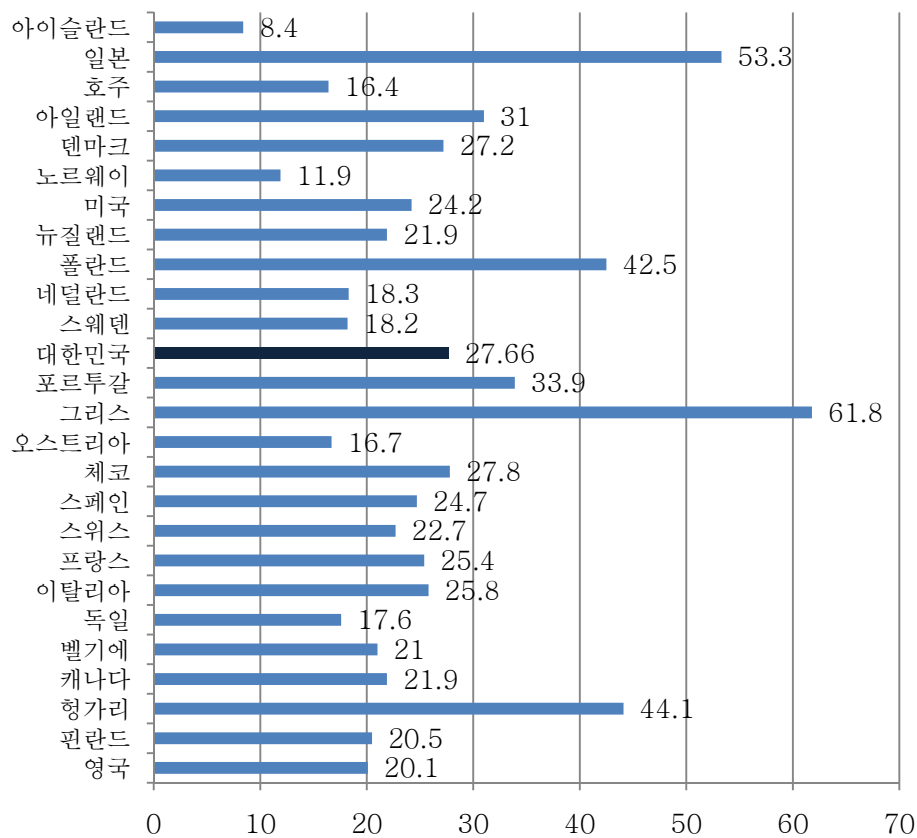
문화적 결핍

: 집에 책이 10 권 이상 있는 아동의 비율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27.66%로 해당 국가들의 평균 26.3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여건] 단위 : %

교육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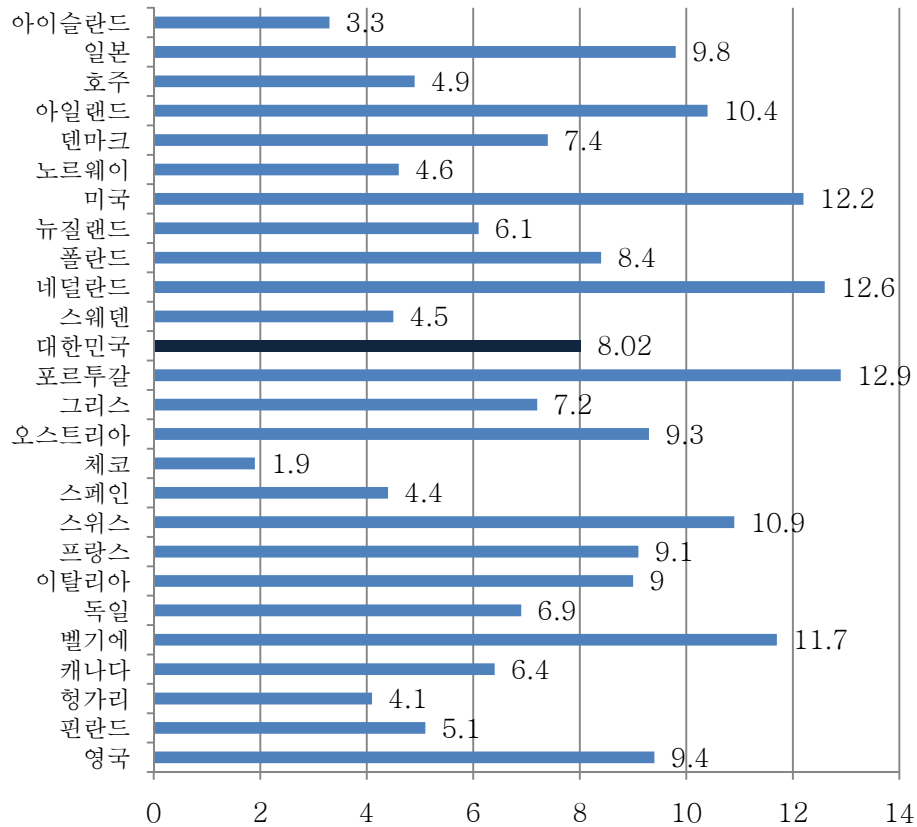
[교육여건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교육여건	26.34462	12.22515	8.4	61.8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평균인 7.71%에 비해 높은 8.02%로 높은 수준의 책 보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적 결핍] 단위 : %

문화적결핍



[문화적 결핍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문화적 결핍	7.712308	3.068931	1.9	12.9

II. 보건과 안전

1. 영아건강

영아사망률

: 사망한 0-1 세의 비율 (출산 1,000 명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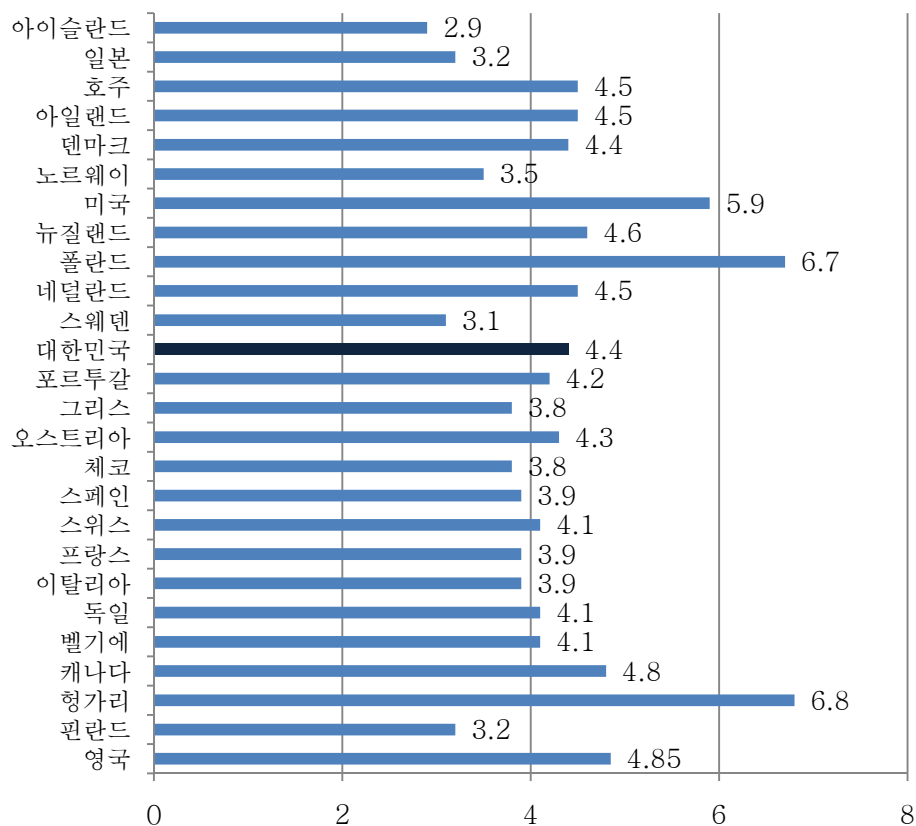
저체중아 비율

: 2.5kg 이하 저체중아의 비율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영아사망률 4.4%로 평균치 4.3%보다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영아사망률] 단위 : %

영아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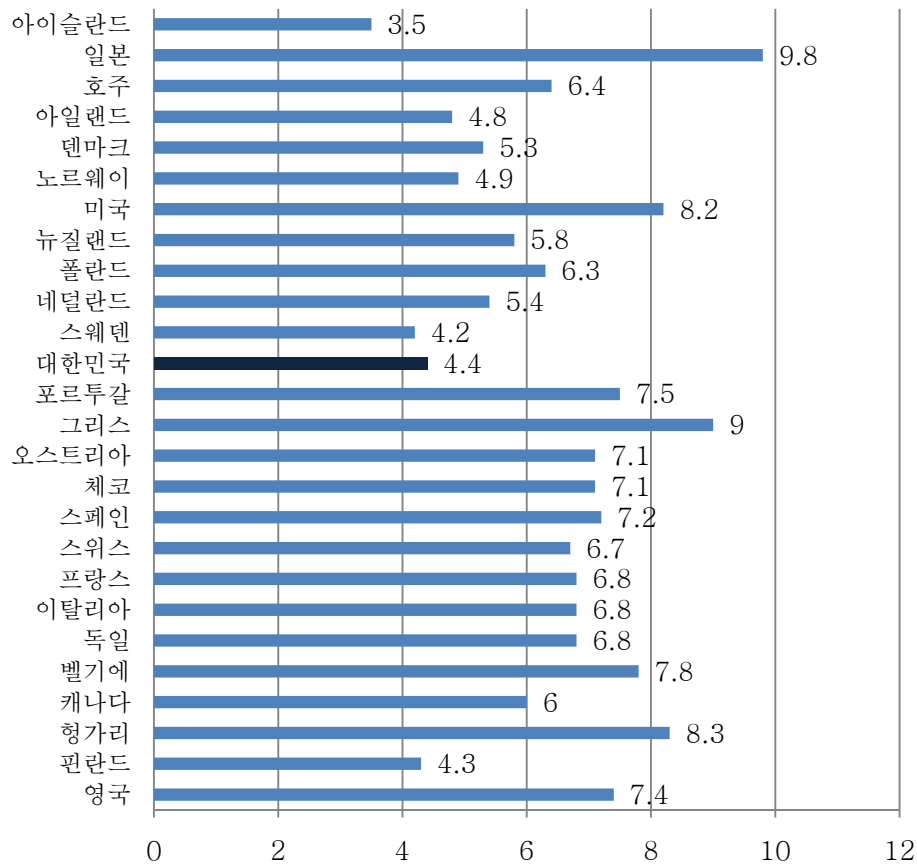
[영아사망률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영아사망률	4.305769	0.9575309	2.9	6.8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4.4%의 저체중아 비율을 기록하며 평균 6.45%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저체중아 비율] 단위 : %

저체중아



[저체중아 비율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저체중아 비율	6.453846	1.55775	3.5	9.8

2. 예방접종

질병의 예방접종여부

: 홍역 예방접종 (12-23 개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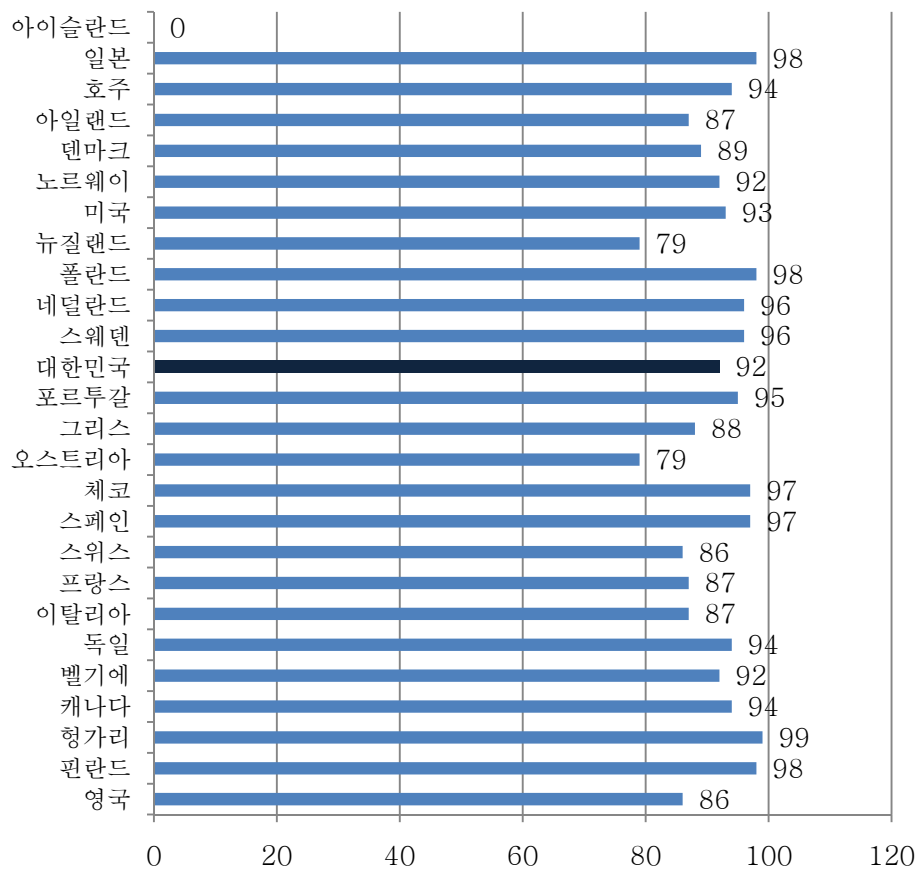
: 소아마비 예방접종 (12-23 개월) 비율

: DPT3 (Diph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 (12-23 개월) 비율

-OECD 의 많은 국가들이 평균 91.72%라는 비율의 홍역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한국은 92%로 OECD 국가들의 평균 비율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홍역 예방접종 여부] 단위 : %

홍역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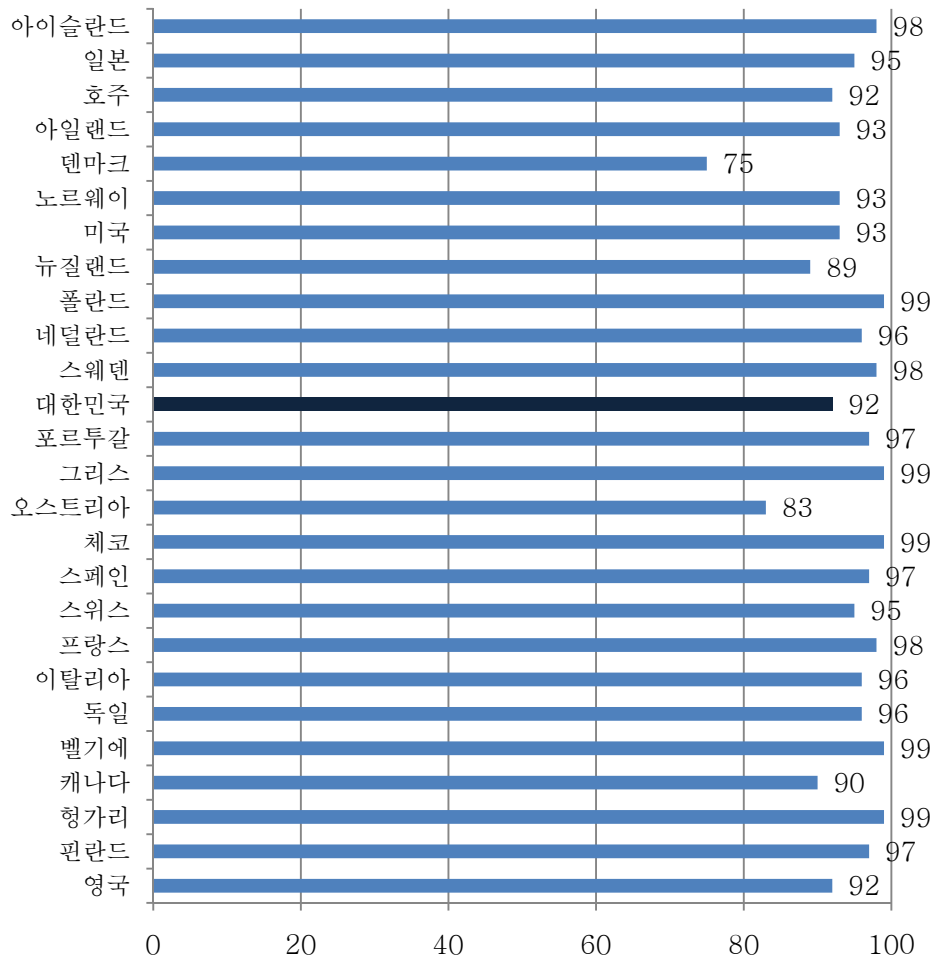
[홍역 예방접종 여부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홍역 예방접종 여부	91.72	5.660683	79	99

-소아마비 예방접종에서는 OECD 국가들의 평균 94.23% 보다 낮은 수치인 92%를 한국이 기록하였다.

[소아마비 예방접종 여부] 단위 “ %

소아마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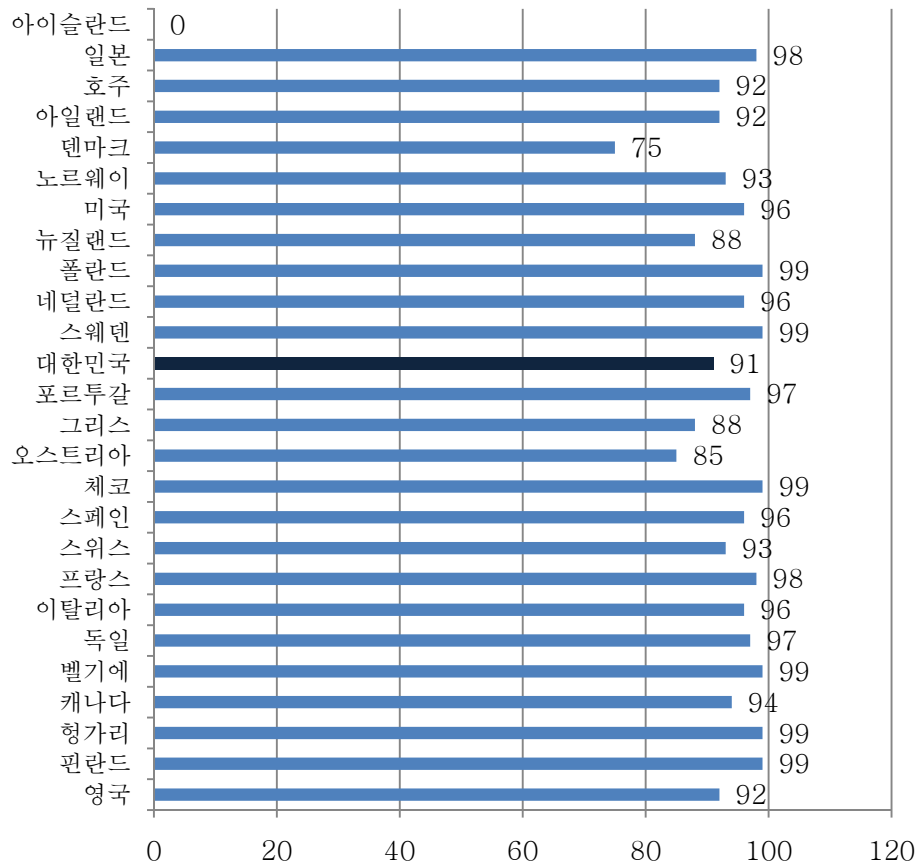
[소아마비 예방접종 여부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소아마비 예방접종 여부	94.23077	5.479472	75	99

-DPT3(Diphtheria, Pertussis and Tetanus) 예방접종 역시 OECD 국가들의 평균이 94.04%를 기록하는 동안 한국은 91%로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DPT3 예방접종 여부] 단위 : %

DPT3



[DPT3 예방접종 여부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DPT3				
예방접종 여부	94.04	5.60119	75	99

3. 사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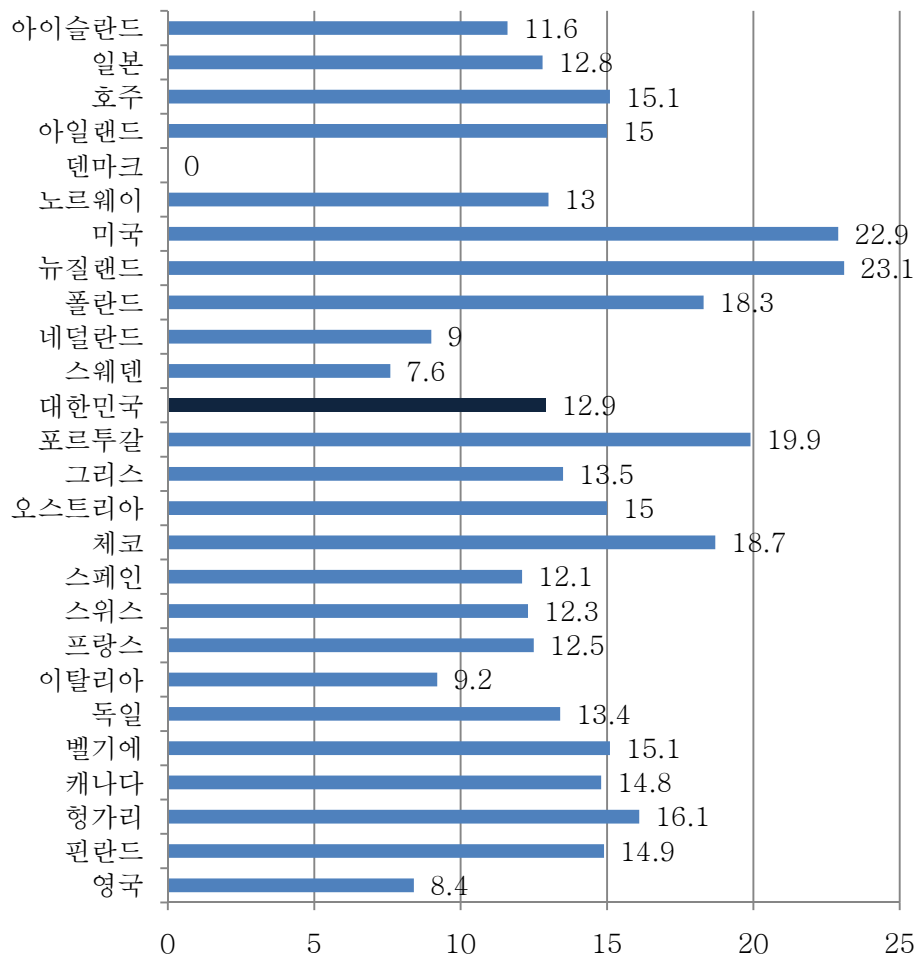
아동사고사

: 최근 3년 평균 자살과 사고사를 당한 아동(19세 이하)의 십만명당 비율

-OECD 국가들의 아동사고사 비율이 십만명당 13.74%인 것에 비해 한국은 12.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지만 절대적으로는 낮지는 않은 수치다.

[아동사고사] 단위 : %

아동사고사



[아동사고사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아동사고사	13.73846	4.820961	0	23.1

III. 교육

1. 학업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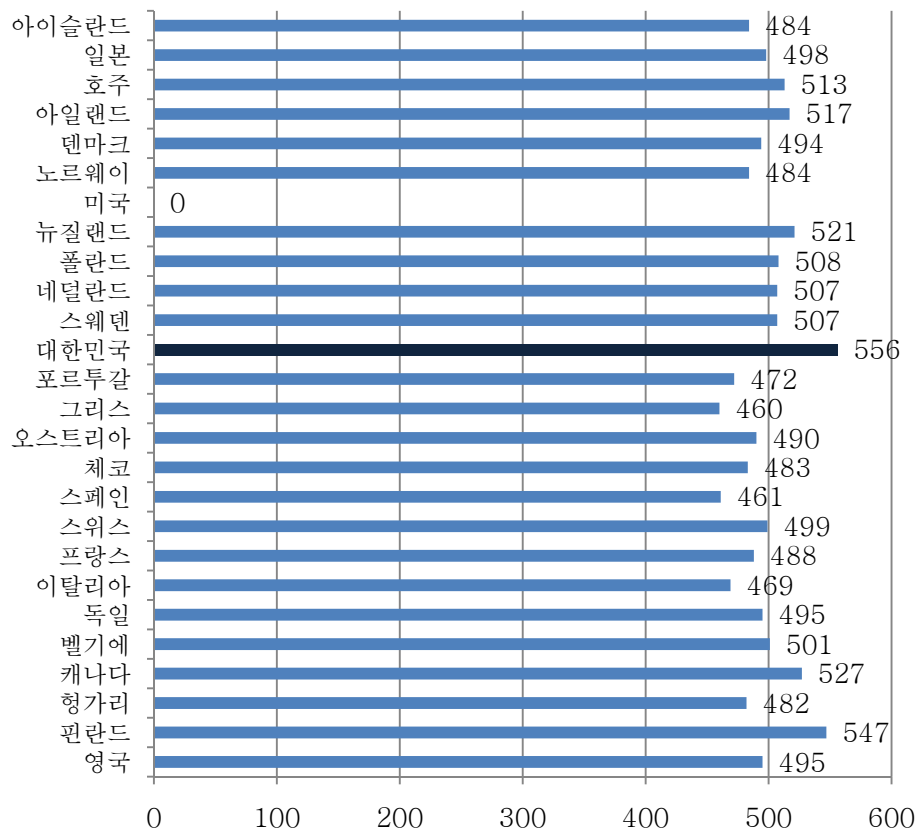
15 세 학업성취

: OECD 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PISA)의
읽기, 수학, 과학의 세가지 영역 시험 점수로 측정

-OECD 의 국가들 중 한국은 읽기시험점수 556 점을 기록하며 국가들의 평균 498.2 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읽기시험점수]

읽기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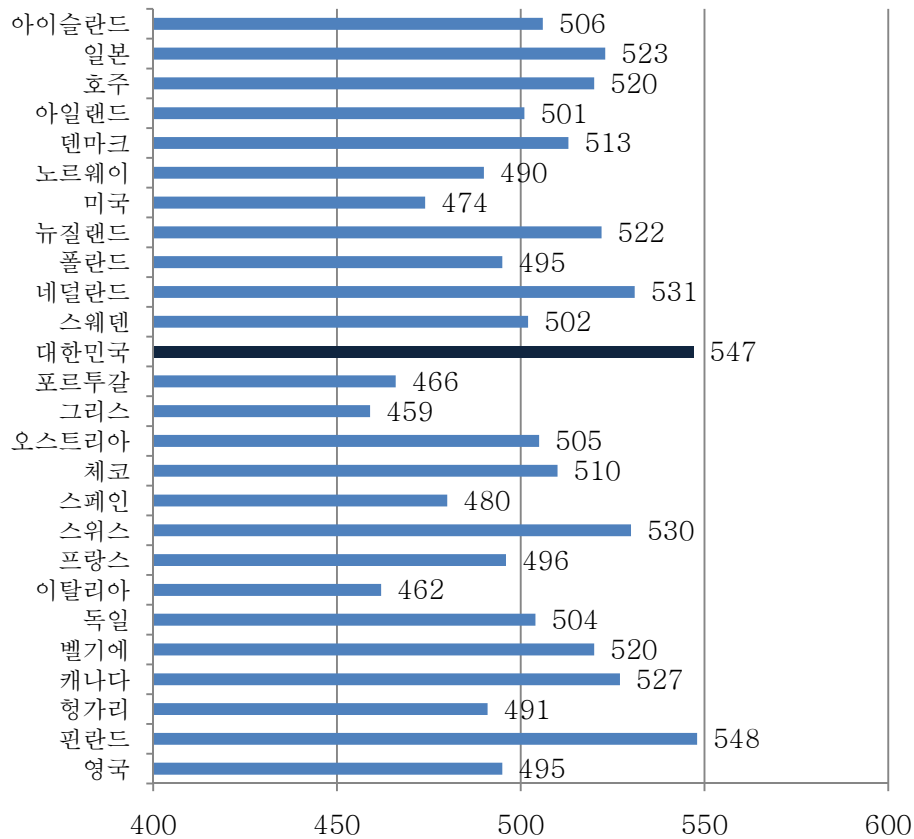
[읽기시험점수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읽기시험점수	498.1923	23.15343	460	556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수학시험점수 547 점을 기록하여 평균인 504.5 점보다 높은 점수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수학시험점수]

수학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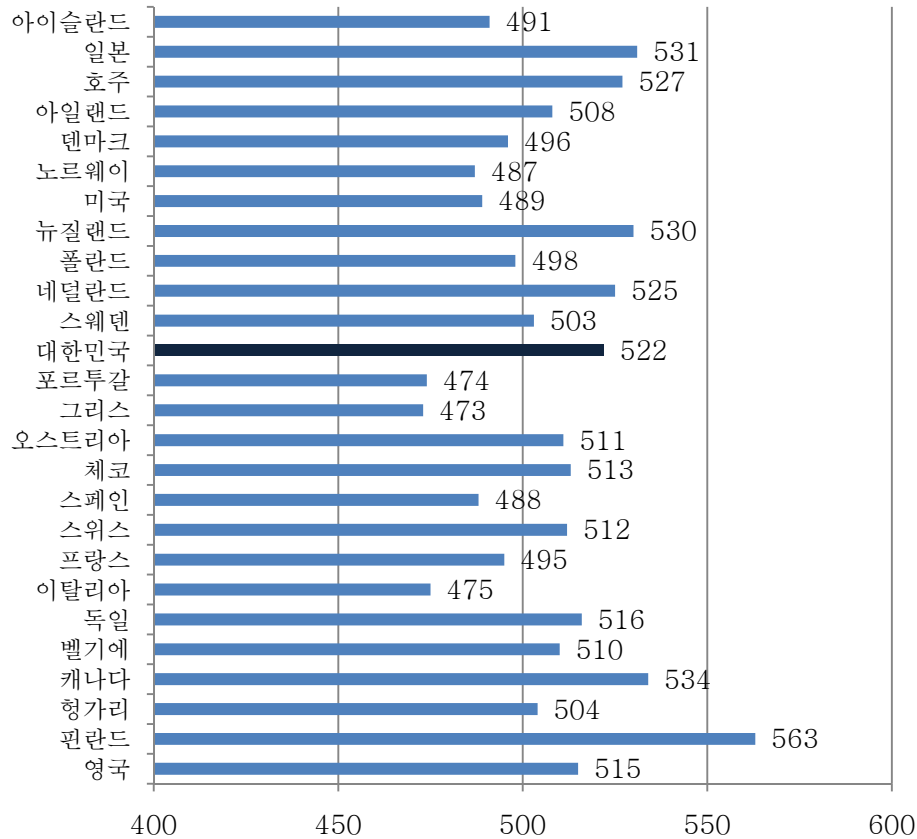
[수학시험점수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수학시험점수	504.5	23.95371	459	548

-한국은 과학시험점수 역시 OECD 국가 평균 507.3 점보다 높은 522 점을 기록하며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과학시험점수]

과학점수



[과학시험점수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과학시험점수	507.3077	21.09933	473	563

2. 교육참여

15-19 세 아동의 학업유지

: 학교를 다니는 15-19 세의 아동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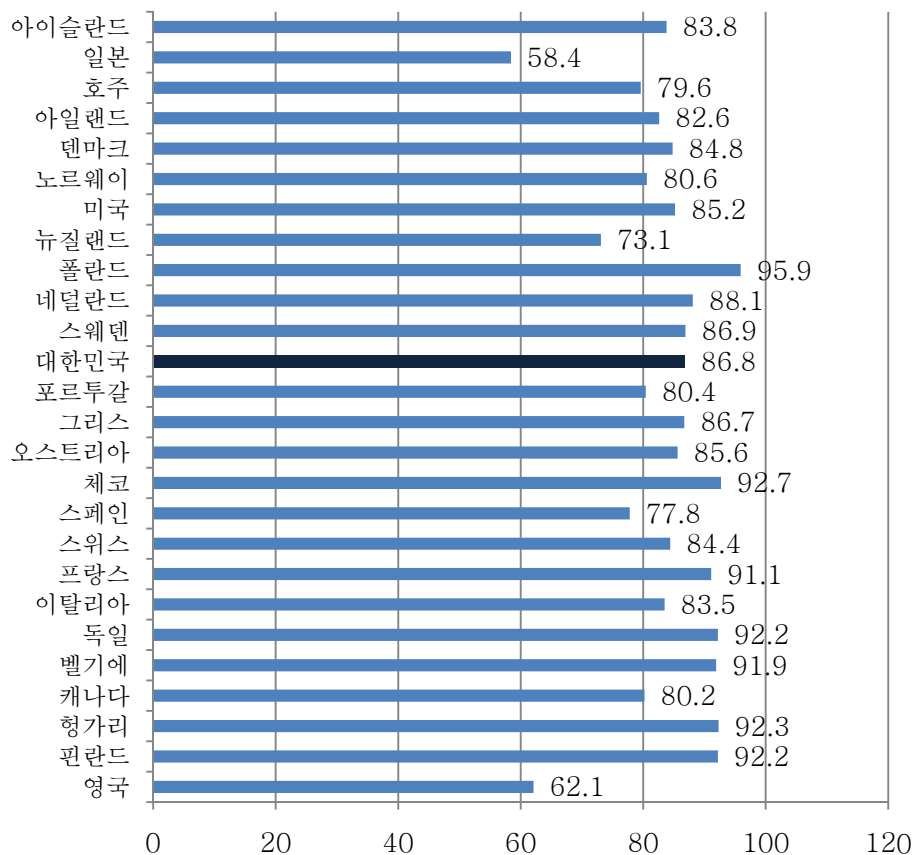
실업상태

: 교육훈련기관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않는 젊은 층의 비율

-OECD 국가들 중 한국은 교육참여 비율이 86.8%로 국가 평균 83.8%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교육참여] 단위: %

학업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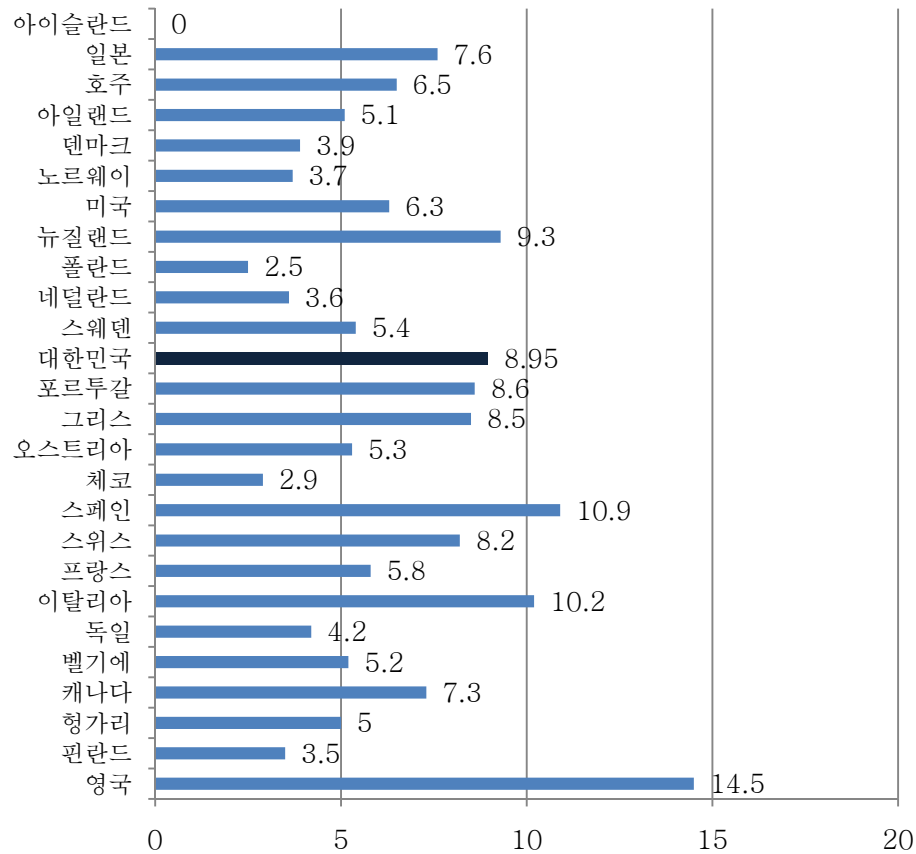


[교육참여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교육참여	83.80385	8.787331	58.4 95.9

-교육훈련기관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학업을 이어가지 않는 젊은 층의 비율은 한국의 경우 8.95%로 OECD 국가들의 평균수치인 6.5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실업상태



[실업상태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실업상태	6.518	2.882233	2.5	14.5

3. 학업열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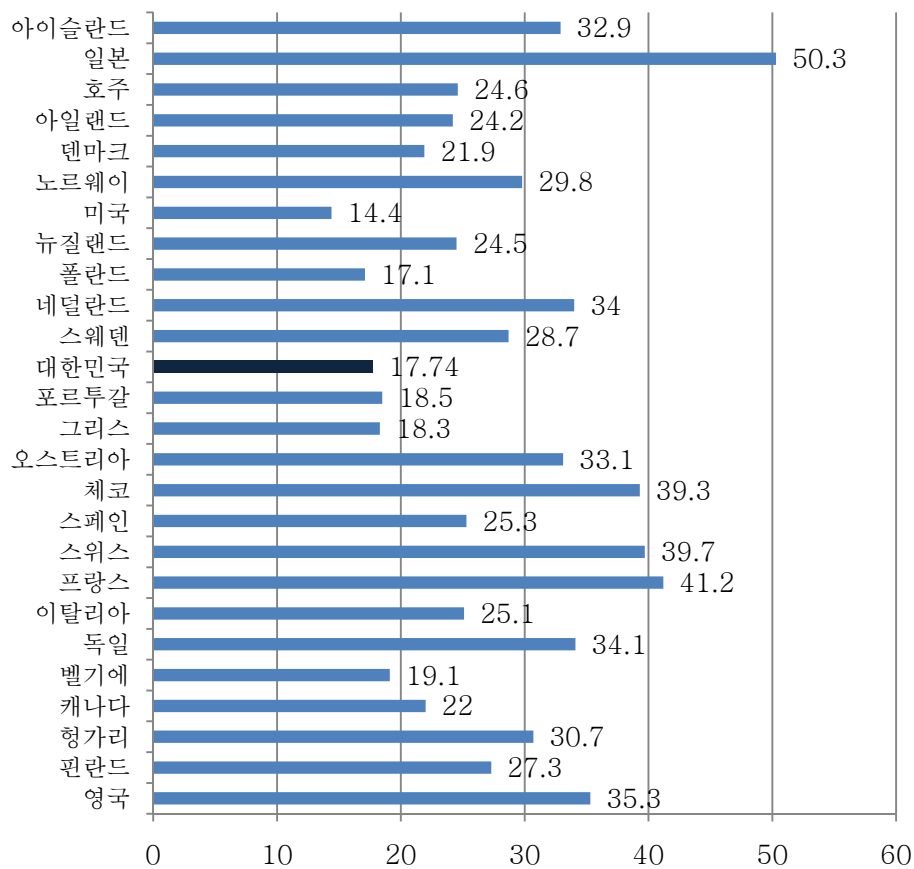
미숙련 일자리

: 기대하는 일자리로 미숙련 일자리를 원하는 비율

-성인이 되어 희망하는 일자리로 미숙련 일자리를 원하는 비율은 한국은 17.74%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28.04%보다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학업열망] 단위: %

미숙련일자리



[학업열망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학업열망	28.04385	8.772315	14.4	50.3

IV. 가족과 친구관계

1. 가족구조

홀부모가정

: 홀부모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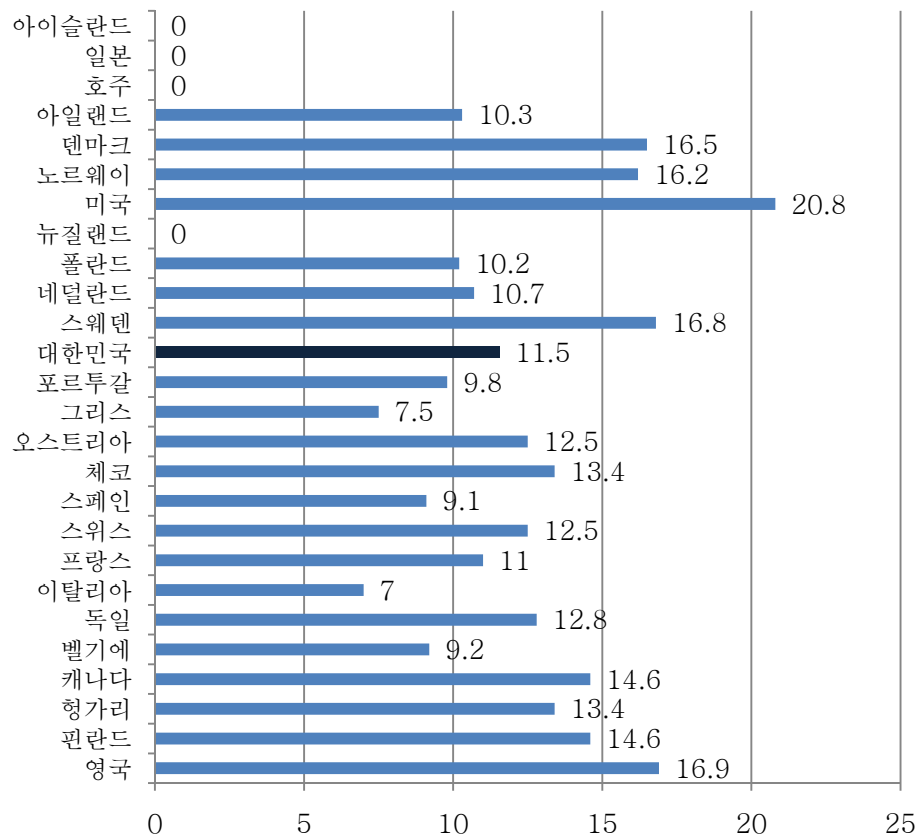
의붓가정

: 의붓아버지나 의붓어머니와 같이 사는 아동의 비율

-OECD 국가들의 홀부모가정의 비율이 12.71%를 기록하는 반면, 한국은 11.5%를 기록하며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홀부모가정] 단위: %

홀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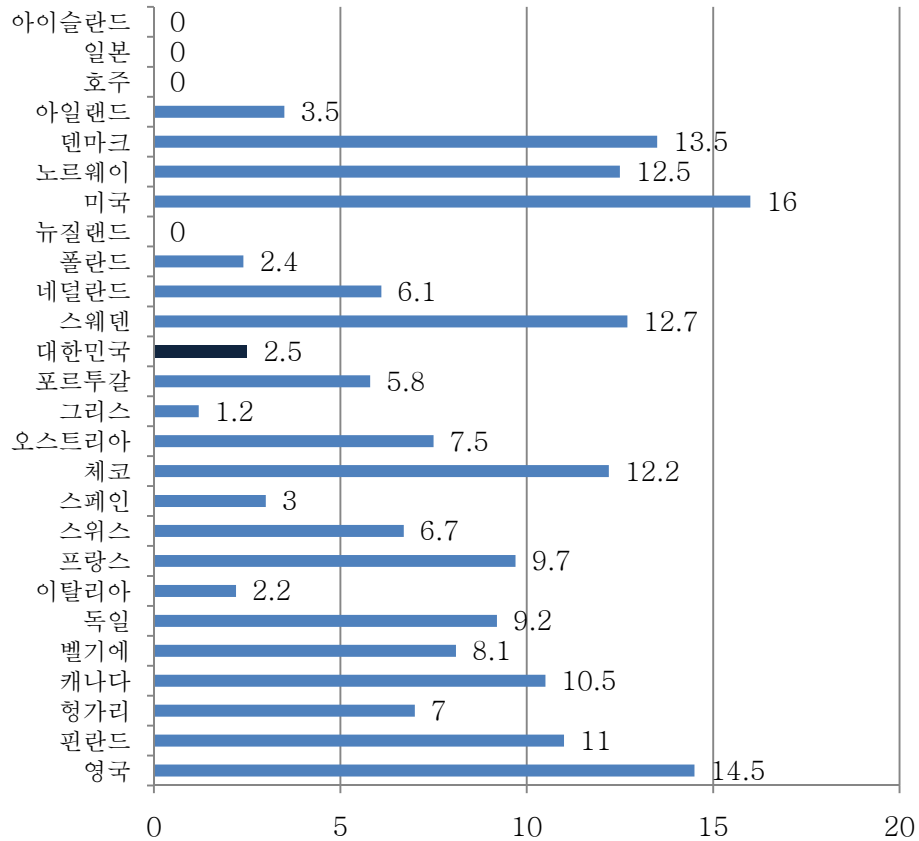
[홀부모가정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홀부모가정	12.71429	3.484004	7 20.8

-의붓아버지 혹은 의붓어머니가 있는 가정의 비율이 한국은 2.5%에 그친 반면 OECD 국가들의 평균은 이보다 훨씬 높은 8.08%로 나타났다.

[의붓가정] 단위: %

의붓



[의붓가정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의붓가정	8.081818	4.44036	1.2	16

2. 부모관계

함께 식사하기

: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아동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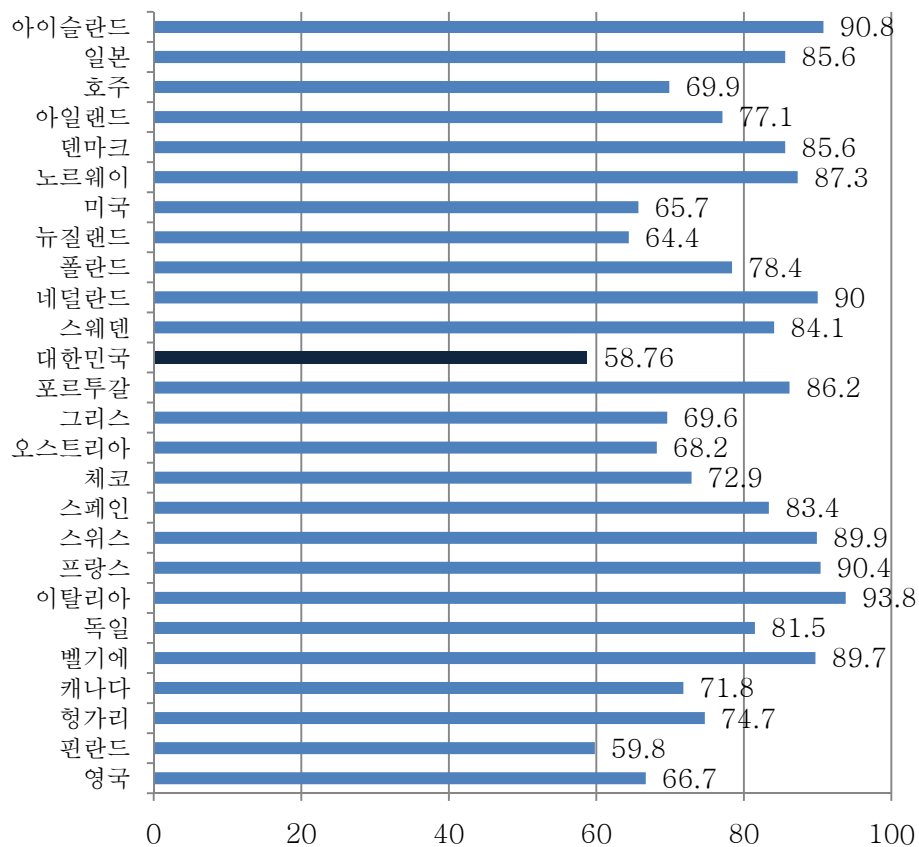
함께 대화하기

: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부모님과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아동의 비율

-부모님과 함께 저녁식사를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하는 비율에 대해 OECD 국가들은 78.32%를 나타냈지만 한국은 58.76%라는 저조한 비율을 나타냈다.

[함께 식사하기] 단위: %

함께 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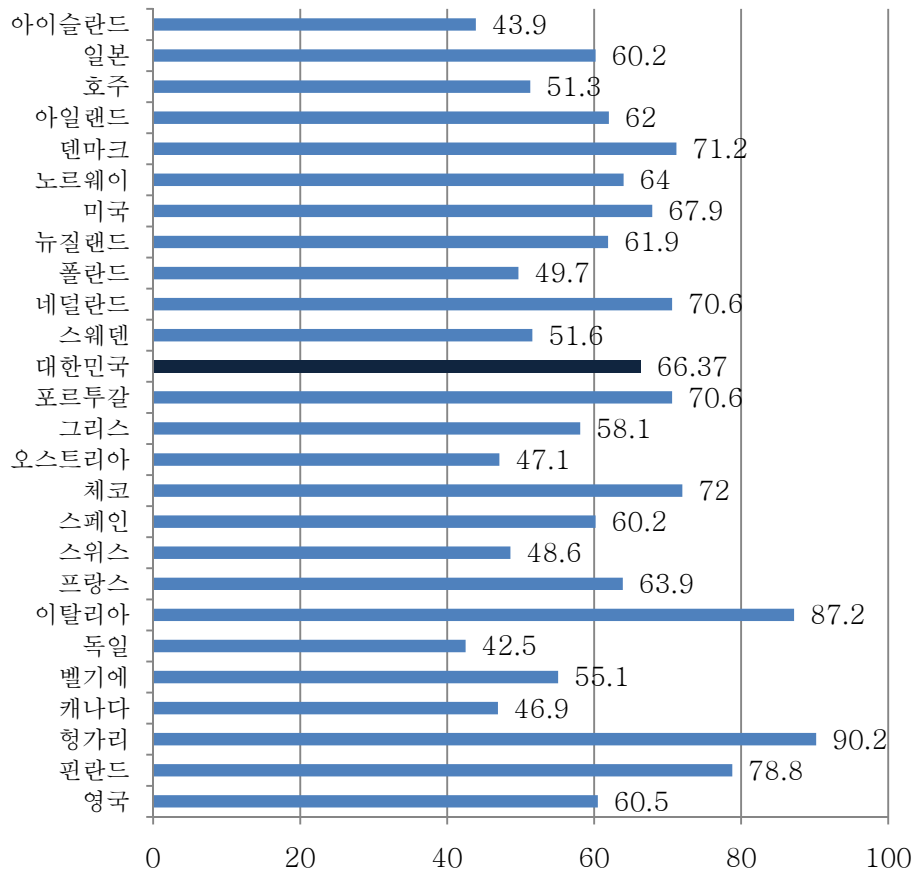
[함께 식사하기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함께 식사하기	78.31769	10.59974	58.76 93.8

-부모님과 일주일에 서너번 이상 대화를 하는 빈도에서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이 한국의 66.37%보다 낮은 수치인 61.63%를 기록하였다.

[함께 대화하기] 단위: %

함께 대화



[함께 대화하기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함께 대화하기	61.62962	12.46751	42.5	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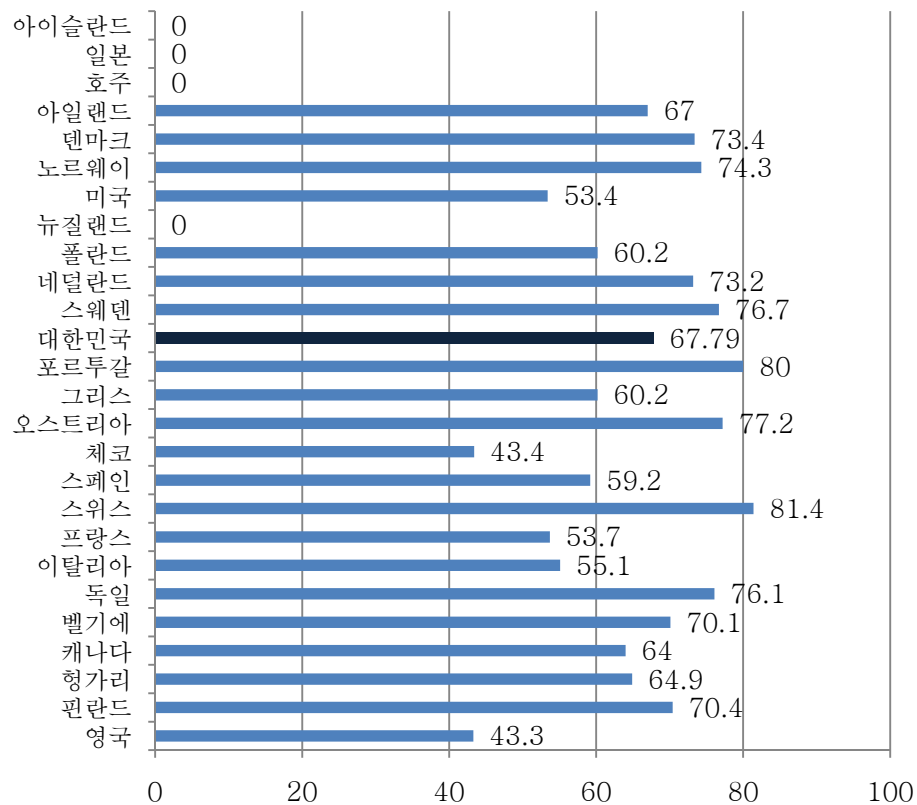
3. 친구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 급우가 친절하며 도움을 주는가?

-급우가 자신에게 친절하고 도움을 주는가의 여부에서 한국은 67.79%로 OECD 국가들 평균인 65.68%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친절한 급우관계] 단위: %

친절한 급우관계



[친절한 급우관계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친절한 급우관계	65.68136	11.04616	43.3	81.4

V. 건강관련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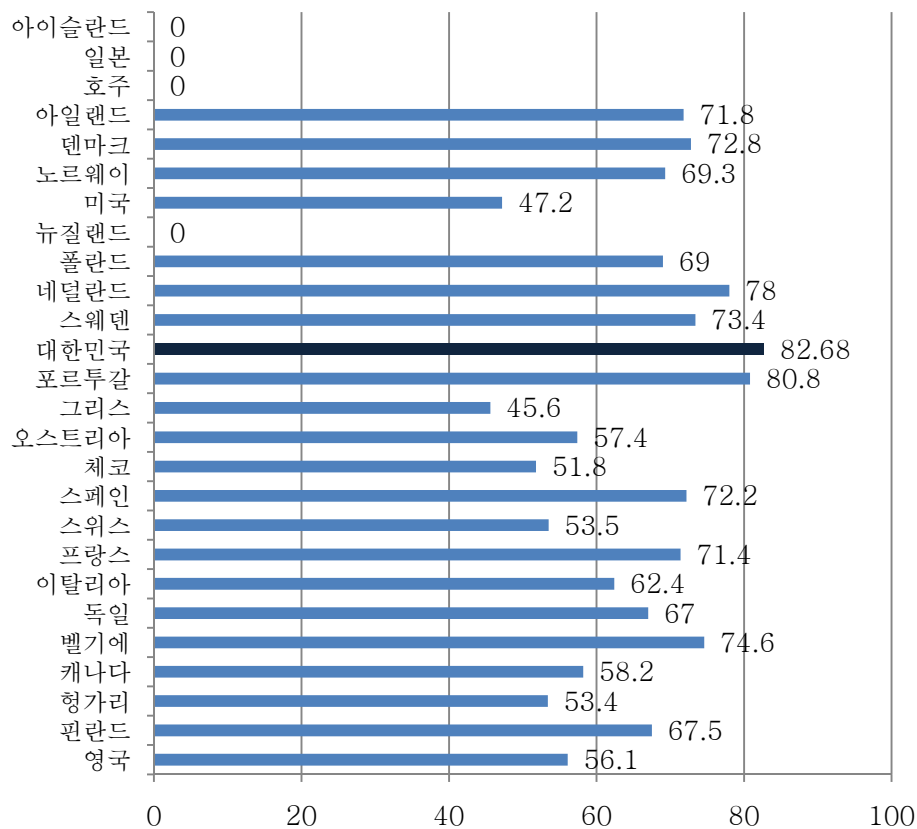
1. 건강행동

아침식사
: 학교가기 전에 아침식사를 하는 어린이 비율
과일섭취
: 매일 과일을 섭취하는 학생의 비율
과체중
: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일 비율
운동
: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운동을 한 일 수

-OECD 국가들의 학생들이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65.28%에 그쳤지만 한국은 82.68%로 높은 아침식사 비율을 나타내었다.

[아침식사] 단위: %

아침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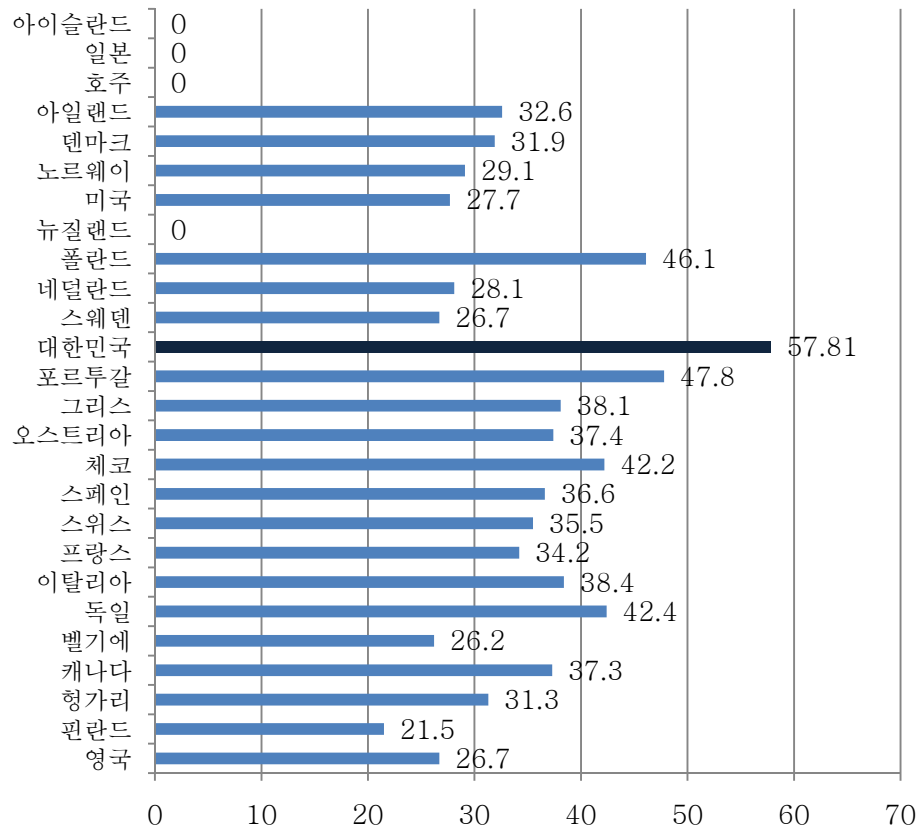
[아침식사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아침식사	65.27636	10.82568	45.6	82.68

-과일 섭취의 경우 한국이 57.81%로 OECD 국가의 평균인 35.26%는 물론 다른 어떤 국가보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과일섭취] 단위: %

과일섭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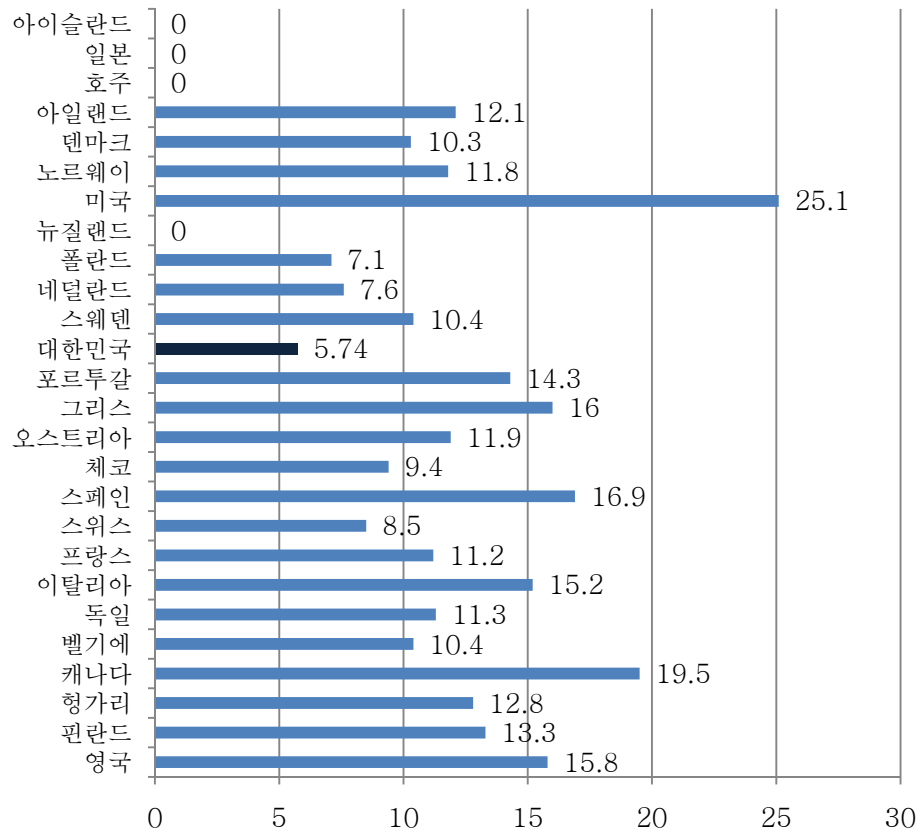
[과일섭취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과일섭취	35.255	8.480862	21.5	57.81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 즉 과체중인 아이들의 비율이 한국은 5.74%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12.57%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과체중] 단위: %

과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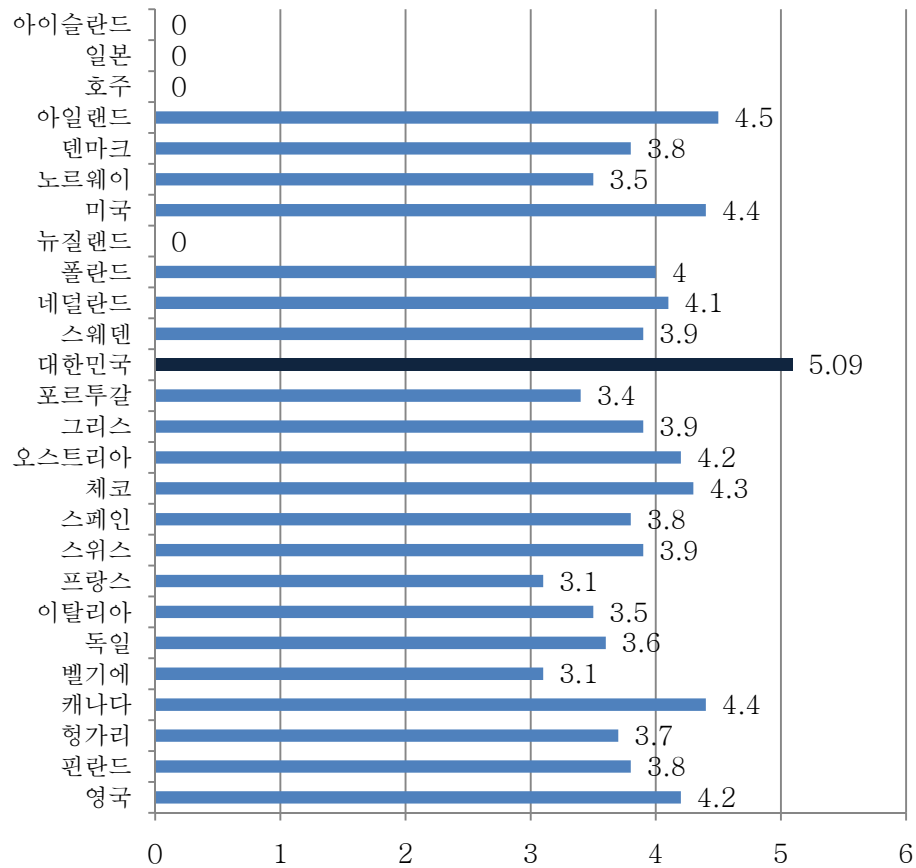
[과체중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과체중	12.57455	4.384363	5.74	25.1

- 운동의 경우 지난 1 주일간 1 시간 이상 운동을 한 일 수는 5.09 일로서 여타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운동] 단위: 일(day)

운동



[운동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운동	3.917727	0.4715318	3.1	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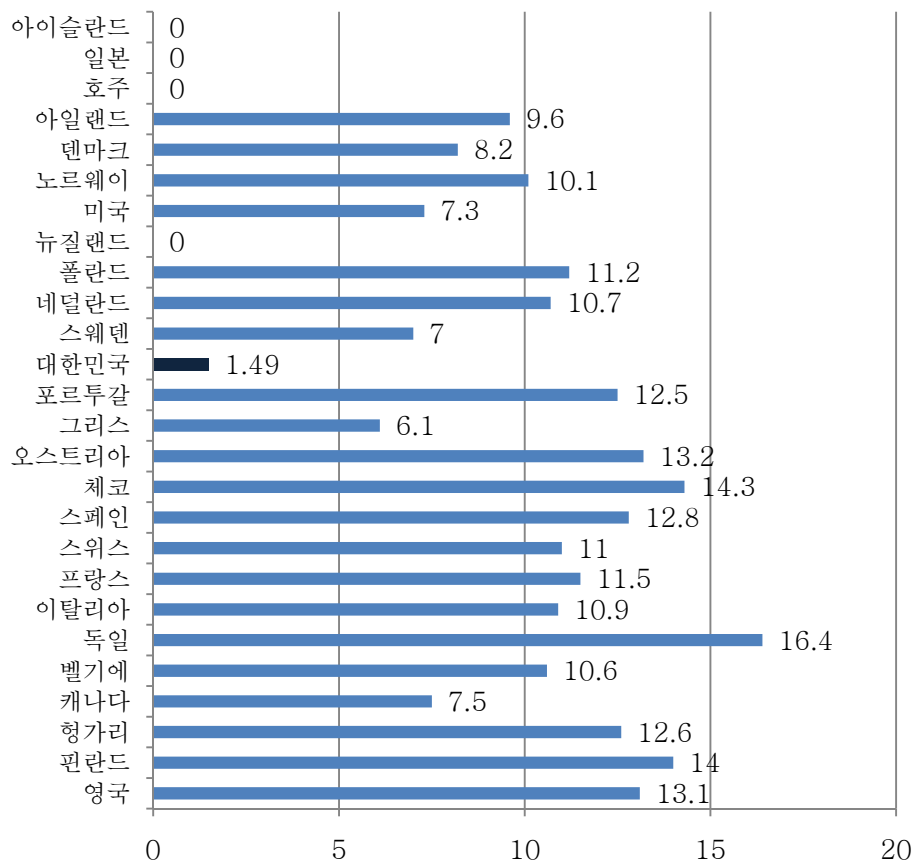
2. 위험행동

흡연: 흡연비율
음주: 음주비율
마약: 마약사용비율
성관계: 성관계 경험 비율
콘돔: 성관계시 콘돔을 사용한 15 세 아동 비율
임신과 출산: 십대 출산율
싸움: 지난 12 개월 동안 폭력 행위에 관련된 아동의 비율
왕따: 지난 2 개월 동안 다른 학생에 의해서 놀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

-OECD 국가들의 흡연비율이 10.55%를 나타낼 때, 한국은 1.49%로 꽤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흡연] 단위: %

흡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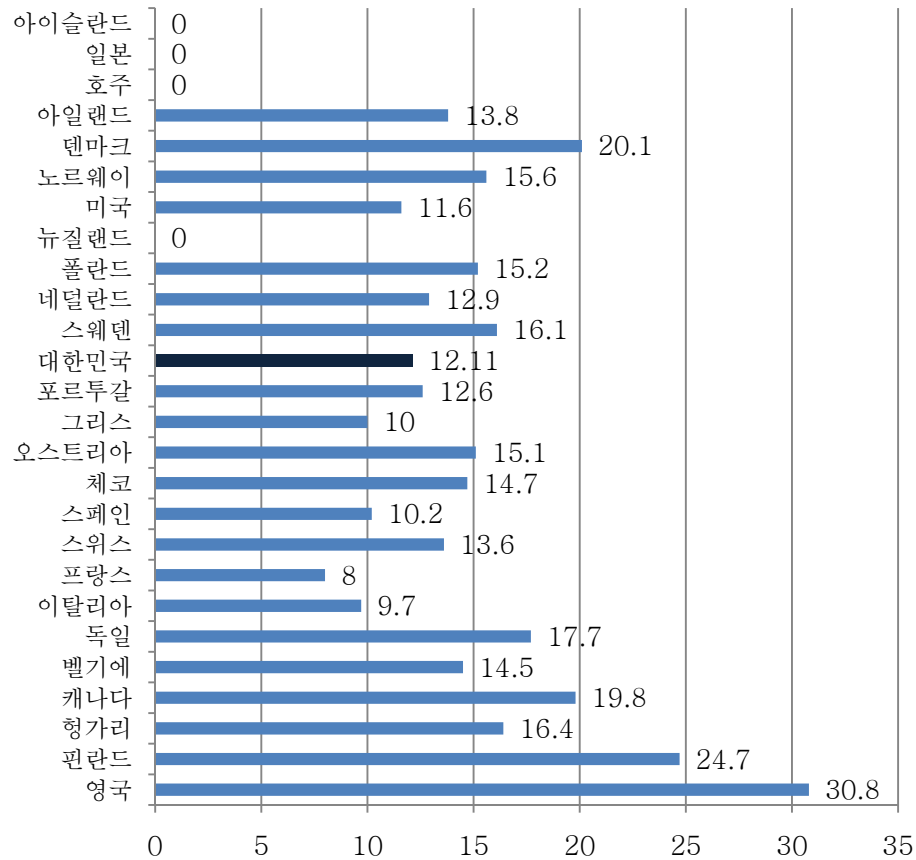
[흡연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흡연	10.54955	3.305379	1.49	16.4

-OECD 국가들의 음주비율에 대한 평균이 15.24%인데 비하여 한국은 12.11%로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음주] 단위: %

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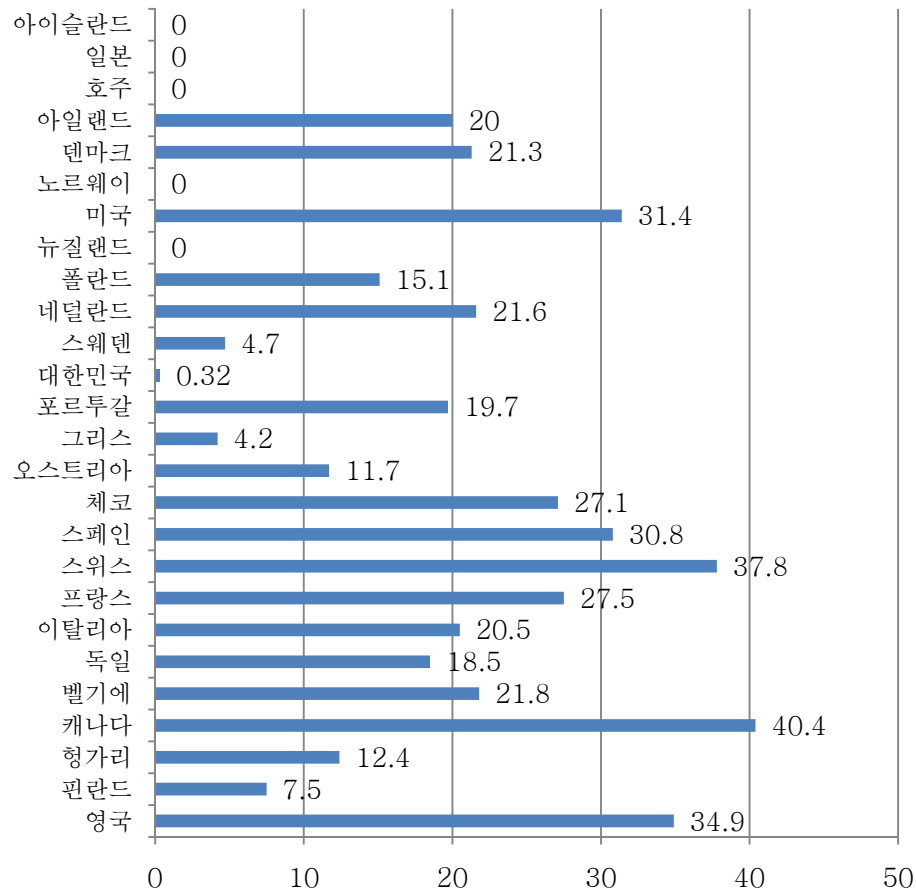
[음주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음주	15.23682	5.170283	8 30.8

-OECD 국가들의 마약사용 비율이 20.44%에 비해 한국은 0.32%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마약] 단위: %

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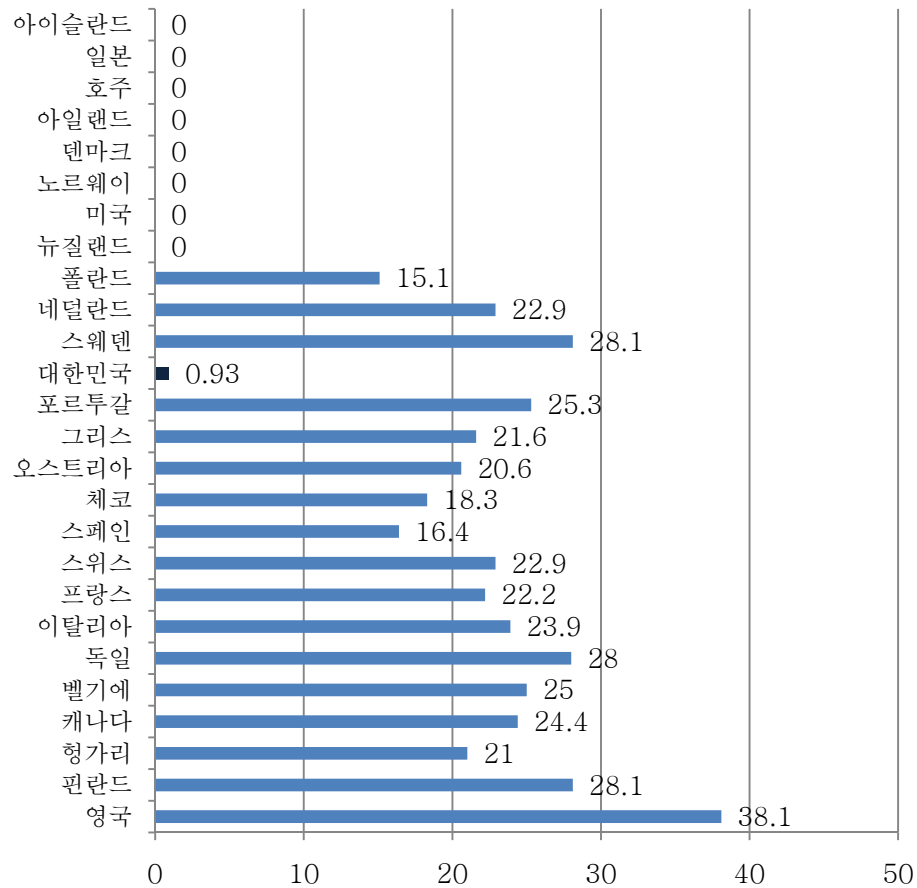
[마약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마약	20.43905	11.16298	0.32	40.4

-OECD 국가들의 십대들의 성관계 비율이 22.38%인 것에 반하여 한국은 0.93%로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성관계] 단위: %

섹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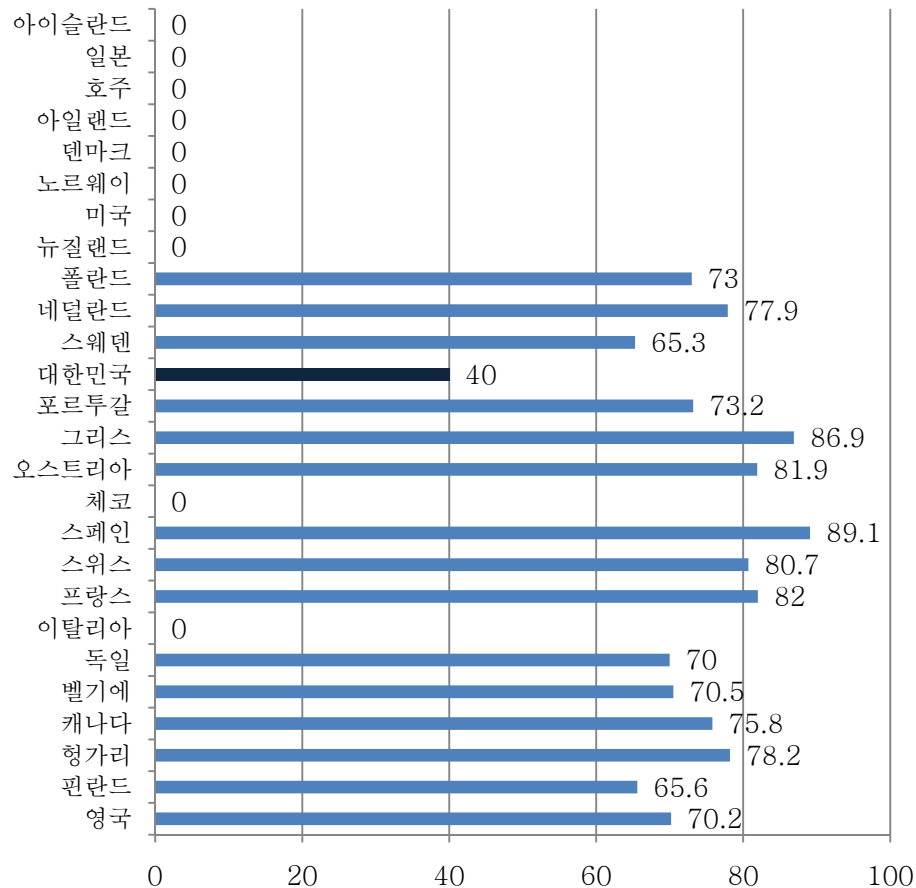
[성관계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성관계	22.37944	7.426832	0.93	38.1

콘돔사용의 경우 한국학생들은 40%가 성관계에 콘돔을 사용하는데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수치인 73.77%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콘돔] 단위: %

콘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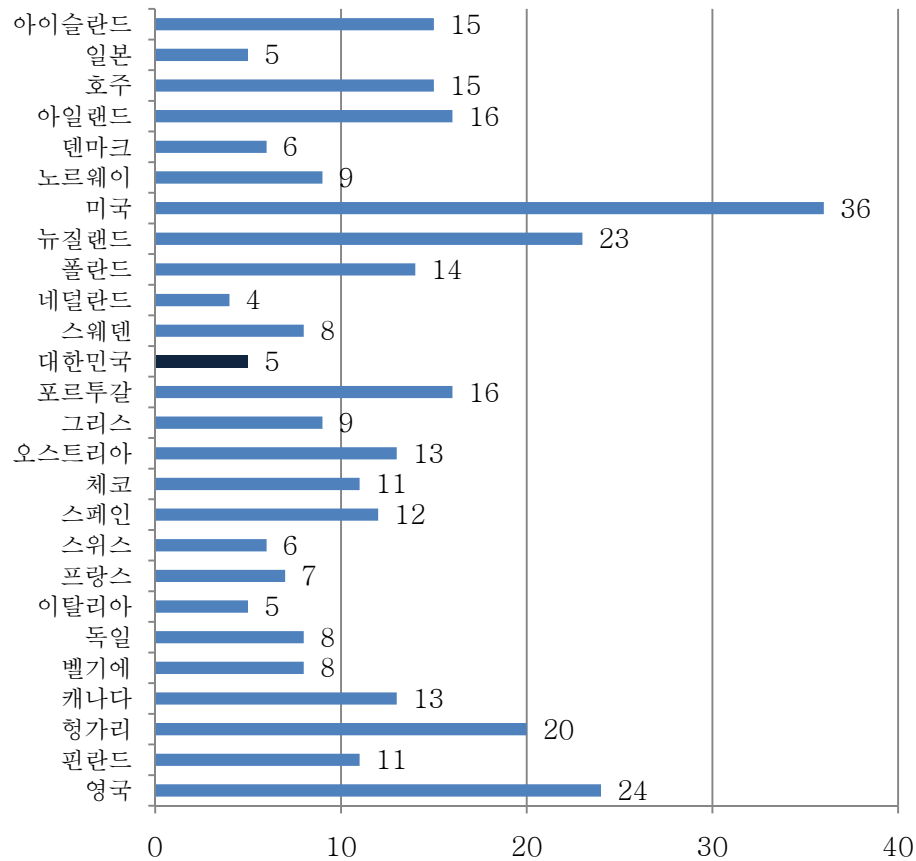
[콘돔 사용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콘돔사용	73.76875	11.39454	40	89.1

-십대들의 임신과 출산비율이 OECD 국가들의 평균이 12.27%로 나타난 반면, 한국은 5%로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임신과 출산] 단위: %

임신과 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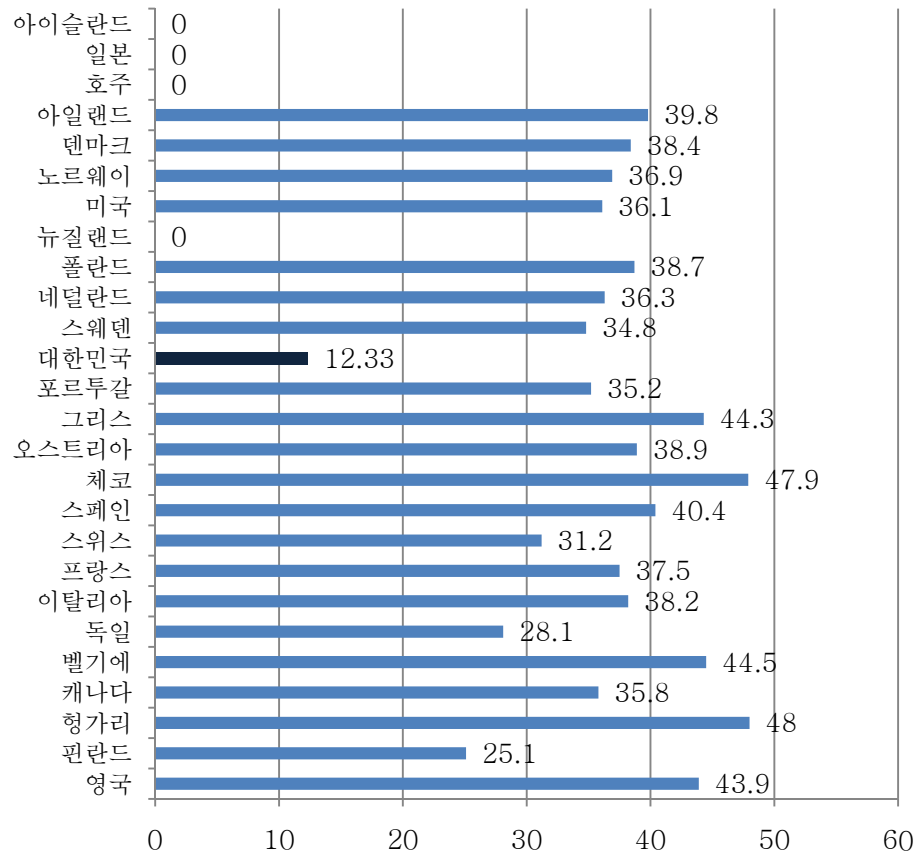
[임신과 출산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임신과 출산	12.26923	7.307846	4	36

-싸움의 경우 한국학생들은 12.33%로 평균 36.92%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싸움] 단위: %

싸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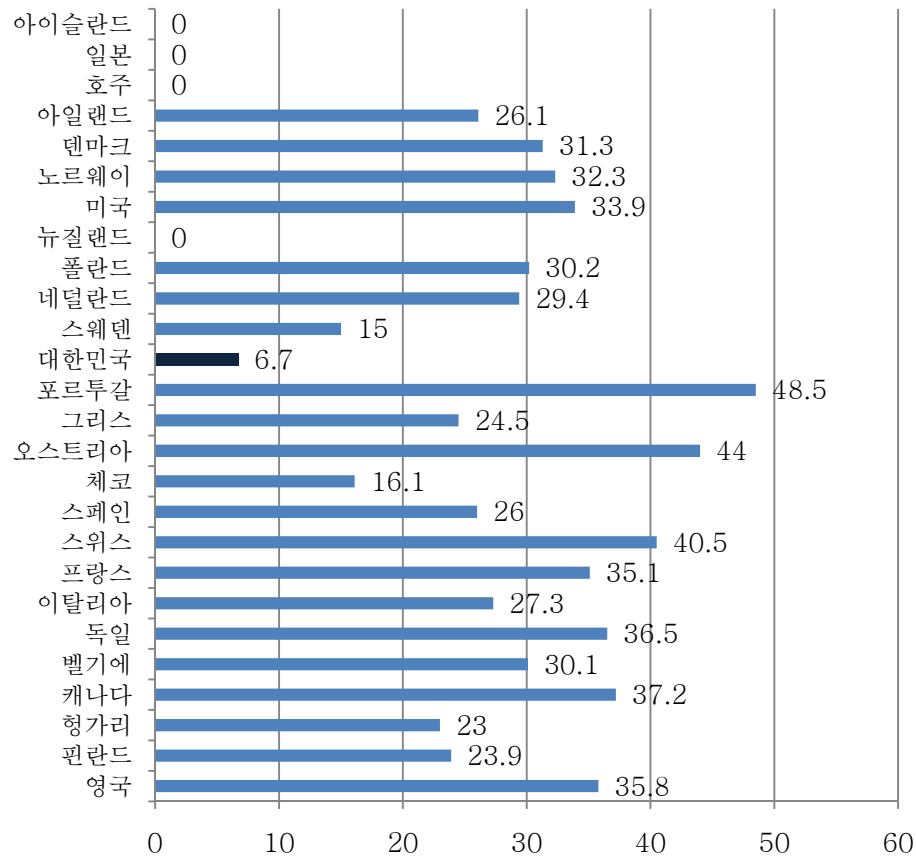
[싸움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싸움	36.92409	7.868812	12.33 48

-왕따의 경험에서 있어서 한국의 학생들은 6.7%를 보인 반면에 OECD 국가 평균은 29.7%를 보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왕따] 단위: %

왕따



[왕따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왕따	29.7	9.608825	6.7 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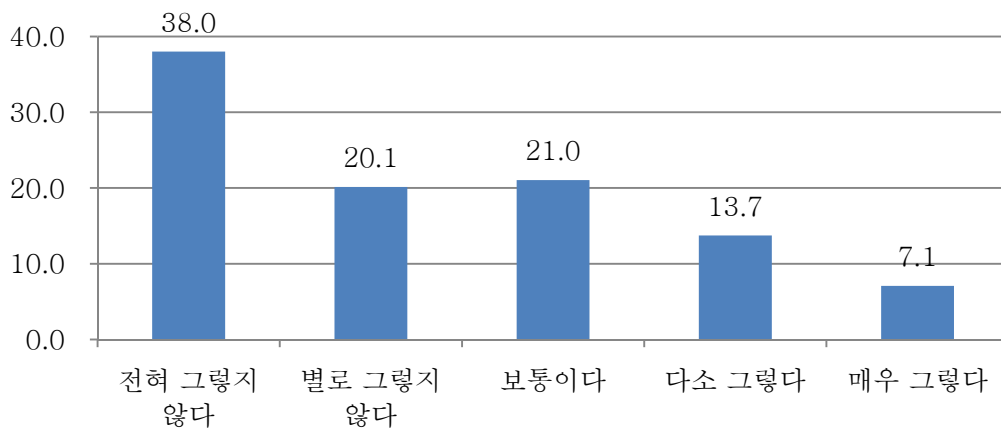
VI. 스트레스

1. 부모 스트레스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부모님과 의견충돌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스트레스
부모님과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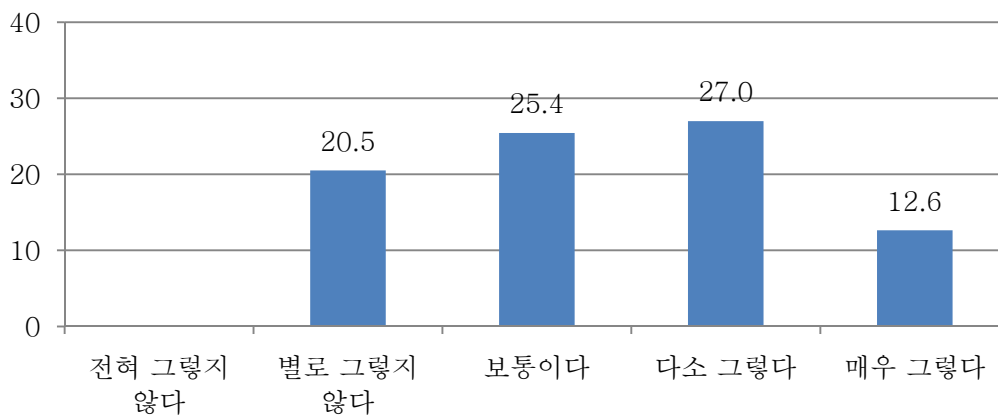
-초등학생인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중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전혀’,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8.1%로, ‘다소’, ‘매우’ 그렇다고 생각하는 비율인 2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적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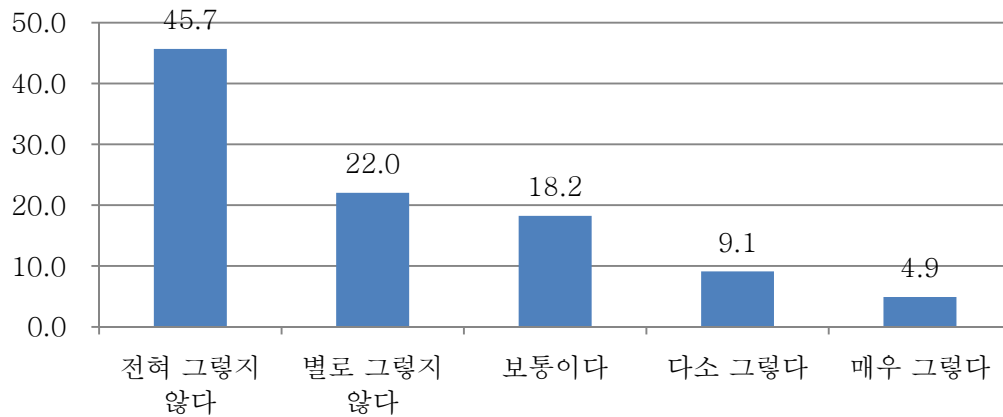
-중고등 학생의 경우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 받는 스트레스에 ‘다소’,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9.6%로 초등학생 20.8%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적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중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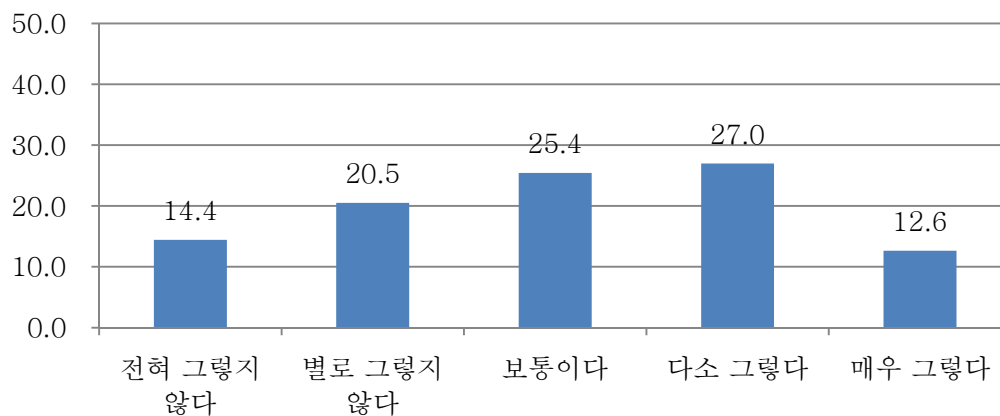
-초등학생들의 부모님과 의견충돌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전혀’, ‘별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학생이 67.7%로, ‘다소’, ‘매우’ 그렇다고 대답한 학생 1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과 의견충돌로 인한 스트레스(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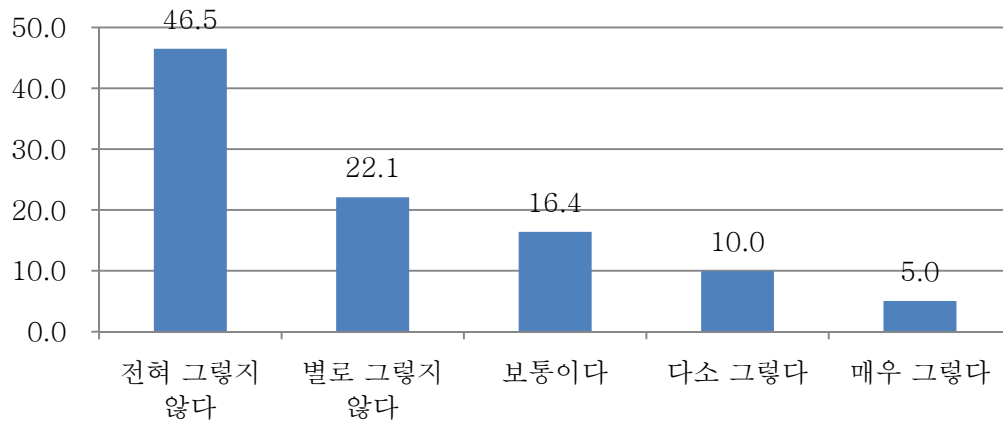
-중고등학생들의 부모님과 의견충돌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렇다는 응답은 39.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4.9%의 비율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의견충돌로 인한 스트레스(중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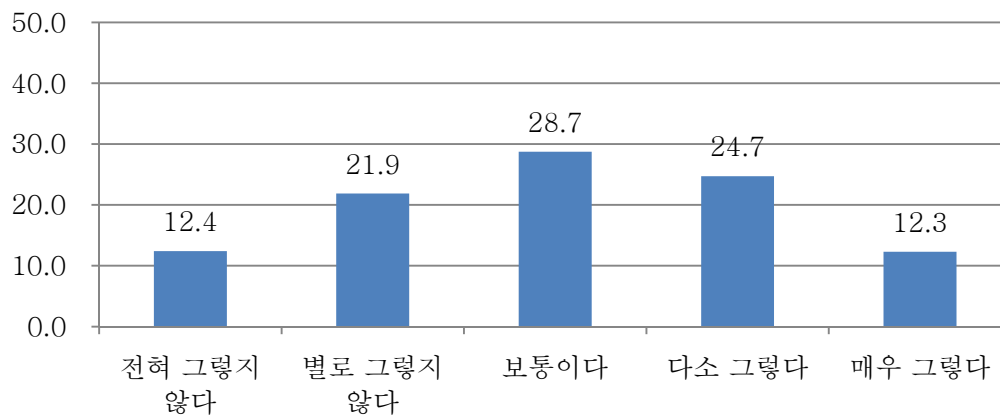
-초등학생들의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혀’, ‘별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68.6%, ‘다소’ ‘매우’ 그렇다는 비율이 15%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스트레스(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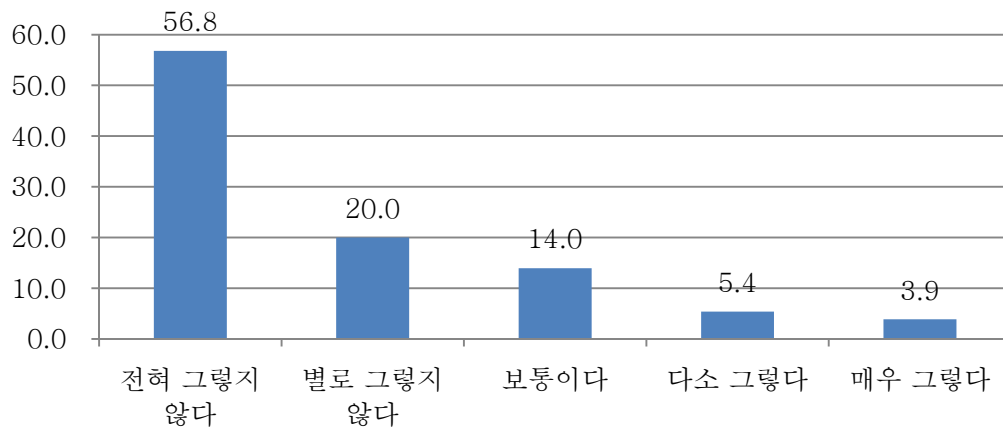
-중고등학생들의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37%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한 스트레스(중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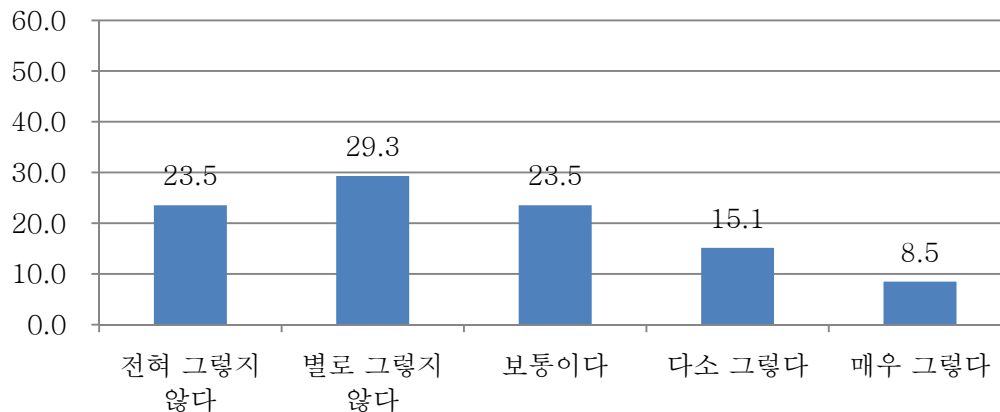
-초등학생들의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받는 스트레스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76.8%로 그렇다는 비율인 9.3%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56.8%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초등)



-중고등학생들의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23.6%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중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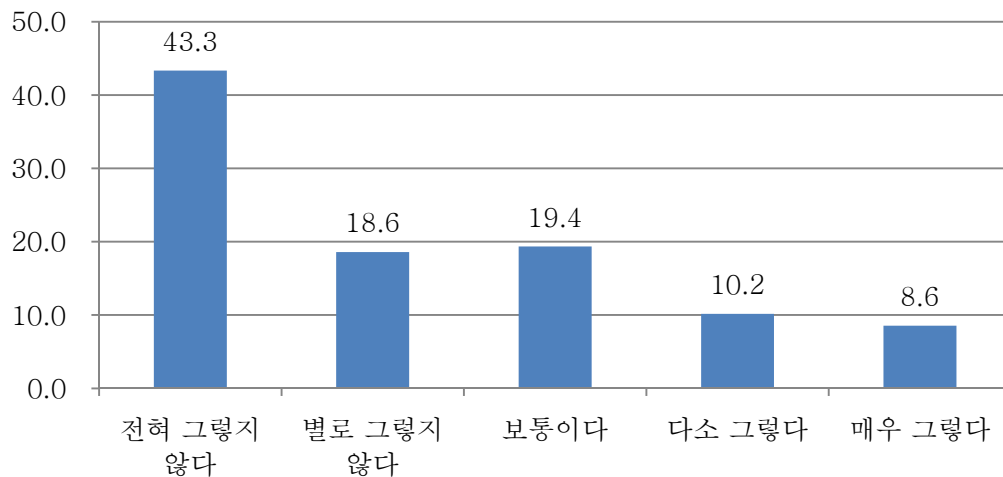


2. 학업 스트레스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
숙제나 시험 스트레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
대학입시/취업에 대한 부담 스트레스(중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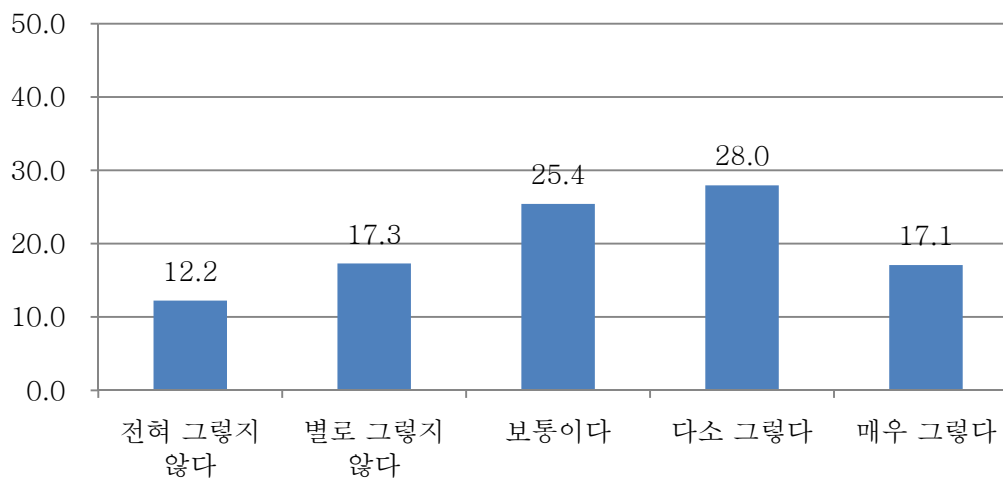
-초등학생들이 학교 성적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역시 크게 높지 않았다. 다소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10.8%, 8.6%로 합산했을 때, 18.8%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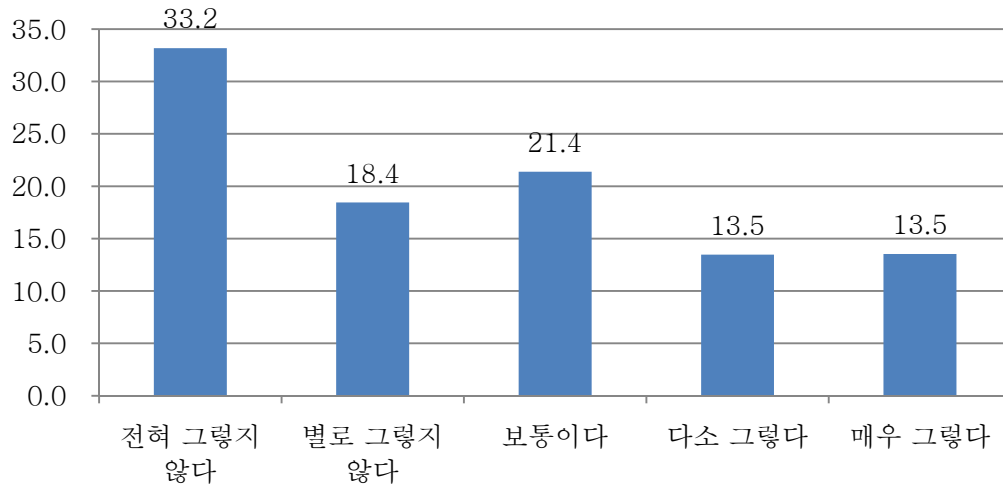
-중고등학생들이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인 경우는 45.1%로 초등학생의 18.8%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중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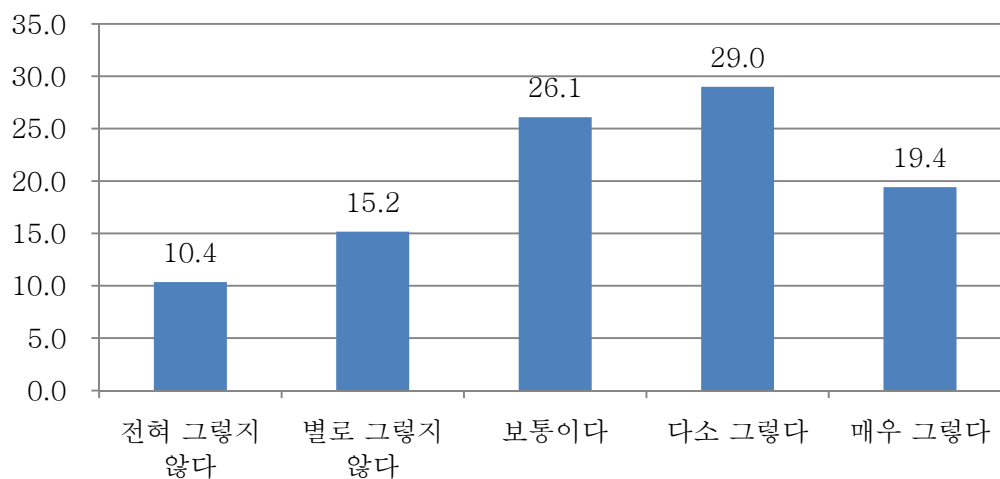
-초등학생들이 숙제나 시험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매우 혹은 다소 그렇다 에 대한 응답이 동일하게 15.9%씩 30%로 나타났다.

숙제나 시험 스트레스(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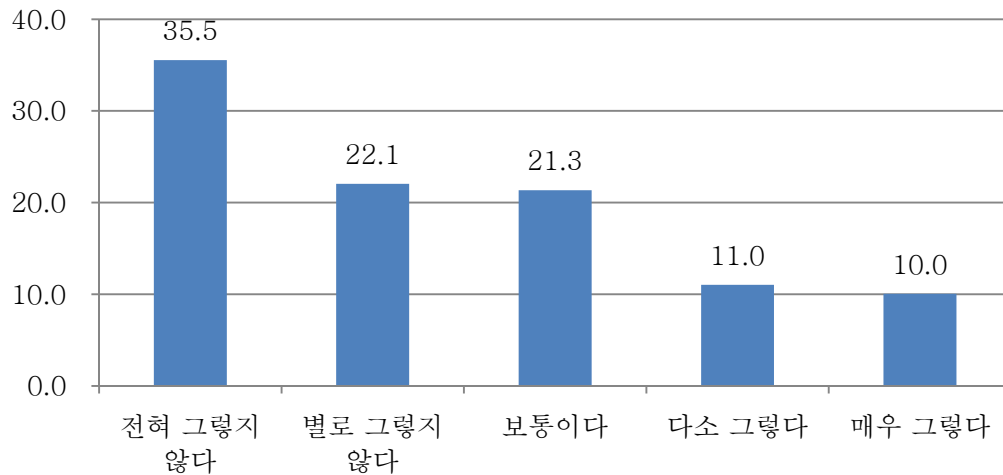
-중고등학생들이 숙제나 시험 스트레스 또한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48.4%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 25.6%보다 높게 나타났다.

숙제나 시험 스트레스(중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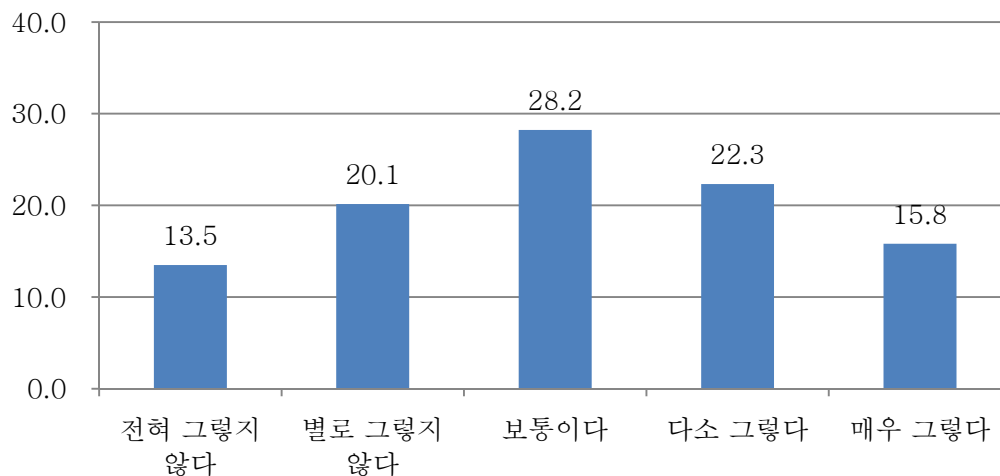
-초등학생들이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의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숙제나 시험 스트레스와 비교했을 때는 낮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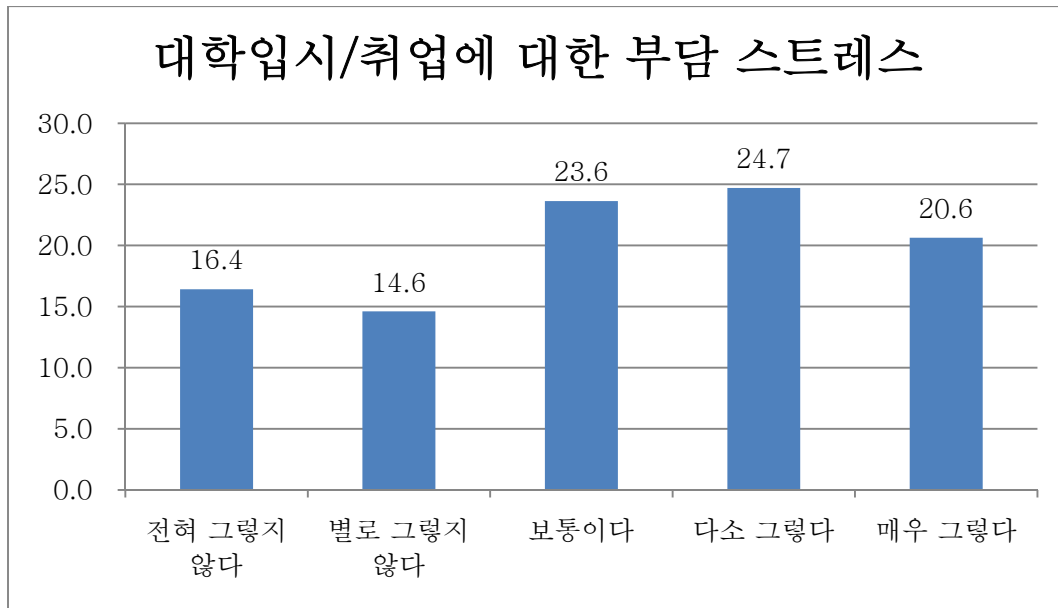


-중고등학생들이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인 경우는 그렇다는 응답이 38.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3.6%로 나타났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중고등)



-중고등학생들에 대해 별도로 측정한 대학입시/취업에 대한 부담 스트레스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45.3%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20.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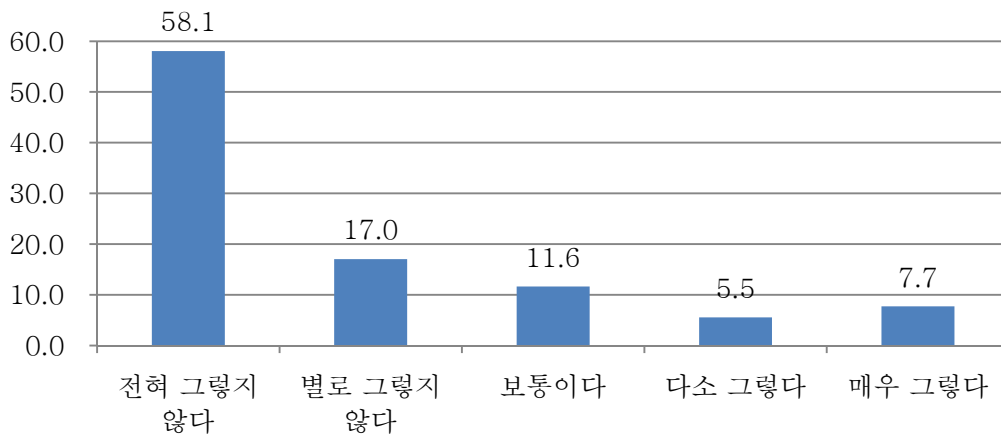


3. 친구 스트레스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당해서 스트레스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
친구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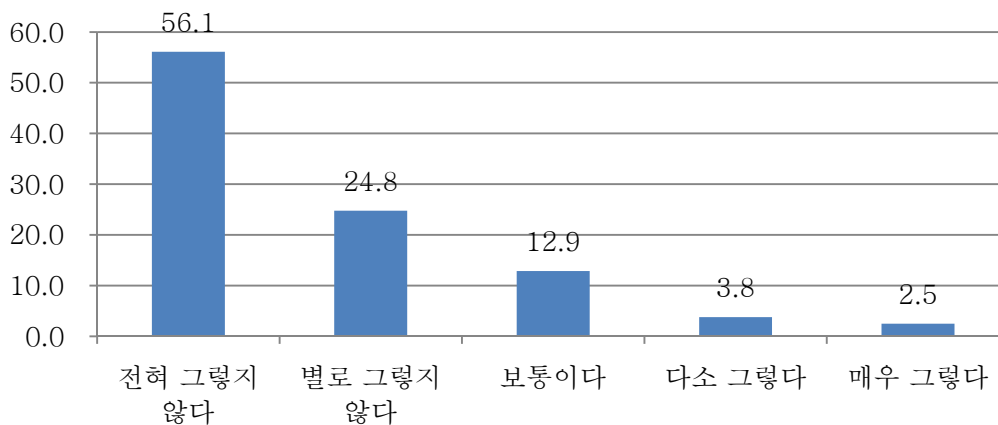
-초등학생들이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당해서 스트레스인 경우는 그렇다는 응답이 13.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5.1%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8.1%로 높게 나타났다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당해서 스트레스(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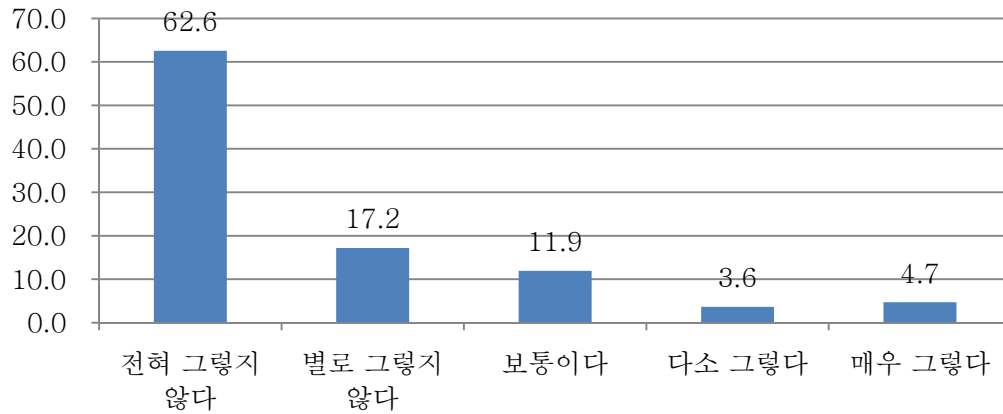
-중고등학생들이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당해서 스트레스인 경우는 6.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당해서 스트레스(중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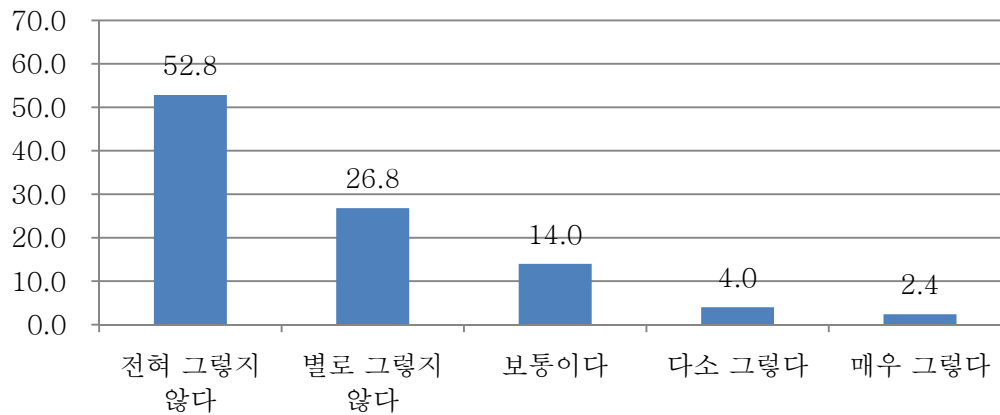
-초등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8.3%로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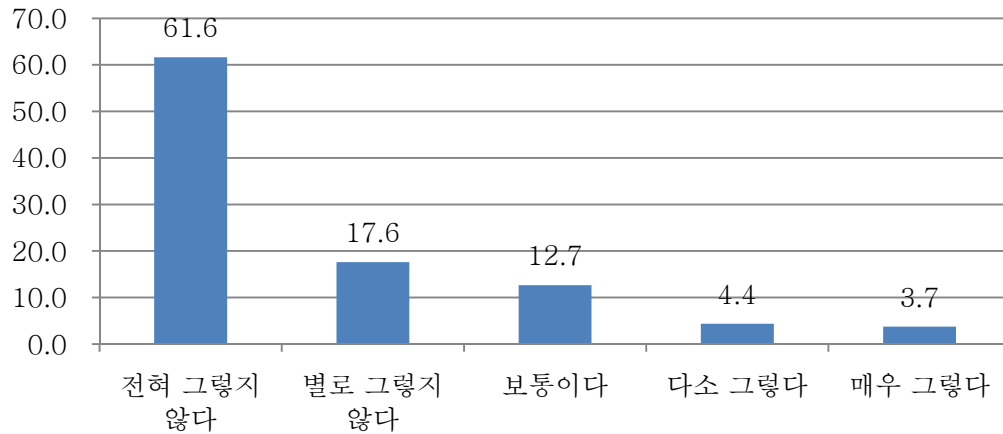
-중고등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 또한 6.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 스트레스(중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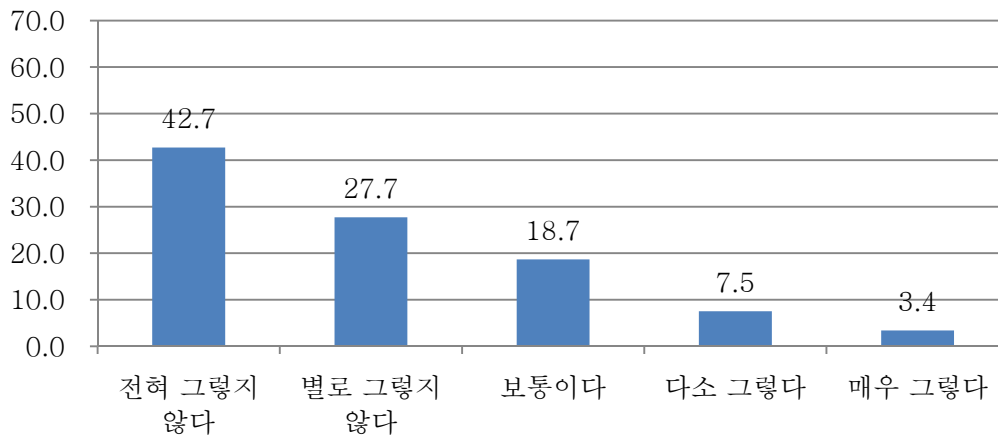
-초등학생들이 친구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8.1%로 낮게 나타났다.

친구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초등)



-중고등학생들이 친구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렇다는 응답이 10.9%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0.4%로 나타났다.

친구에 대한 열등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중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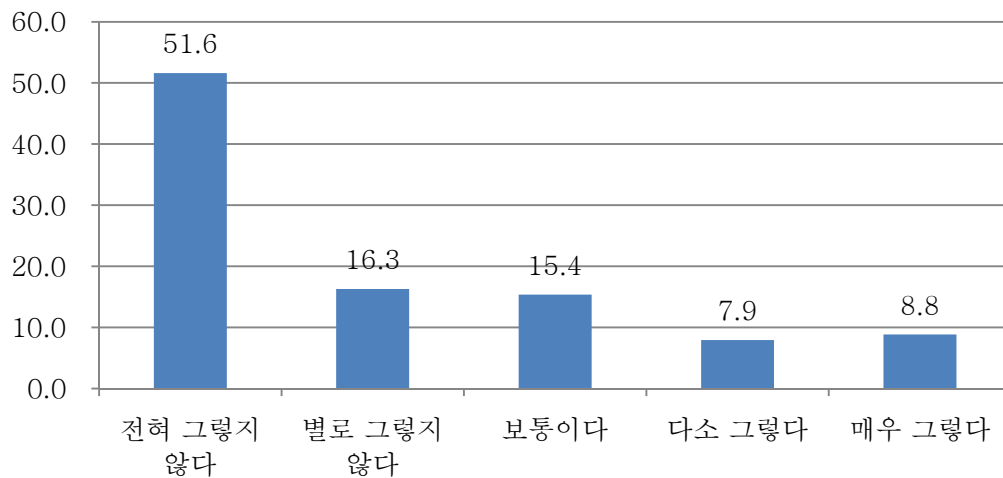


4. 외모 스트레스

몸무게로 인한 스트레스
키로 인한 스트레스
얼굴 생김새로 인한 스트레스
멋있거나 이쁜 옷을 입지 못한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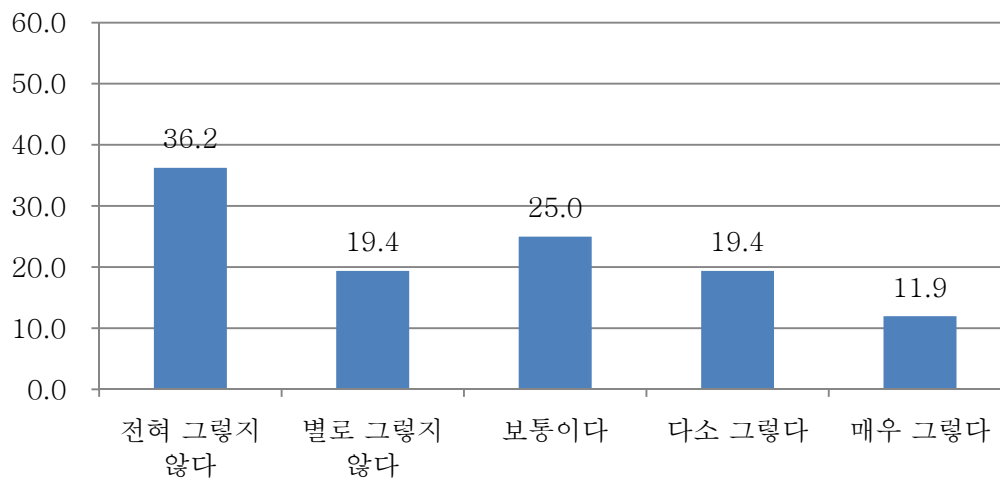
-초등학생들의 몸무게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렇다는 응답이 16.7%,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7.9%로 나타났다

몸무게로 인한 스트레스(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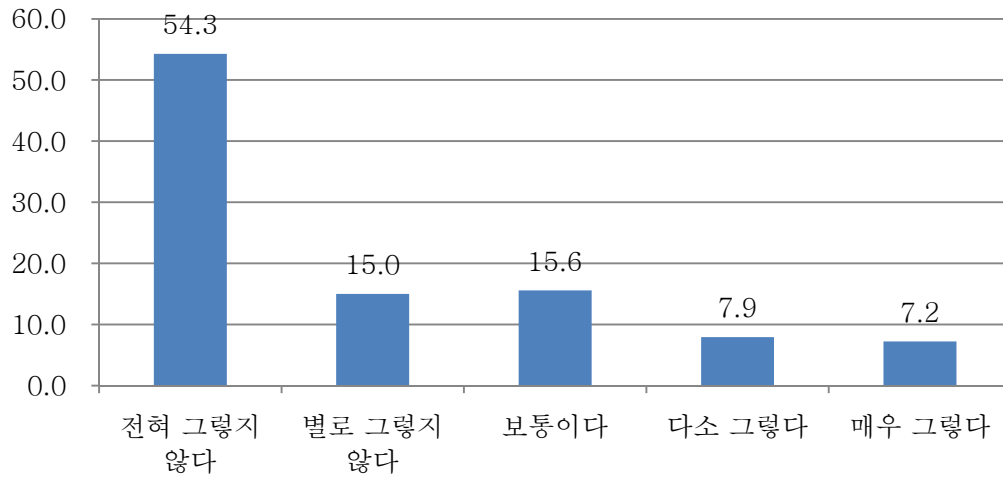
-중고등학생들의 몸무게로 인한 스트레스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31.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55.6%보다 낮게 나타났다.

몸무게로 인한 스트레스(중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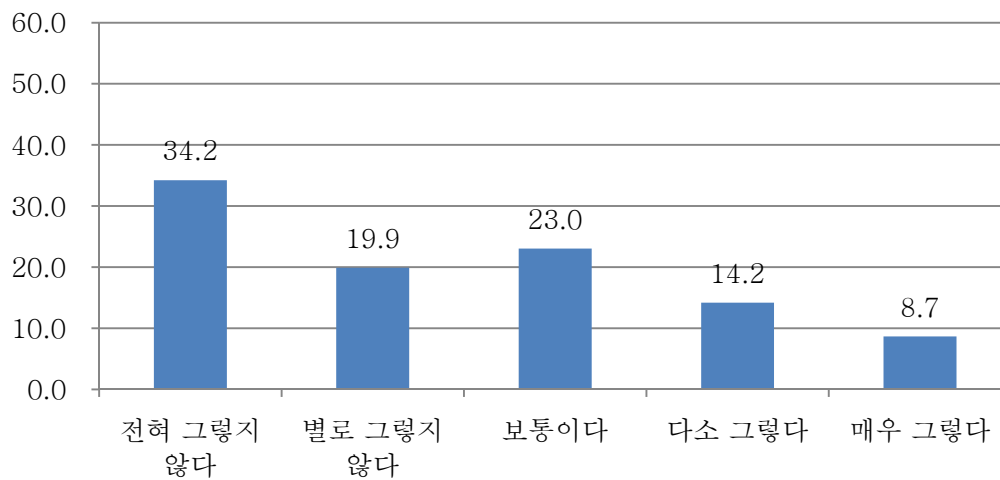
-초등학생들의 키로 인한 스트레스는 15.1%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키로 인한 스트레스(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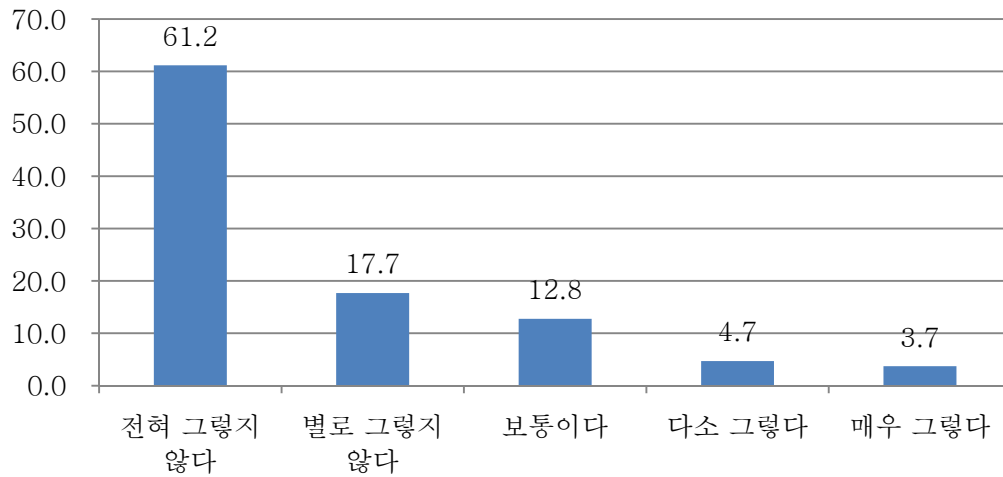
-중고등학생들의 외형에 있어서 키로 인한 스트레스는 22.9%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해, 몸무게로 인한 스트레스 31.3%보다는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키로 인한 스트레스(중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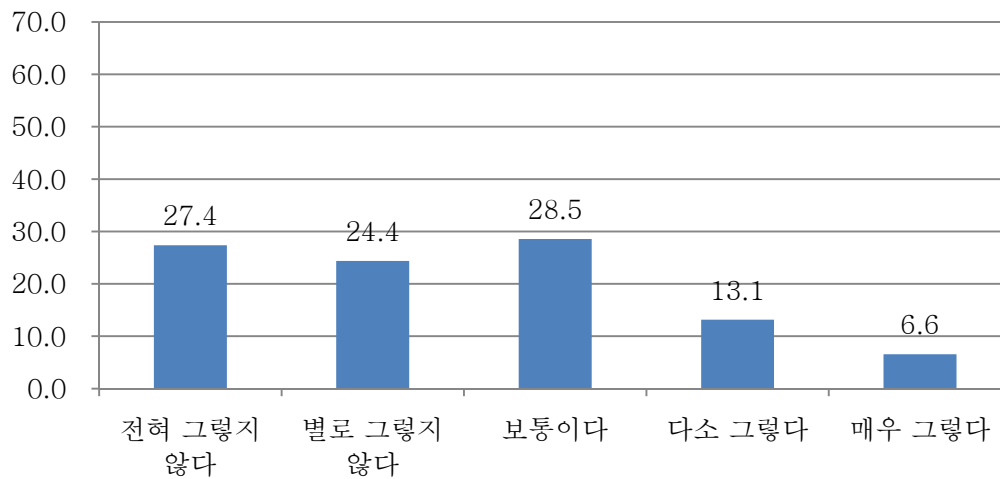
-초등학생들의 외형에 관련된 스트레스 중 얼굴생김새로 인한 스트레스는 8.4%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매우’그렇다는 응답은 3.7%로 나타났다

얼굴생김새로 인한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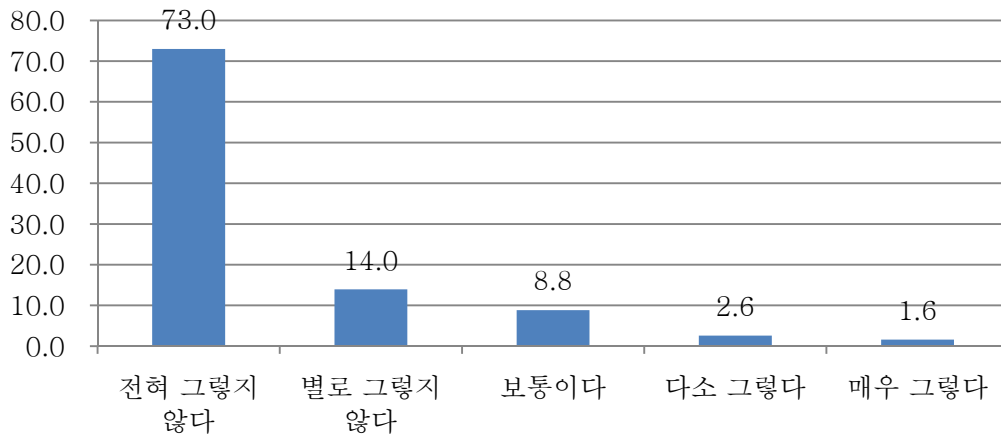
-중고등학생들의 얼굴생김새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이 19.7%로 나타났다.

얼굴생김새로 인한 스트레스(중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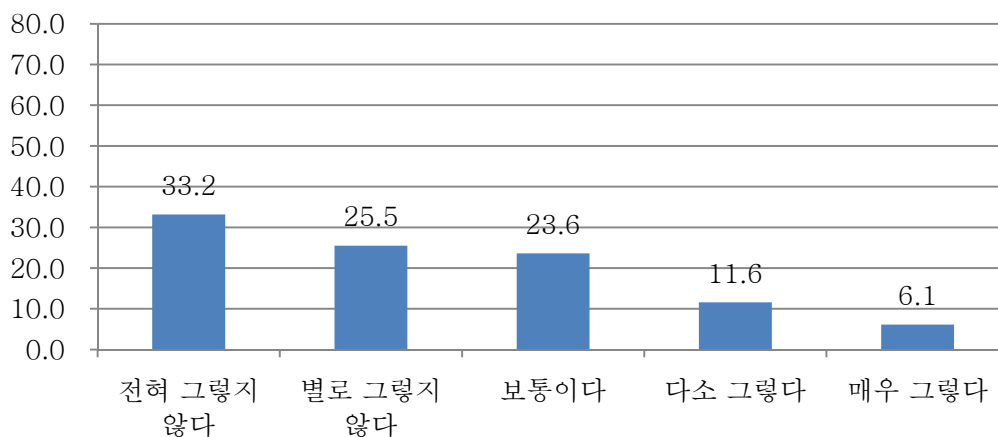
-초등학생들이 멋있거나 이쁜 옷을 입지 못한 스트레스는 ‘전혀’,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8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의 비율은 4.2%에 불과했다.

멋있거나 이쁜 옷을 입지 못한 스트레스(초등)



-중고등학생들이 멋있거나 이쁜 옷을 입지 못한 스트레스는 그렇다는 학생이 17.7%로 나타났으며, 이 중 ‘매우 그렇다’는 학생의 비율은 6.1%로 나타났다.

멋있거나 이쁜 옷을 입지 못한 스트레스(중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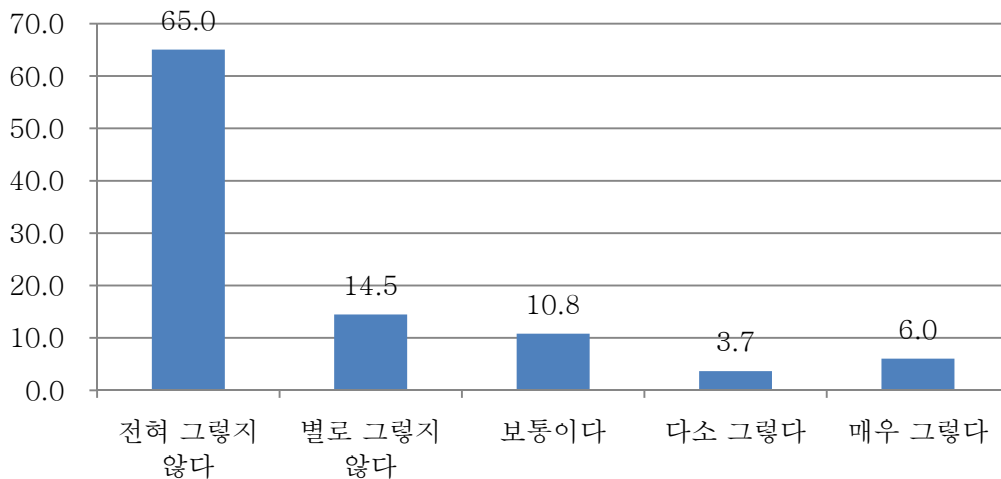


5. 소비 스트레스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
갖고싶은 물건을 갖지 못한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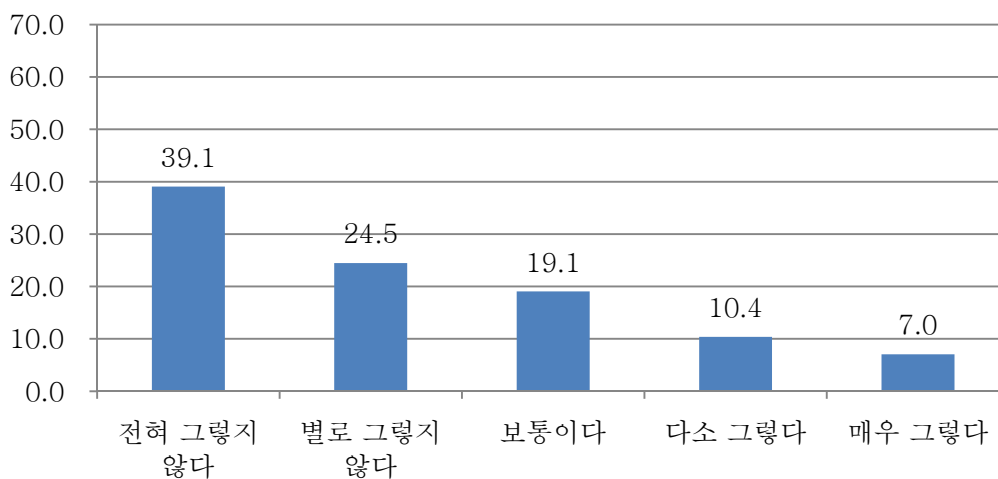
-초등학생들이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인 경우는 9.7%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79.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학생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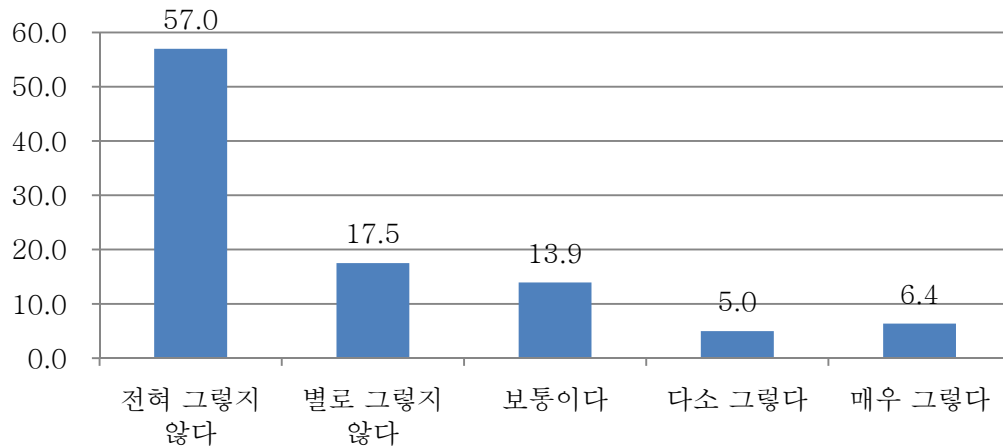
-중고등학생들이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인 경우는 17.4%로, 그렇지 않다는 63.6%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다.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중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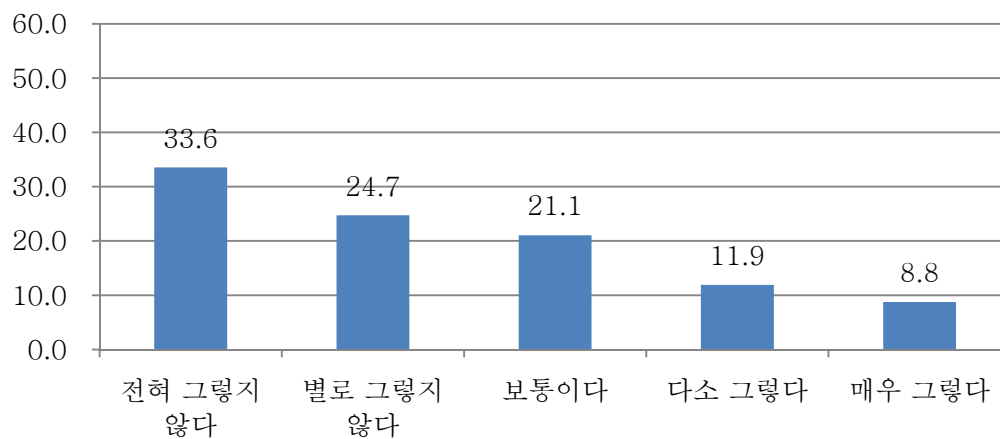
-초등학생들의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한 스트레스는 11.4%의 학생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한 스트레스(초등)



-중고등학생들의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한 스트레스는 20.7%의 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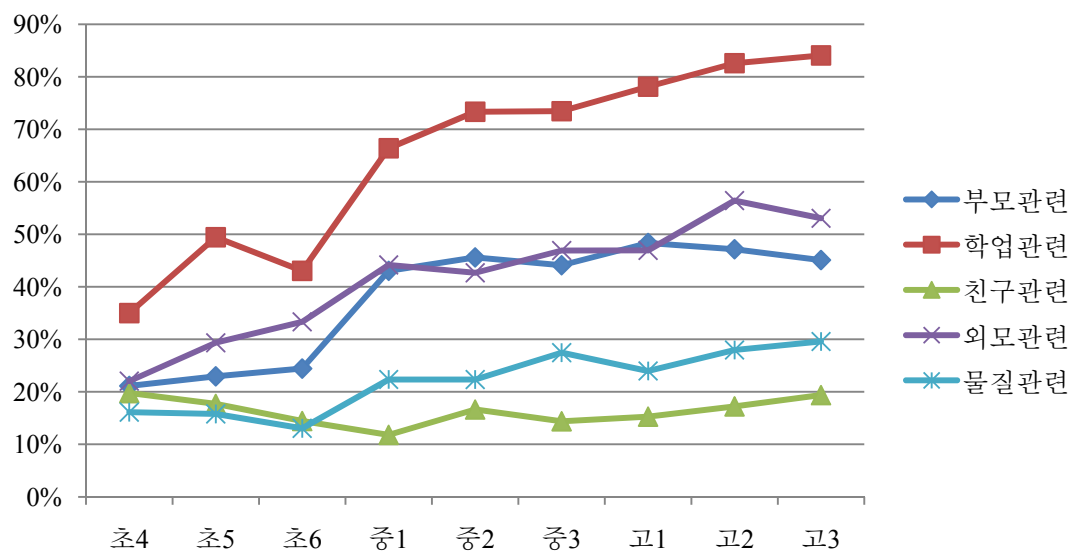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한 스트레스(중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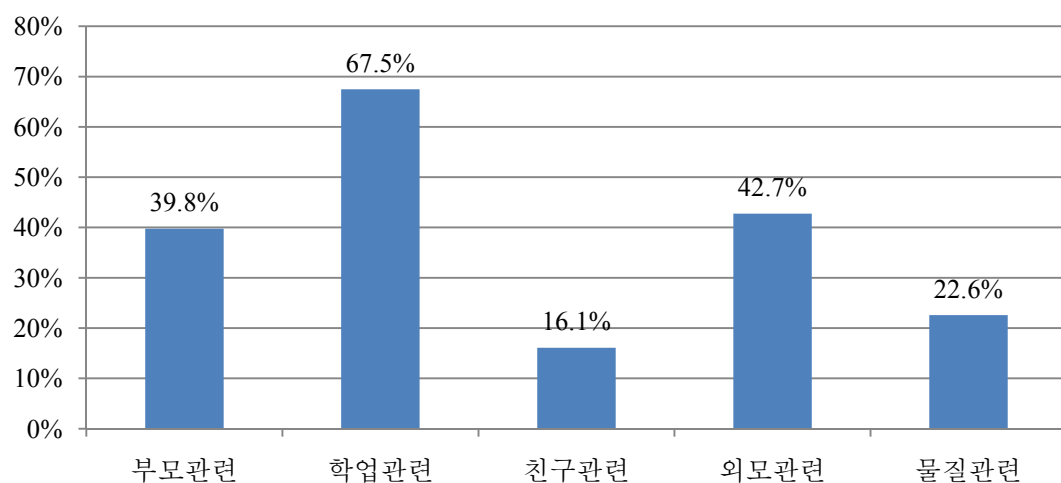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초등학생들에게서 질문한 항목들에 있어서 스트레스 지수는 높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업과 공부, 시험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지수는 보여주었다.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 때문에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초등학생들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이할 만한 것은 자신들의 외모나 물질적인 것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생 기에 접어들면 사회적인 계층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의 문화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빈도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부와 사회계층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도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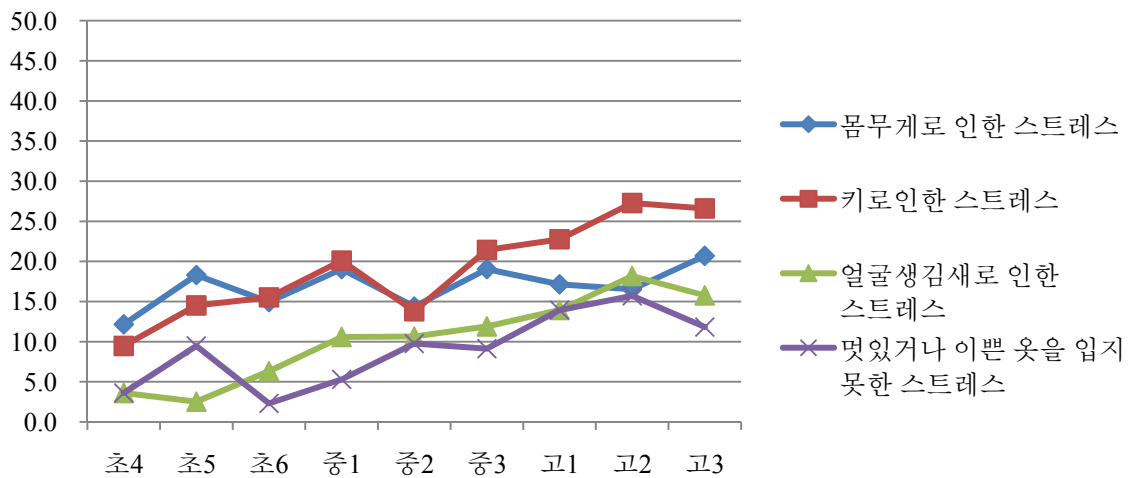
어린이-청소년의 종류별 스트레스 정도 1



어린이-청소년의 종류별 스트레스 정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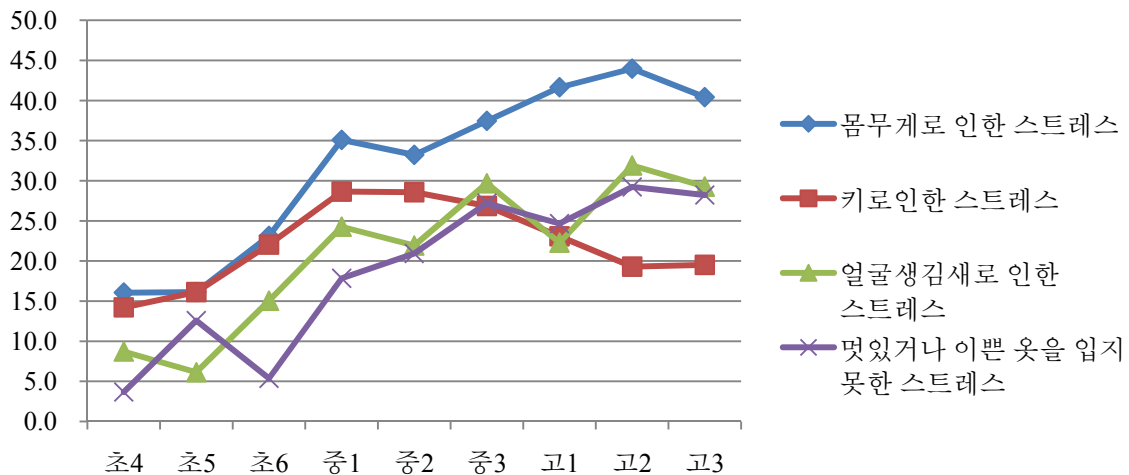


외모관련 스트레스(남)



외모와 관련하여 남학생의 경우에는 키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몸무게로 인한 스트레스가 초등학생의 경우 다른 스트레스의 원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키와 몸무게는 자신의 행복감을 증대시켜줄 수 있는 인간적인 요소로 이해된다.

외모관련 스트레스(여)



외모와 관련하여 여학생의 경우에는 몸무게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키로 인한 스트레스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얼굴생김새와 옷에 대한 스트레스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대되었다.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학생들에게서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가 여성에게 외모의 측면에서 사회적 압력을 더 많이 행사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자는 키, 여자는 얼굴과 몸매라는 한국사회의 편견이 학생들에게 서로 다르게 사회화되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VII. 주관적 행복

1. 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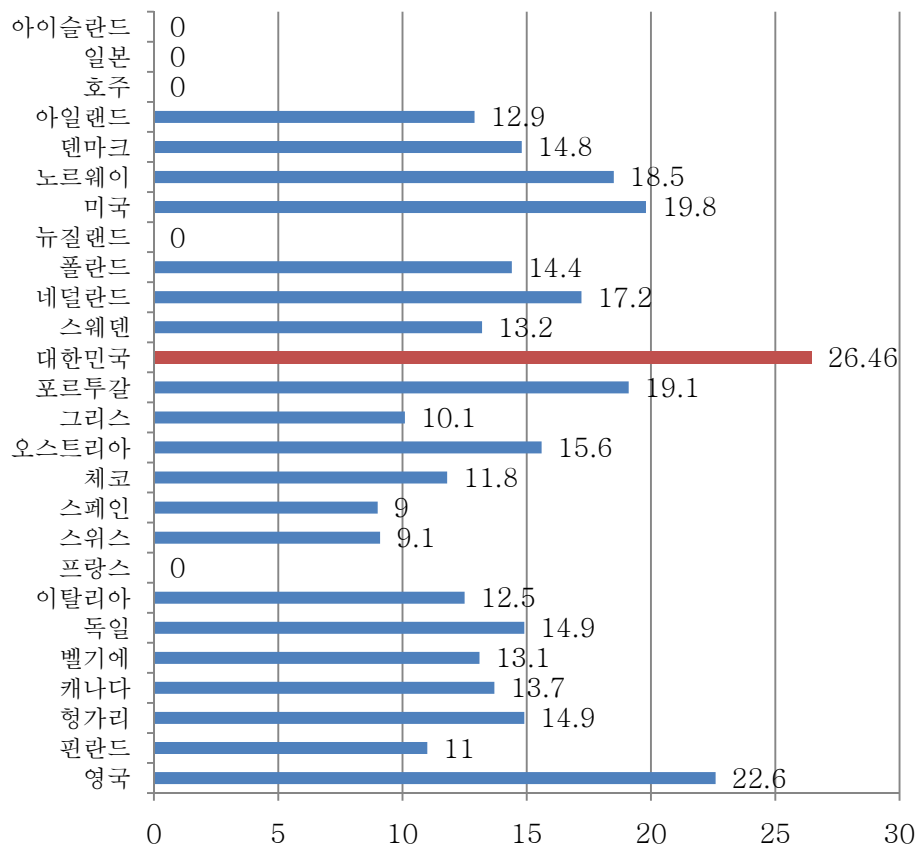
주관적 건강

: 스스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에 대한 OECD 의 국가들의 평균은 14.98%인 것에 비해 한국은 26.4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주관적 건강] 단위: %

주관적건강



[주관적 건강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주관적 건강	14.98381	4.399239	9 26.46

2. 학교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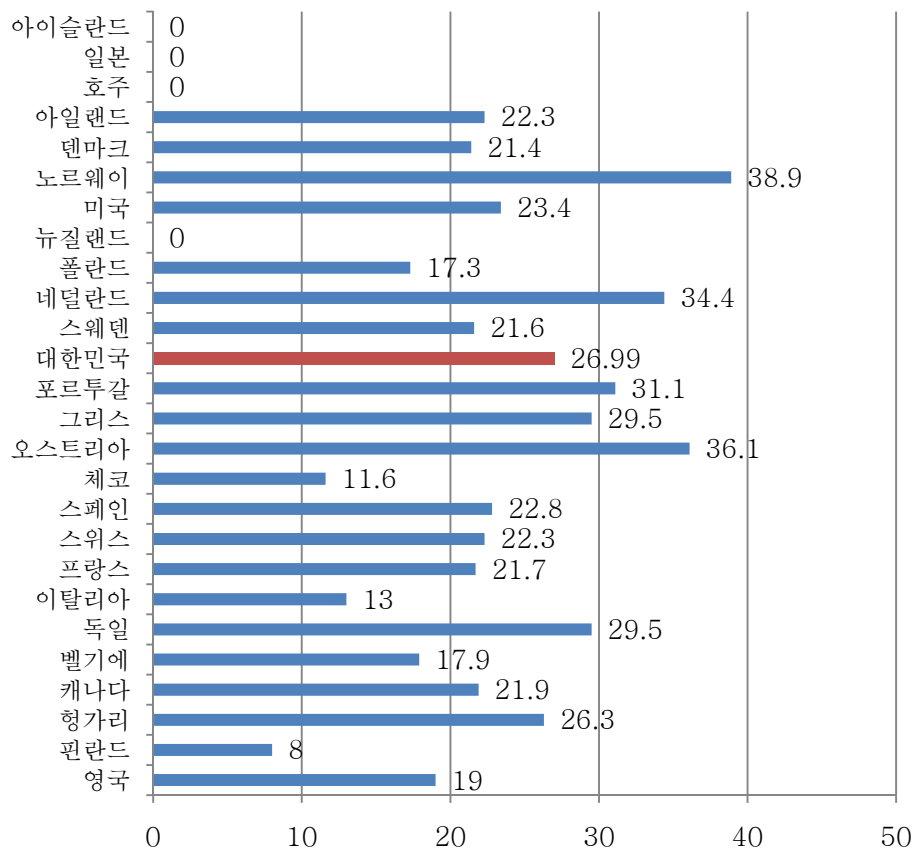
학교생활만족

: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

-학교생활을 ‘매우 좋아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국은 26.99%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23.5%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학교생활만족] 단위: %

학교만족



[학교생활만족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학교생활만족	23.49955	7.757854	8 38.9

3. 개인행복

삶의 만족척도

: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만족한다' 및 '매우 만족한다'에 대한 비율)

부정적 생각

: 자신을 아웃사이더라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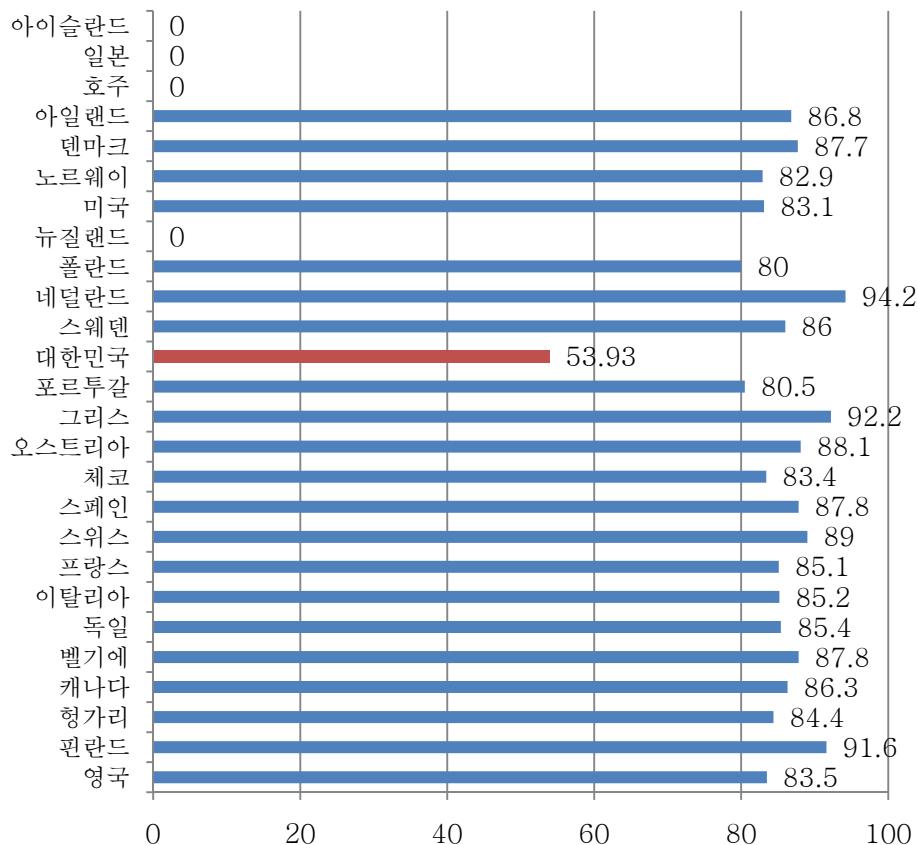
: 주변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

: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

-삶에 대한 만족에 있어 '만족한다'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OECD 국가들은 84.77%인 것에 비하여 한국은 53.93%로 매우 저조한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삶의 만족척도] 단위: %

삶의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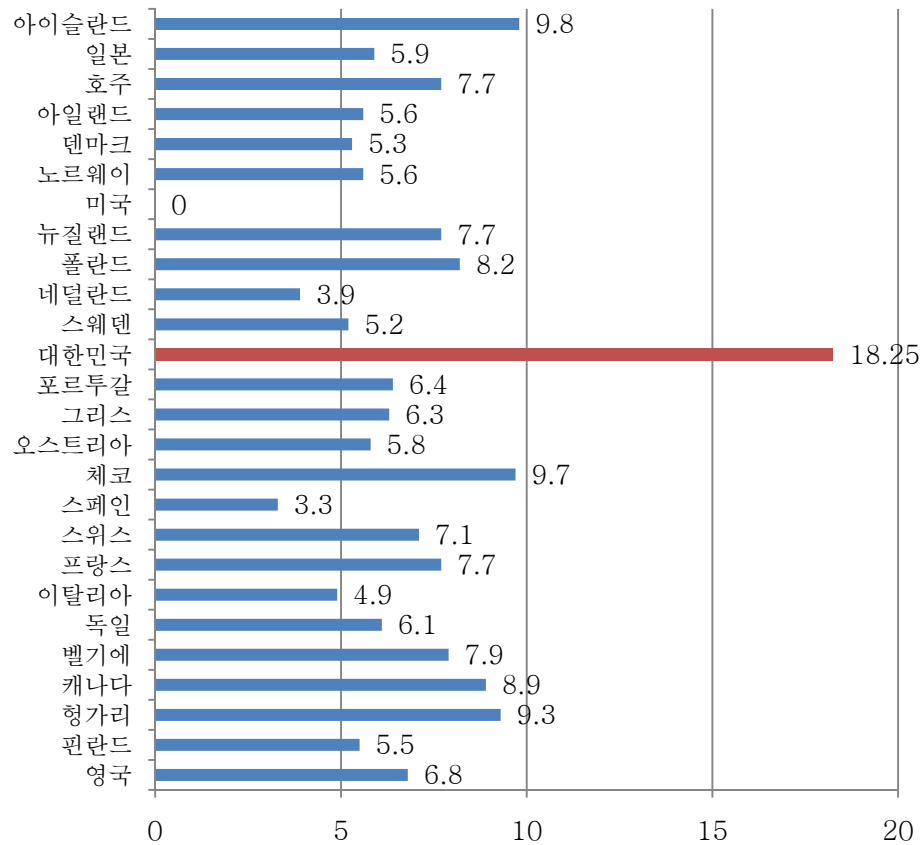
[삶의 만족척도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삶의 만족척도	84.76955	7.737898	53.93 94.2

-소속감을 느끼는 학생의 비율에 대해 OECD 국가들의 평균은 7.15%를 나타낸 것에 반해 한국은 18.25%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웃사이더] 단위: %

소속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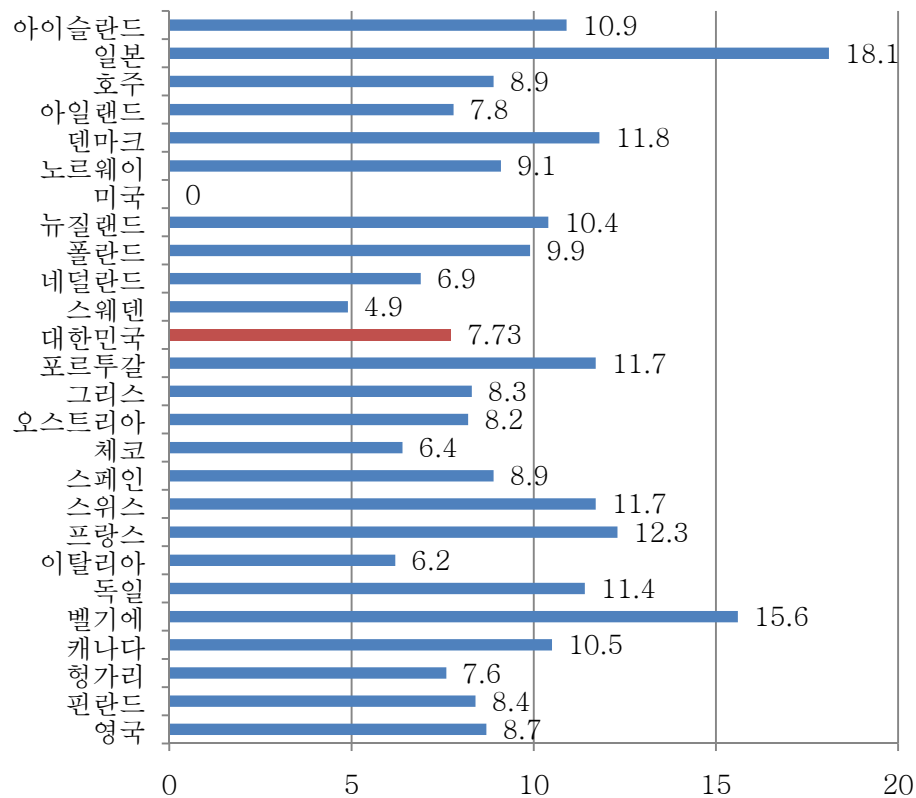
[소속감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소속감	7.154	2.872931	3.3	18.25

-주변환경이나 상황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이 한국은 7.73%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들의 평균은 9.69%로 나타나 평균치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적응] 단위: %

어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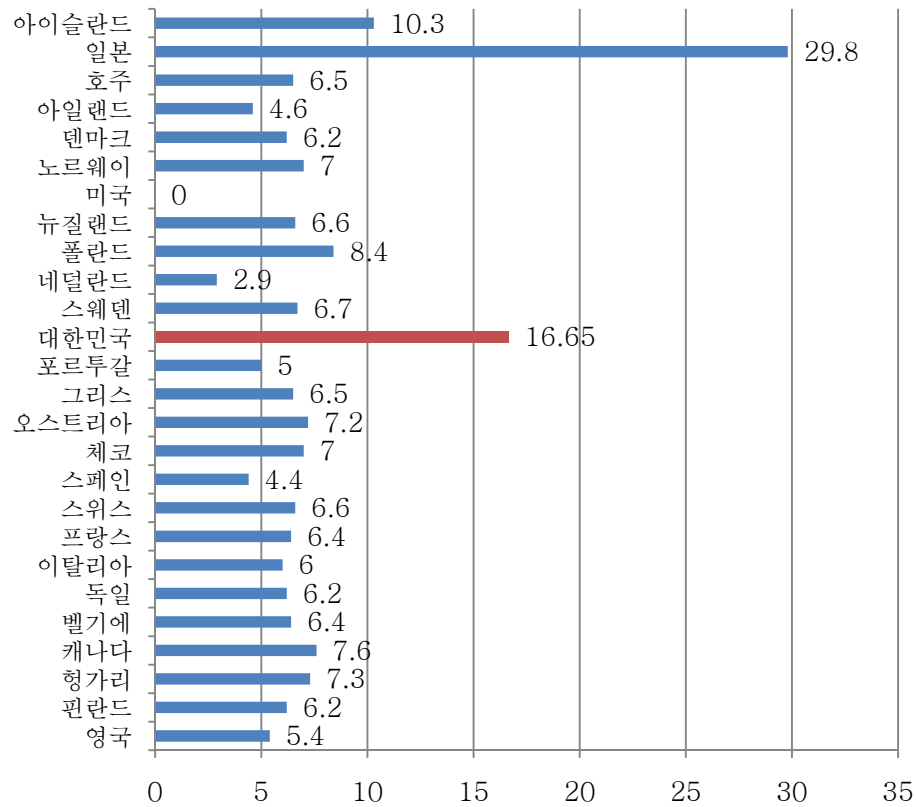
[어울림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어울림	9.6932	2.919045	4.9	18.1

-외롭다고 느끼는 학생의 비율에 있어 OECD 국가들은 7.75%에 그쳤지만 한국은 16.65%로 상위권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외로움] 단위: %

외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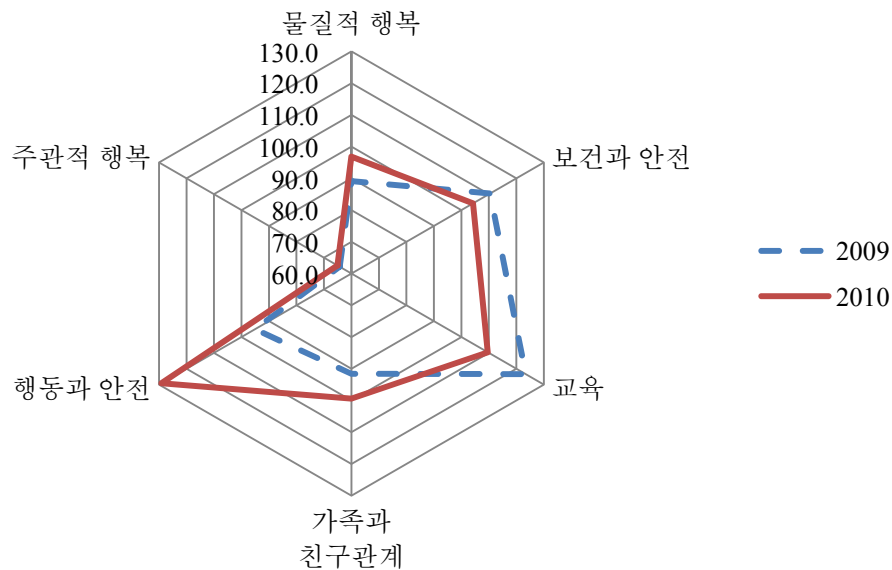
[외로움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95% 신뢰구간	
외로움	7.754	5.214282	2.9	29.8

제 4 장

‘09-‘10 비교분석

한국의 2009년과 2010년의 행복도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과 안전	주관적 행복
2009	89.1	110.5	123.4	91.6	95.1	64.3
2010	96.9	104.2	109.6	99.4	129.2	65.1

전반적으로 행복도 측정을 위한 6 개의 항목들을 2009 년과 2010 년을 비교했을 때,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항목의 비교는 우선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건강관련 행위(2010 년 행위와 안전으로 세분화 및 보완), 주관적 행복 등으로 이루어진다.

물질적 행복에서는 대한민국의 점수는 89.1 에서 96.9 로 증가하였다. 위 자료는 2009 년에는 OECD 2000 data 를 사용하였으나 올해 자료는 상대적 빈곤의 변수를 위해서는 2006 년도 자료가 사용되었고 가족 중에서 성인이 직업이 없는 비율을 찾는 항목은 마찬가지로 같은 년도 OECD 의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물질적 행복 부분에서는 국제적으로 나타난 소득의 증대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보건과 안전의 항목에서는 110.5 에서 104.2 로 감소하였다. 국제비교를 위해서 UN 2010 년, OECD Health data 2009, World bank 2008, UNICEF 2008 도 자료들이 사용되었는데 영아 건강부분에서는 2010 년도 UN 과 2009 년도 OECD 의 건강관련 자료들이 사용되었다. 예방접종의 경우 유니세프 2008 년도 자료와 세계 은행의 자료들이 사용되었다. 아동사고사의 경우 한국은 지난해와 같은 자료를 사용하였다.

교육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123.4 에서 109.6 로 감소했다. 교육참여와 학업 성적은 2009 년도 자료보다 3 년 후의 PISA 2006(OECD2009) 자료가 사용되었다. 교육 참여자료 또한 OECD 와 교육개발원의 2009 년과 2010 년도 자료를 참고하였다. 교육개발원에서는 지속적으로 OECD 자료를 한국의 자료와 함께 비교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과 미래 미숙련 고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 이외에 교육기관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고 직업 교육도 받지 않는 실업상태인 15 세에서 19 세까지의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기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은 주변부 청소년들의 실업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교육영역의 측정]						
구성요소	지표	측정	조사대상	조사시기	외국자료	한국자료
학업성취	15 세 학업성적	읽기시험점수 수학시험점수 과학시험점수	15 세	2009	PISA 2003	PISA 2003
				2010	PISA2006 (OECD2009)	PISA2006
교육참여	15~19 세 아동의 학업유지	학교를 다니는 아동의 비율	15-19 세	2009	OECD 2009 (Education at a glance 2003)	국제통계연감 2007 (교육정도별취학률)
				2010	OECD 2009 교육지표	교육개발원2010
청소년실업	실업상태 인 청소년	학교, 다른 훈련기관, 직 업도 없는 15-19세	15-19세	2009	조사하지 않음	조사하지 않음
				2010	OECD2 009교육지표	교육개발원
고용으로의 전환	미숙련 일자리	기대하는 일자리가 미숙련 자리인가?	15 세	2009 - 2010	PISA 2000 (Education at a glance 2005)	본 연구 설문지 (KCWI)

시험 점수의 경우 읽기, 수학, 과학의 점수가 평가되었다. 수학의 경우에는 547.0 에서 542 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과학시험 점수의 경우 522.0 에서 538 점으로 증가한 반면 읽기 같은 경우는 556.0 에서 534 점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읽기시험점수	수학시험점수	과학시험점수
2009	534	542	538
2010	556.0	547.0	522.0

가족과 친구 관계에서는 91.6 에서 99.4 로 증가하였다. 가족 구조의 경우 홀부모 가정은 19.3 에서 11.5 로 감소하였고, 의붓 가정은 2.5 에서 2.5 로 소폭 증가하였다. 부모님과 대화하기의 경우 지난해 58.6 에서 2010 년에는 66.4 로 증가한 반면 부모님과 식사하기 항목의 경우는 지난해 69.4 에서 2010 년의 경우 58.8 로 대폭 감소되었다. 친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지난해 한국의 경우 59.6 을 보여주었으나 올해에는 66.37 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가족 구조의 악화, 그리고 부모와 관련한 경우 대화와 식사의 빈도수가 상쇄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와의 좋은 관계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행복도 수치가 더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친구와의 관계가 가족보다는 청소년의 행복도를 높이는데 더 큰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주관적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인 가족이라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요소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충하는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홀부모 가정	의붓가정	부모와 함께 식사	부모와 함께 대화	친절한 급우관계
2009	19.3	2.5	69.4	58.6	59.8
2010	11.5	2.5	58.8	66.4	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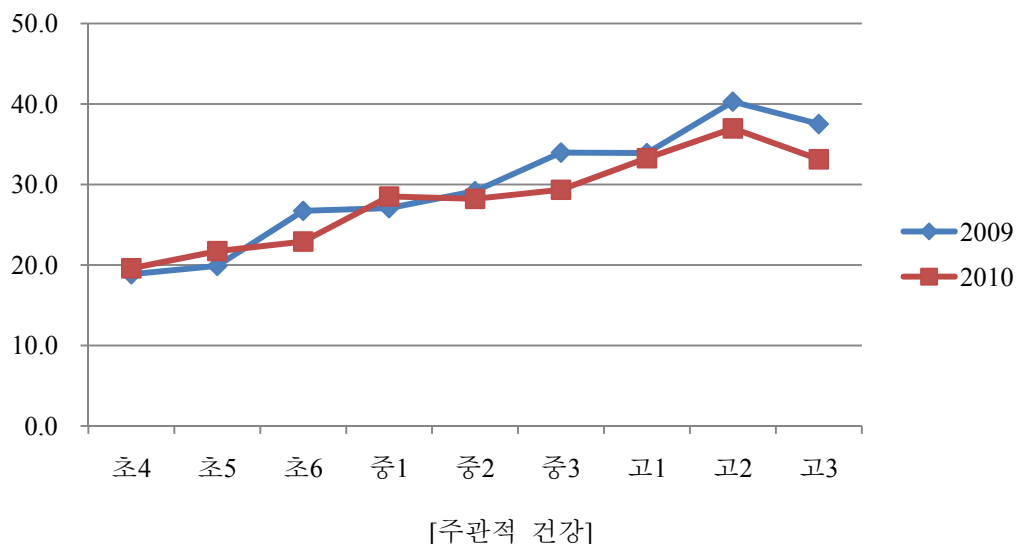
건강관련 행위 (2010 년에는 행동과 안전)의 항목에서는 95.1 에서 129.2 로 증가하였다. 건강관련 행위는 2010 년에는 행동과 안전으로 건강을 위한 행동과 건강을 해치는 행동으로 나뉘어 세분화되었다. 지난해와 같은 항목을 비교한다면 지난해 아침식사의 경우 80.1 에서 2010 년에는 82.7 로 증대되었다. 과체중은 7.8 에서 5.7 로 감소하였으며 흡연도 9.2 에서 1.5 로 대폭 감소하였다. 음주는 27.6 에서 12.1 로 감소했고 마약은 0.7 에서 0.3 로 감소하였다. 성관계도 1.8 에서 0.93 으로 감소했다.

임신과 출산은 0.7 에서 5 로 대폭 증대되었다. 임신과 출산 항목은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2003 년 자료에서 2008 년 자료로 업데이트 되었다. 위의 경우 건강관련 행위에서 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줄어든 반면(임신과 출산을 제외) 다른 항목에서는 대폭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해서 운동 시간은 3.9 에서 5.1 로 증가하였으며, 싸움의 경우 9.8 에서 12.3 으로 증가했다. 왕따를 비롯한 따돌림은 6 에서 6.7 로 소폭 증대했으며, 성관계시 콘돔사용은 1.1 에서 40.0 으로 증가하였다. 과일 섭취의 경우 7.6 에서 57.8 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양하게 세분화된 항목을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행위는 감소한 반면 건강에 이로운 행위는 대폭 증대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건강관련 행위는 증가했다.²

	아침식사	과일섭취	과체중	운동	흡연	음주	마약	섹스	콘돔	임신	싸움	따돌림
2009	80.2	7.6	7.8	3.9	9.2	27.6	0.7	1.8	1.1	0.7	9.8	6
2010	82.7	57.8	5.7	5.1	1.5	12.1	0.3	0.9	40.0	5.0	12.3	6.7

주관적 행복 부분에서는 64.3 에서 65.1 로 약간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주관적 건강, 학교생활만족, 삶의 만족, 소속감, 어울림, 외로움 등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얻어졌다. 이 항목들은 여론 조사를 통해서 달성되었다. 2009 년과 2010 년의 비교를 위해서 초등학교 4 학년부터 고등학교 3 학년까지 한 데이터로 묶어서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하였다. 이는 학년이 높아갈수록 혹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시기에 있어서 학생들이 가지는 주관적 행복을 위한 어떤 조건들이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기 위한 것이다. 긍정적 질문에는 높은 수치가 나왔으며 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낮은 수치가 나타남으로 해서 지난해와 올해 비교에서는 주관적 행복이 소폭 증가했음을 나타내주었다. 아래의 분석은 각 항목에 대한 2009 년도와 2010 년도의 비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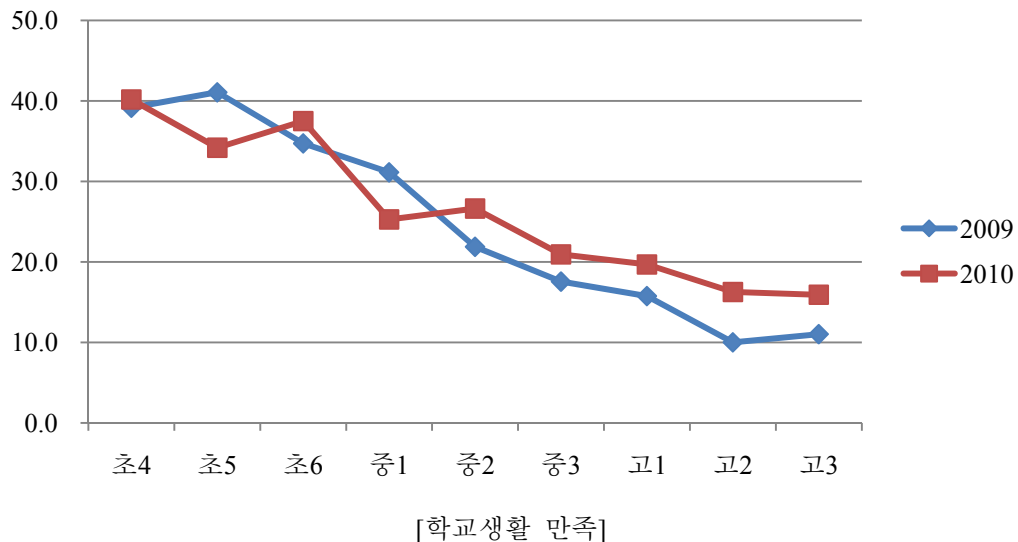
주관적 건강



² 지난해에는 과일섭취와 운동이 국민건강영양조사(2005)를 사용하여 측정되었고, 흡연과 음주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에는 질문 방식에 있어서 life time event의 형태인 “지금까지 ~을 한적이 있는지”로 질문을 하고 진행한 반면, 올해는 OECD 질문을 정확하게 하여 도구화하여 측정하였다. 이로 인해서 과일 섭취의 차이가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수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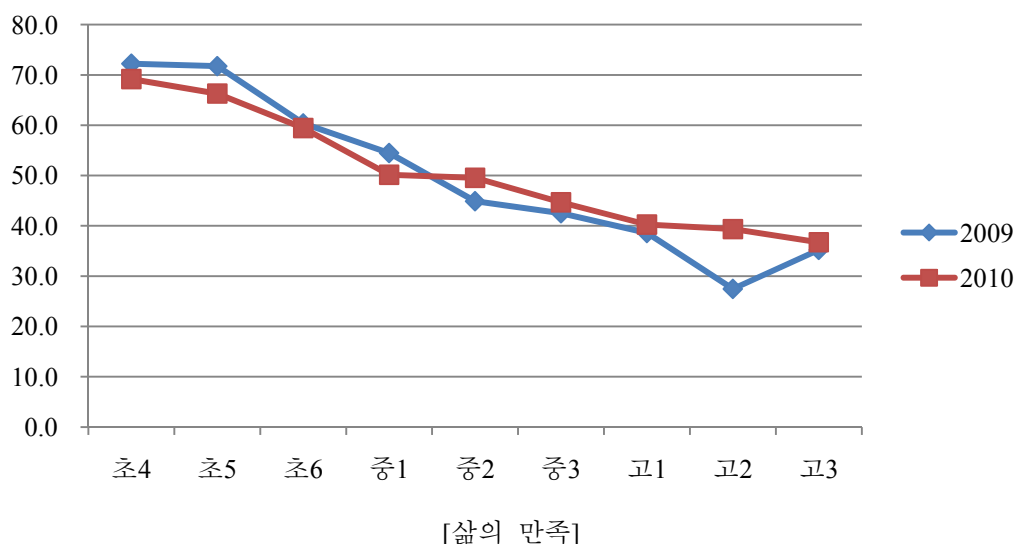
-자신의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 학년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지난 해와 2010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약간 개선된 사항을 보인다. 특히 고등학생들에 있어서 개선된 점이 부각된다.

학교생활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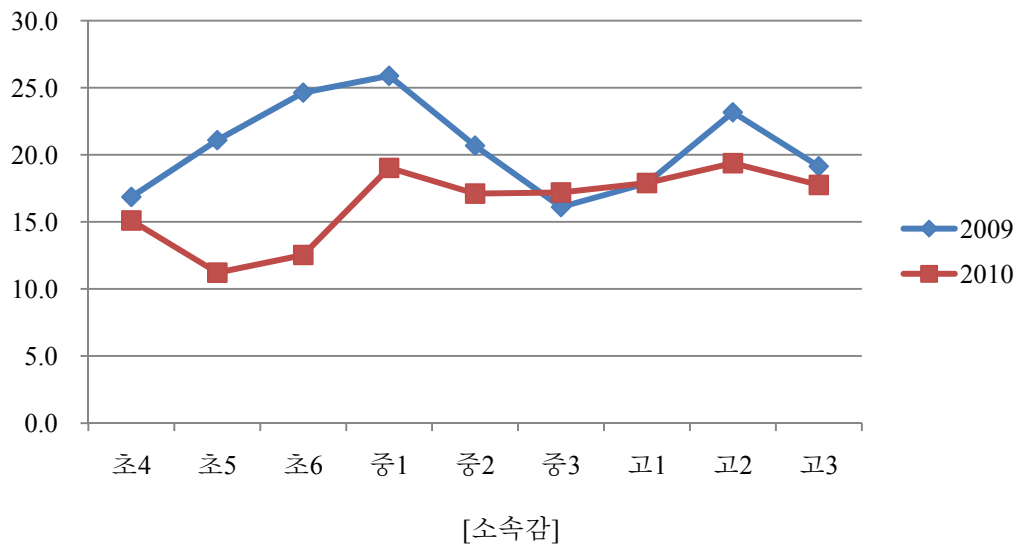
-학교 생활 만족도는 학교 생활을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인데 2010년에 역시 개선된 사항이 보인다. 그러나 초등학교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삶의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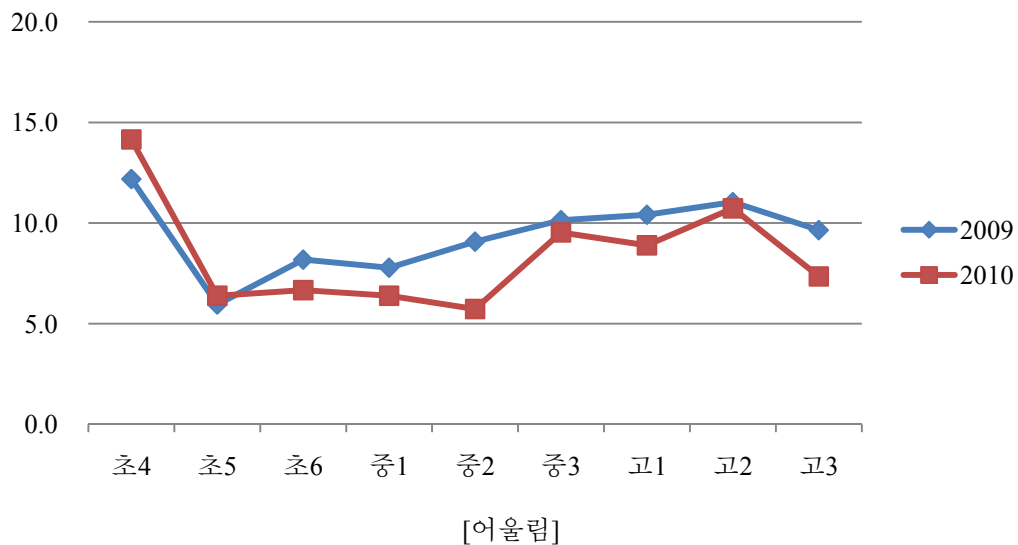
-2010년에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낮게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서 초등학생들은 만족도가 낮고 중학생 이상은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소속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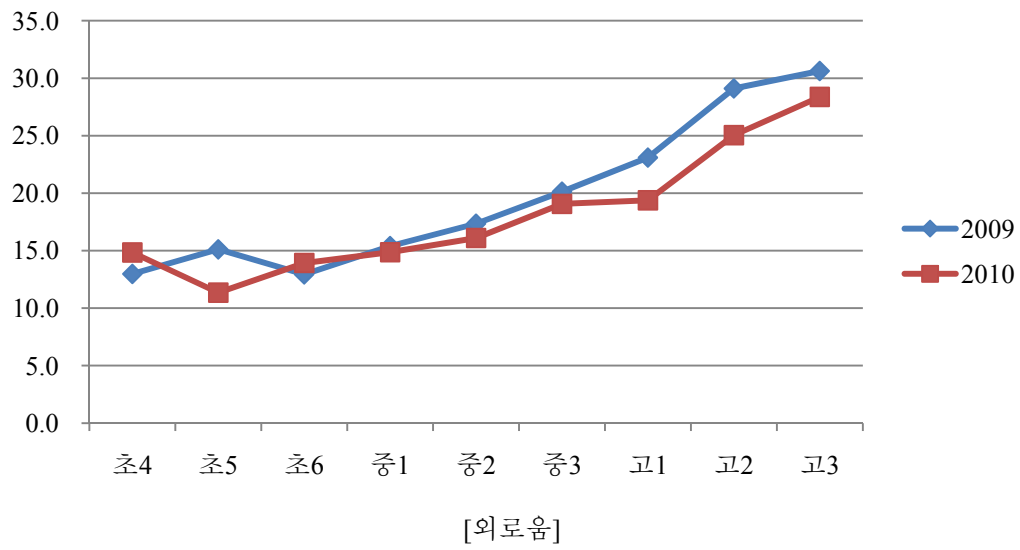
-소속감의 경우 자신이 전혀 그리고 별로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로서 지난 해인 2009년에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학년이 올라가면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중학생의 경우 소속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인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중3과 고 1에서만 낮게 나타났고 소속감을 대다수 학년에서는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울림



-주변상황에 전혀 혹은 별로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2010년에는 낮아져 어울림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이동시 어울림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약간 줄어드는 반면 고등학교로 진입할 경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이동시에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외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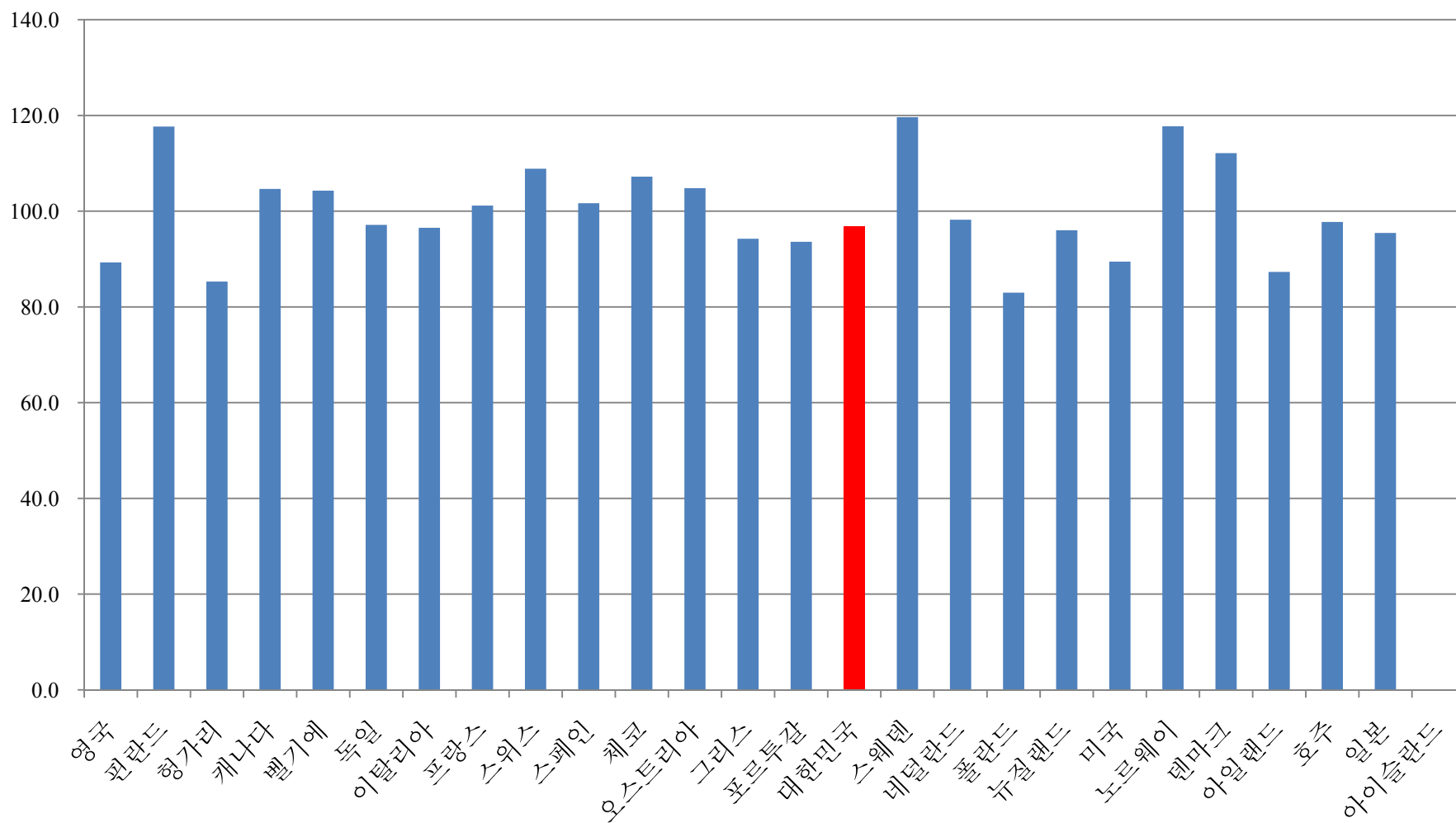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높아졌다. 지난해에 비해서 중학교 3학년 이후 좀더 높아진 비율을 보인다.

제 5 장

통계분석표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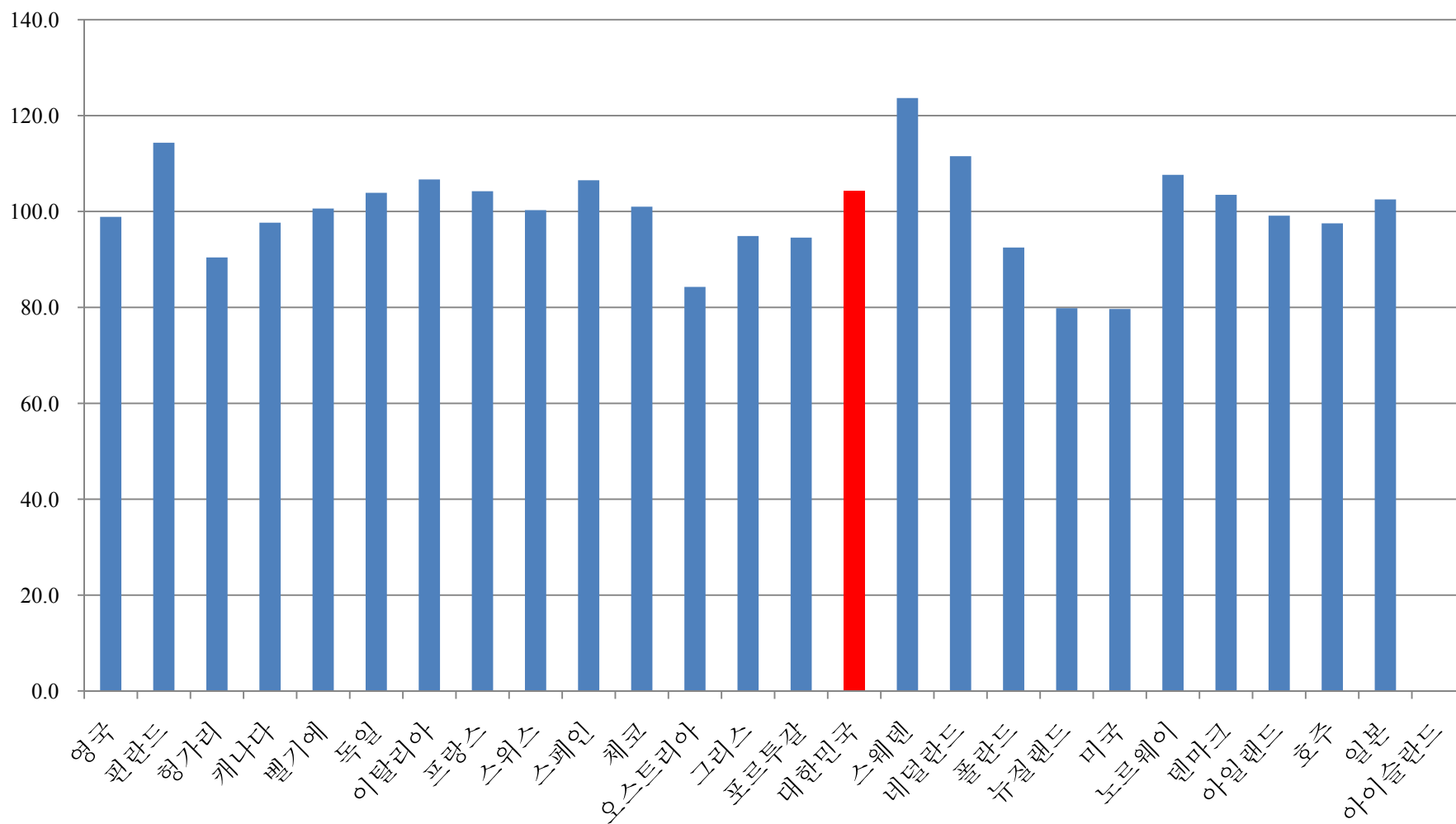
³ 아래의 표들은 제3장에서 제시된 6개의 행복지수 영역인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교육, 가족과 친구관계, 건강관련행위, 주관적 행복에 대한 하부영역의 표준화된 합의 값을 표로 제시한 것이다.(스트레스 제외)

물질적 행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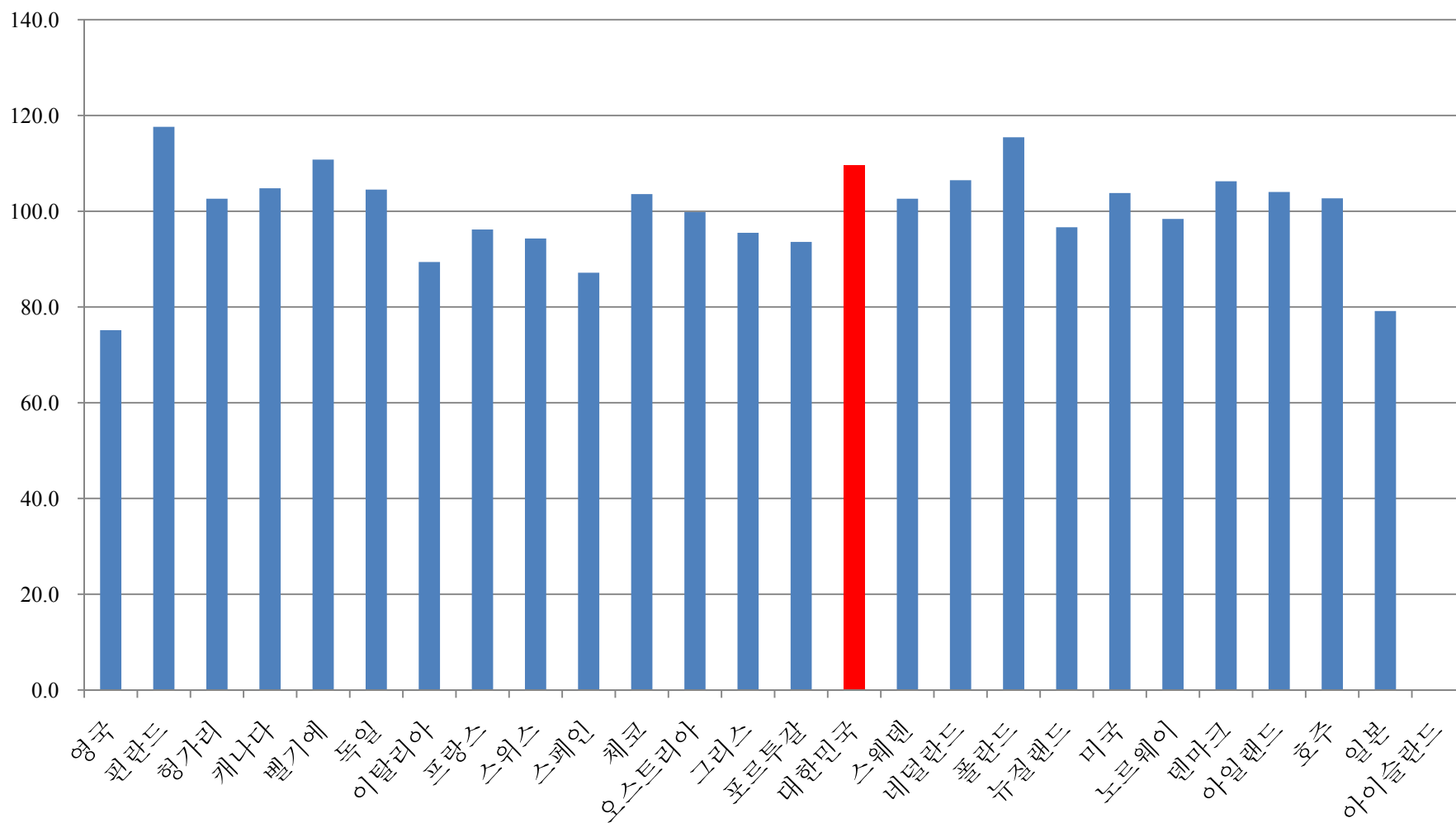
[물질적 행복]

보건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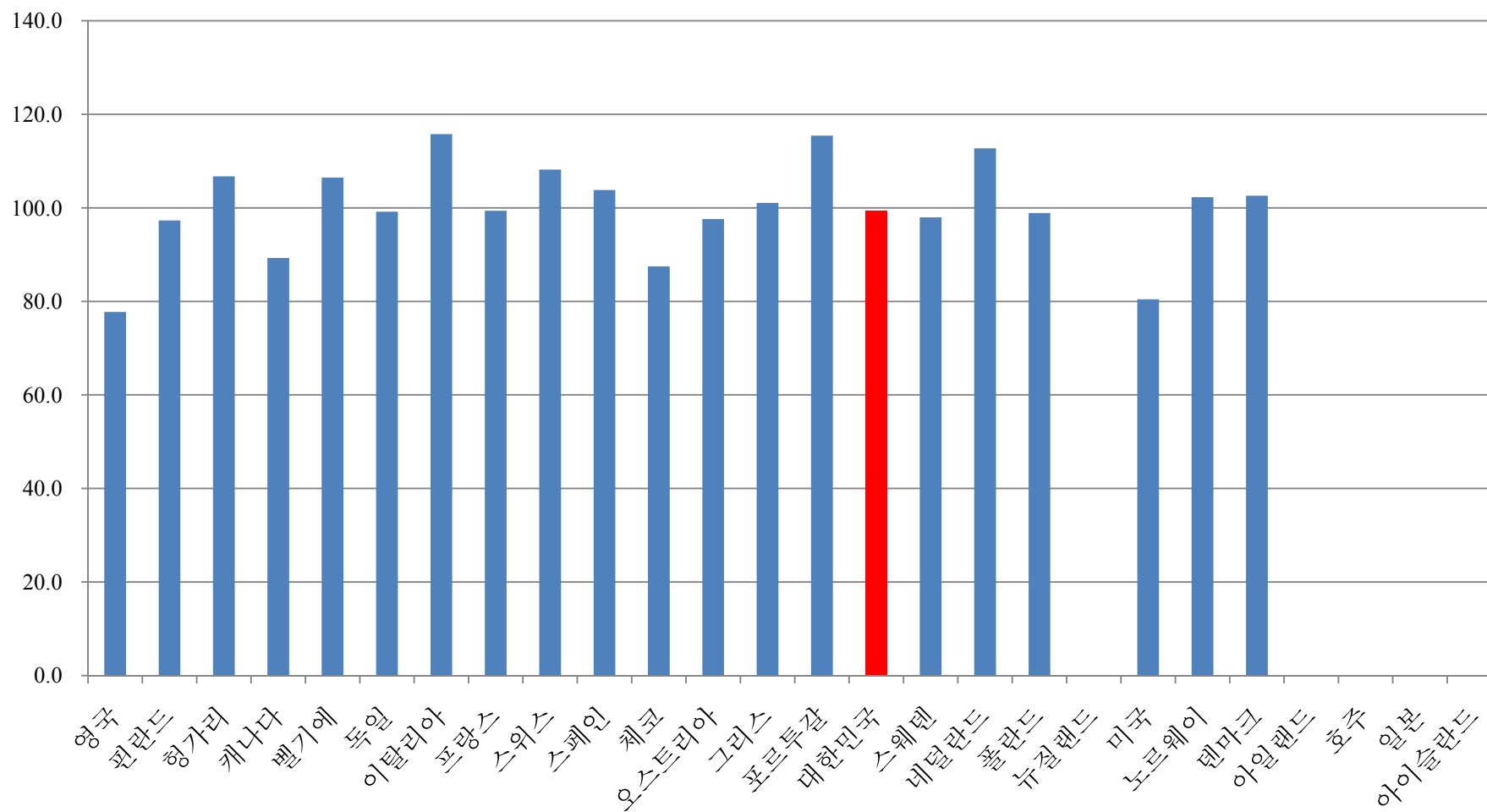
[보건과 안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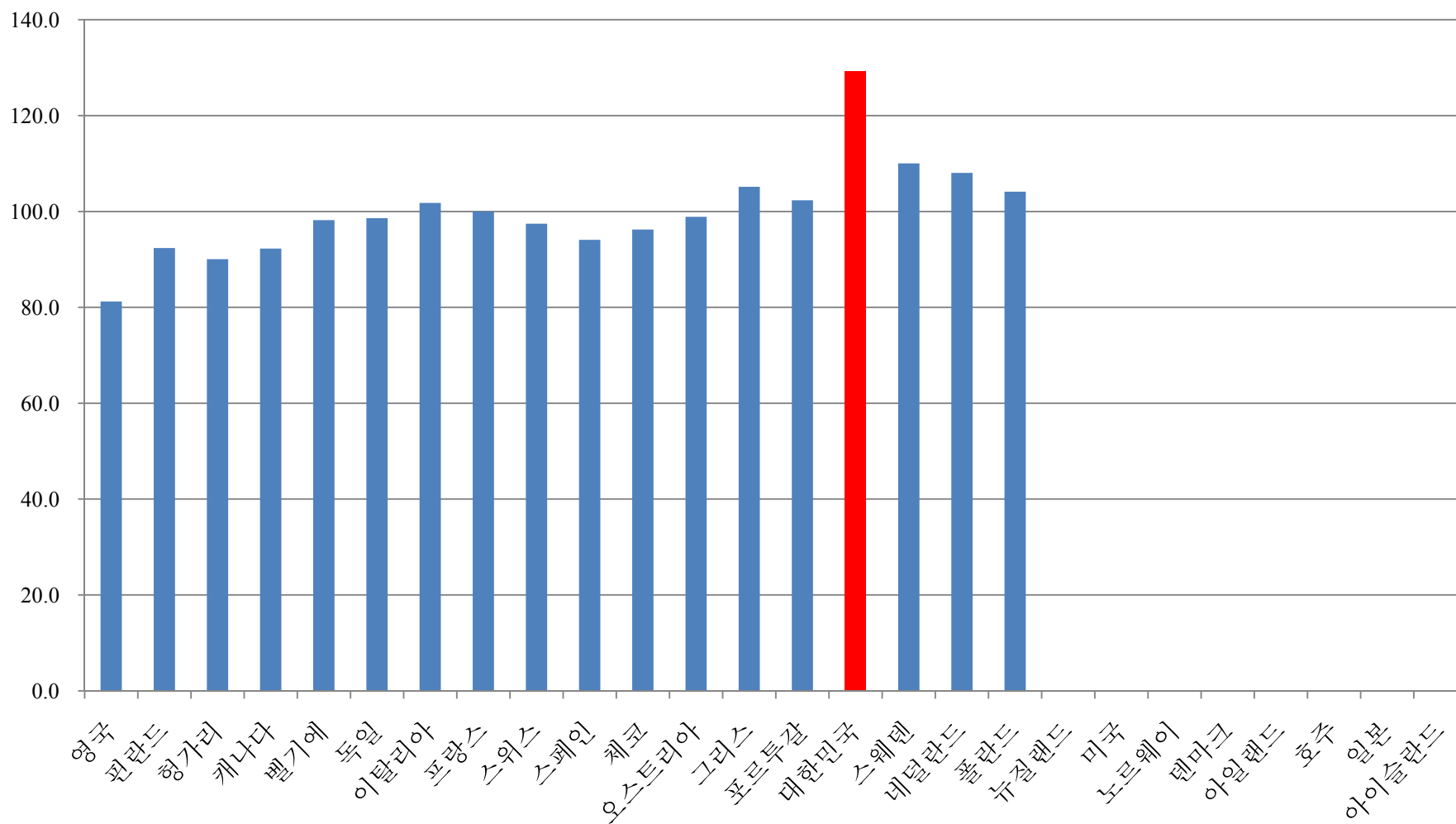
[보건과 안전]

가족과 친구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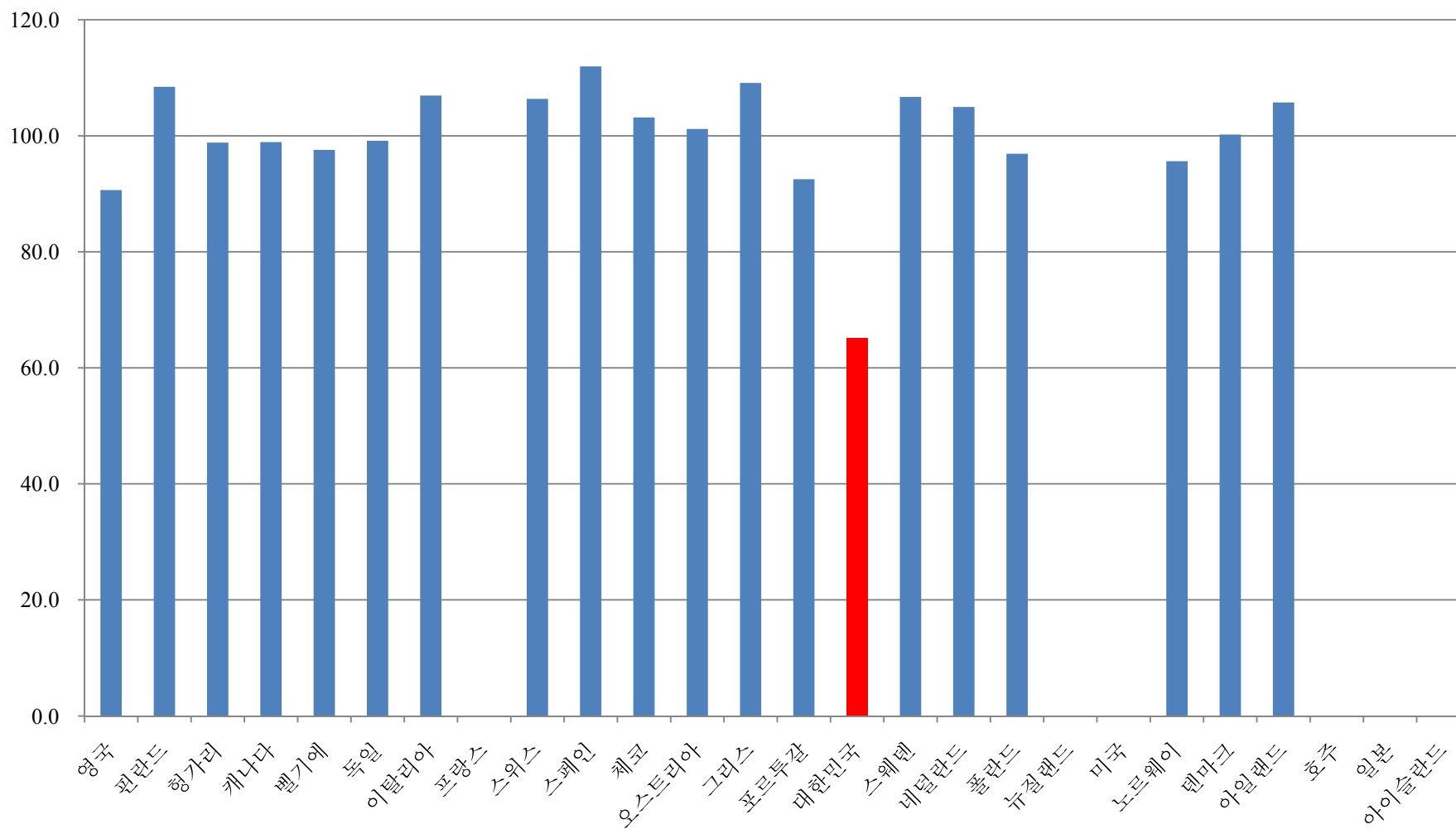
[가족과 친구관계]

건강관련행위



[건강관련행위]

주관적 행복



[주관적 행복]

-부록- 설문지